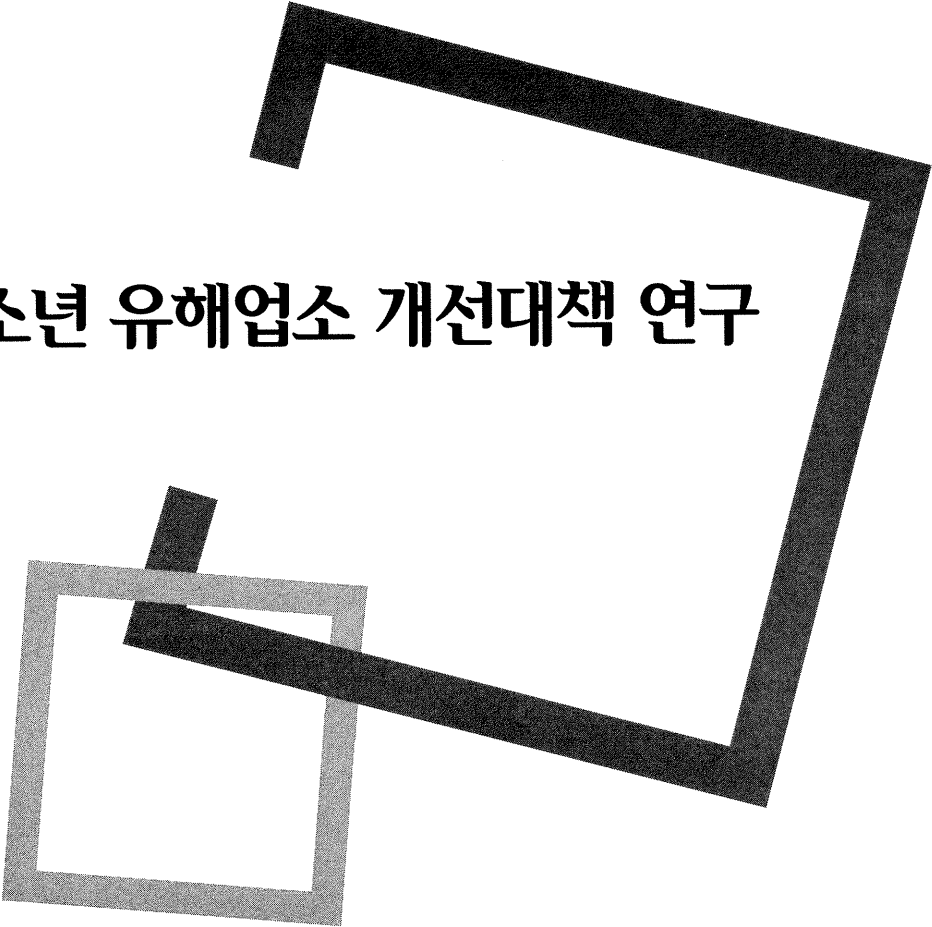




청소년 유해업소 개선대책 연구

책임연구원 | 유진이 (평택대 청소년복지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김영인 (방송통신대 교육과 교수)

홍영균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

신현숙 (전남대 교육학과 교수)

차조일 (경인고등학교 교사)

청소년 유해업소 개선대책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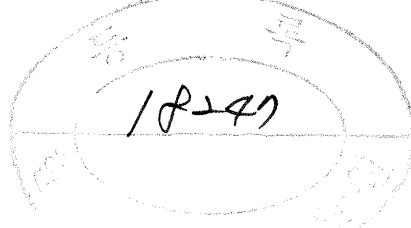
책임연구원 : 유진이 (평택대 청소년복지학과 · 교수)

공동연구원 : 김영인 (방송통신대 교육과 · 교수)

홍영균 (홍익대 건축학과 · 교수)

신현숙 (전남대 교육학과 · 교수)

차조일 (경인고등학교 · 교사)



(사)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연구 요약

연구요약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환경적 요인은 평생을 거쳐 인간의 인성, 정체성, 생활자세 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의 정도는 성장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환경적 감수성이 예민하고 인성과 정체성 등이 고착화되지 않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환경적 요인의 영향 정도는 제일 강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약해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삶의 주체로서 정체성을 역동적으로 모색하고 확립해 가는 불안정적이고 개방적인 시기로서 환경적 요소 즉, 주변환경(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인성과 정체성을 확립한다.

청소년의 주변환경이 유익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유해할 경우 이것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심각하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가 및 사회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유흥업소의 출입, 유해매체접촉 등을 특별히 금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의 수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 유해업소 증가에 의해 청소년 주변환경이 악화되어 가는 것과 더불어 청소년의 문제행동도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것은 질적인 측면에서 청소년문제행동이 점점 폭력화·집단화·잔인화 되어가고 있으며, 과거 일부 청소년에게 국한되었던 현상이 현재는 전체 청소년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은 유해업소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한다. 실제로 유해업소가 청소년문제행동이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기존의 많은 연구들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청소년문제행동에 대한 유해업소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단지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내에서 청소년 문제행동의 발생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높다.” 혹은 “유해업소 출입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다” 등과 같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주장을 통해 유해업소가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밝히고 있을 뿐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구체적으로 유해업소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해요인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유해업소에 내재된 유해요인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 문제행동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밝혀내지 못하였다. 즉, 기존 연구에서는 유해업소 내부의 어떤 요인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청소년에 대한 유해업소의 영향력은 일종의 'Black Box'로 취급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유해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유해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유해업소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내재되어 있는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유해요인들의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청소년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청소년 유해업소는 어떠한 유해요인들을 가지고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 및 유해요인 접촉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 및 확산 경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청소년 유해업소의 유해요인들은 어떤 경로를 거쳐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는가?

<연구문제 5> 청소년 유해업소의 유해한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비행’ ‘일탈행동’ ‘범죄’ 등과 같은 용어대신 지난 2001년 청소년 개발원에서 실시한 ‘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연구’에서 제시된 ‘청소년 문제행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청소년 문제행동’은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사회적으로 부적절한(혹은 부적절한 것으로 인식되는) 행동들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에 대한 입장은 생물학적 접근, 심리학적 접근, 사회학적 접근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유해업소’에 초점을 둔 본 연구에서는 사회학적 접근을 이론적 토대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이론적 토대로 삼고 있는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은 구체적으로 사회구조 지향이론과 사회과정 지향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III. 선행 연구 개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청소년 유해업소의 개념과 유형은 접근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해업소 관련 법규정을 중심으로 한 ‘법적접근’ 과 업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 ‘기능적 접근’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소년 유해업소와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이현희(1994), 이성우(2004), 최인섭과 진수명(1999), 정문성(1992), 도종수, 이광호, 임상숙, 김영아 (1990), 김문조, 윤옥경, 이춘화(2000), 이호진과 이명선(2001), 김문조, 윤옥경, 이춘화(2000), 김준호와 박정선(1996), 김문조와 이성식(1994)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유해업소의 개념이나 유해업소의 유형구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었다. 어떤 업소가 유해업소인지에 대해 법적인 접근과 기능적인 접근이 차이가 나고 심지어는 연구자에 따라 유해업소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 또한 유해업소를 격리하거나 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등의 피상적인 대책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유해업소가 가진 유해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유해업소가 어떠한 유해요인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러한 유해요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아가 유해요인 도출을 통해 유해업소가 가지는 유해성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유해업소의 범주를 구분할 수 있으며 나아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도 가능할 것이다.

IV.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및 심층면접, 설문조사 그리고 전문가 자문 및 자문회의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문헌을 수집·분석하였다. 유해업소들의 유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교육청), 학교급별(중·인문고·실업고), 성별로 학생청소년 1,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유해업소의 정의 및 범위를 규정하고 설문문항의 타당도 검토를 위해 현장 교사들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수립과 관련하여 학계, 연구기관, 학교현장에 계신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연구는 1단계: 문헌연구, 2단계: 전문가 자문 및 자문회의, 3단계: 청소년과 교사에 대한 심층면접, 4단계: 설문지 작성 및 설문조사 실시, 5단계: 설문분석, 6단계: 대책마련 및 보고서 작성의 절차를 거쳐 수행되었다.

V. 연구결과 1: 유해업소와 유해요인

청소년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업소에서 발생하는 문제행동’으로 유해물질 접촉과 관련된 문제행동, 유해매체 접촉과 관련된 문제행동, 폭행/금품갈취 등과 관련된 문제행동, 이성친구와의 성적접촉 등과 관련된 문제행동, 무단외박/가출 등과 관련된 문제행동을 선정할 수 있었다. 문제행동과 관련된 유해업소를 심층면접을 통해 파악하였다. 유해물질 접촉과 관련된 문제행동에 연관된 업소로는 구입 측면에서는 슈퍼/마트/편의점, 기타 담배판매점, 소비측면에서는 술집(호프/소주방/민속주점/포장마차), 노래방,

카페, PC방, 비디오방/DVD방, 당구장, 오락실, 식당을, 유해매체 접촉과 관련된 문제행동에 연관된 업소로는 대어측면에서는 도서대여점, 비디오/DVD 대여점, 관람측면에서는 (성인)PC방, 비디오방/DVD방, 노래방을 청소년들은 선정하였다. 폭행/금품갈취 등과 관련된 문제행동에 연관된 업소로는 폭행 측면과 금품갈취/절도 측면에서 오락실, 노래방을,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 등과 관련된 문제행동에 연관된 업소로는 성적접촉 측면에서 노래방, 비디오방, 성관계 측면에서 여관을 청소년들은 선정하였다. 이외에 무단외박/가출 등과 관련된 문제행동에 연관된 업소로 심야귀가 측면에서 PC방, 술집, 무단외박/가출 측면에서 찜질방, PC방, 비디오방, 술집, 여관을 선정하였다. 또한 심층면접을 통해서 유해행동에 결정적인 유해업소의 유해요인으로, 술/담배 등과 같은 유해물질, 각종 음란물/폭력물 등과 같은 유해매체, 문제친구와의 만남, 폐쇄적인 공간(밀실) 이용, 심야영업을 도출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유해요인을 업소의 영업내용에 따라 직접적 유해요인 및 간접적 유해요인으로 다시 분류하였다.

도출된 유해요인을 바탕으로 기존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유해업소 개념을 “유해업소란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유해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업소”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 유해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유해요인의 유형, 즉 직접적 유해요인과 간접적 유해요인에 따라 유해업소를 유해업소 1, 2, 3, 4로 분류하였다. 이 중에서 유해업소와 관련되는 것은 유형 1, 2, 3이며 나머지 하나(직접적 유해요인×, 간접적 유해요인×)는 유해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해업소라고 할 수 없다.

유해업소는 유해요인을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지(잠재적 유해성) 아니면 실제로 청소년들이 유해요인에 접촉하는지(실제적 유해성)에 따라 잠재적 유해업소와 실제적 유해업소로 유형구분이 가능하다.

VI. 연구결과 2: 유해업소 출입과 유해요인 접촉 실태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들의 (잠재적) 유해업소 출입은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잠재적 유해업소에 출입한 것 자체가 유해요인 접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술집이나 여관, 비디오방 등과 같이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출입자체가 금지된 업소에서도 청소년의 출입이 확인되었다.

유해업소 출입이 유해요인 접촉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의 결과 유해업소 출입이 유해요인 접촉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해업소 출입이 유해요인 접촉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유해업소별로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실태 및 출입경험과 유해요인 접촉경험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VII. 연구결과 3: 유해요인 접촉과 확산경로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 경로로서 ‘업주의 관리소홀’과 ‘청소년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질문하여 접촉경로를 파악하였다.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유해요인 접촉경험의 유무에 따라 어떠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대상 청소년들을 유해요인 접촉경험에 따라 3집단(접촉경험 무, 접촉경험 1-5회, 접촉경험 6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해요인이 확산되어가는 과정을 청소년과 관련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유해요인 접촉에 대한 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했는지, 그리고 유해업소에 누구와

동행하였는지에 대해 질문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VIII. 연구결과 4: 유해요인과 문제행동

유해요인이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통계적 분석결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는 5가지의 유해요인 중 유해물질에 대한 접촉, 유해대체에 대한 접촉, 밀실 이용 등의 3가지 유해요인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3가지 요인 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유해물질접촉이었다.

IX. 연구결과 5: 유해업소 개선대책

본 연구에서는 유해업소에 내재되어 있는 유해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단순한 출입 제한이 아닌 유해요인 접촉 제한 나아가 유해요인에 대한 사회적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해업소가 가진 유해성에 따라 다른 차원의 대책을 구분하여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즉, 출입 자체가 유해요인 접촉으로 이어지는 유해성이 강한 업소에 대한 대책과 그렇지 않은 업소들에 대한 대책이 다르게 제시되어야 한다. 유해성이 강한 업소들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소들에 대해서는 유해요인 접촉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해업소들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할 점은 유해업소 출입이 즉각적으로 유해요인 접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출입하더라도 유해요인에는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유해요인을 보유한 ‘잠재적 유해업소’ 들 중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 업소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해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과 청소년들에게 유해요인 접촉을 발생하는 실제적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을 차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모든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유해업소에 출입한 모든 청소년들이 유해요인에 접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출입이 허용된 유해업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유해요인에 접촉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해업소나 유해요인에 대한 접촉경험이 있는 청소년들과 그렇지 못한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차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경험만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유해요인에 접촉하는 과정과 유해요인들이 확산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분석을 시도하였다. 유해요인을 중심으로 접근하지 않은 기존의 유해업소 연구에서는 유해업소 내에서 청소년들의 유해요인이 접촉이 일어나는 과정이 일종의 블랙박스로 인식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유해요인 접촉이 업소 측의 관리소홀과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유해요인 접촉 노력에 의해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해요인 접촉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부모와 또래집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유해요인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유해요인을 보유한 잠재적 유해업소에서 청소년들이 유해요인에 접촉하게 과정인 접촉경로에 대한 분석 결과 청소년들의 유해요인에 접촉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유해요인의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업소측에게 있음이 확인

되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유해요인 접촉을 막기 위해서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함께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서 유해요인에 접촉하기 위해 거짓말, 신분증 변조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점도 확인되었다. 그 결과 업주측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청소년들이 적극적인 출입노력이 업주측의 관리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유해요인 접촉의지를 가지고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유해업소 개선을 위해서는 유해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3가지의 유해요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모든 유해요인에 대해 적절한 관리조치를 하는 것이지만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모든 유해요인을 관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3가지의 유해요인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해업소 개선을 위한 대책은 유해업소 개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먼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는 법적 제도적으로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청소년의 출입 여부에 대한 관리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청소년들이 이들 유해업소에서 유해요인에 접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들 업소에 대한 대책은 청소년의 출입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반면 ‘청소년 이용 가능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출입 제한은 별다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 업소에 대한 대책은 업소내부에서 청소년들이 유해요인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유해요인들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잠재적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의 핵심은 청소년들의 출입시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청소년 출

입금지 업소의 업주와 종업원들에 대한 청소년 출입예방 교육 실시, 지역단위로 같은 업종의 업주들끼리 자율협의체를 통한 자율적인 청소년 출입 예방활동 장려, 성인 인증 지침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제시하였다. 실제적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단속과 처벌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 ‘시민단속반’ (가칭) 구성, 상습적인 출입을 허용한 경우 형사처벌 등을 제시하였다.

유해업소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출입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도 포함되어야 한다. 유해업소 출입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출입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예방적 조치로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교육이다.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출입하다 적발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접근 보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 방안으로 사회봉사 처분, 일정 시간의 교육 프로그램 이수, 부모님과 함께 하는 상담 처분 등을 제시하였다.

유해요인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청소년들의 출입이 허용되는 업소들의 경우에는 출입금지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 이들 업소들은 성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주요 영업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유익하거나 중립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업소들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청소년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이들 업소를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유해요인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즉,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출입제한 대책보다는 유해요인 관리대책이 적절한 조치이다. 특히 유해물질과 유해매체, 밀실이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IX. 결 론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 있는 사실들이 확인되었다.

첫째, 유해업소측의 관리 소홀과 청소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 청소년의 유해요인 접촉이 발생한다.

둘째, ‘유해물질접촉’, ‘유해매체접촉’, ‘밀실이용’ 등의 유해요인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일으키고 있다.

셋째, ‘유해물질접촉’과 ‘유해매체접촉’은 직접적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밀실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바탕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유해요인에 대한 사회적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업소측의 자율적인 관리나 청소년들의 자제를 바랄 것이 아니라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해요인에 대한 사회적 관리’를 위해 기존의 출입 금지 대책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 물론 이러한 대책들은 개별 유해업소들에 대한 보다 미시적인 연구결과들에 의해 보완되고 현실의 행정전문가들에 의해 다듬어져야 하지만, ‘유해요인에 대한 사회적 관리’라는 본 연구의 제안은 이러한 과정에서도 기본 지침으로서 일관되게 지켜져야 할 것이다.

<목 차>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4
3. 연구의 제한점	5
II. 이론적 배경	9
1. 청소년과 문제행동	9
1) 청소년기의 특징	9
2) 청소년 문제행동의 개념과 유형	10
3)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	11
4) 청소년 문제행동의 이론	12
2. 유해환경과 청소년	15
1) 청소년과 환경	15
2) 유해환경의 개념과 특징	17
3) 유해환경과 유해요인	18

III. 선행 연구 개관23

1. 청소년 유해업소의 개념과 유형23
 - 1) 법적 접근23
 - 2) 기능적 접근25
2. 청소년 유해업소와 청소년 문제행동25
 - 1) 유해업소 밀집지역과 청소년 문제행동25
 - 2) 유해업소 출입경험과 청소년 문제행동26
3. 선행연구의 문제점30

IV. 연구방법 및 절차35

1. 연구의 방법35
 - 1) 문헌연구35
 - 2) 심층면접35
 - 3) 설문조사36
 - 4) 전문가 자문 및 자문회의36
2. 연구의 절차37
 - 1) 1단계: 문헌연구37
 - 2) 2단계: 전문가 자문 및 자문회의37
 - 3) 3단계: 청소년과 교사에 대한 심층면접37
 - 4) 4단계: 설문지 작성 및 설문조사 실시37
 - 5) 5단계: 설문분석39

6) 6단계: 대책마련 및 보고서 작성	39
-----------------------------	----

V. 연구결과 1: 유해업소와 유해요인43

1. 청소년 문제행동과 유해요인	43
1) 업소와 청소년 문제행동	43
2) 청소년 문제행동 발생 업소	44
3) 유해요인의 도출	45
4) 유해요인의 유형 분류	46
2. 청소년 유해업소의 개념과 유형	47
1) 청소년 유해업소의 개념	47
2) 청소년 유해업소의 유형	49

VI. 연구결과 2: 유해업소 출입과 유해요인 접촉 실태55

1.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실태	55
1) (술, 담배를 판매하는) 슈퍼/마트/편의점	55
2) 오락실	57
3) PC방	59
4) (술, 담배를 판매하는) 카페/식당	61
5) 도서대여점/비디오 및 DVD대여점	62
6) 당구장	64
7) 노래방	66
8) 술집/유흥주점(나이트클럽)	68
9) 성인PC방/비디오/DVD방	70

10) 찜질방	72
11) 여관	73
2. 청소년의 유해요인 접촉실태	75
1) (술, 담배를 판매하는) 슈퍼/마트/편의점	77
2) 오락실	78
3) PC방	80
4) (술, 담배를 판매하는) 카페/식당	83
5) 도서대여점/비디오 및 DVD대여점	85
6) 당구장	87
7) 노래방	89
8) 술집/유흥주점(나이트클럽)	91
9) 성인PC방/비디오/DVD방	94
10) 찜질방	96
11) 여관	98
VII. 연구결과 3: 유해요인 접촉과 확산경로	103
1. 유해요인 접촉경로	103
1) 유해요인 접촉경로에 대한 인식의 차이	104
2) 접촉경험 유무에 따른 유해요인 접촉경로에 대한 인식의 차이	107
2. 유해요인 확산경로	112
1) 정보 확산경로	112
2) 인적 확산경로	115

VIII. 연구결과 4: 유해요인과 문제행동119

1. 유해요인 접촉과 청소년 문제행동119

2. 유해요인들 간의 인과관계121

IX. 연구결과 5: 유해업소 개선대책127

1. 유해업소 개선 대책마련을 위한 시사점127

1) 유해요인 접촉실태 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127

2) 유해요인 접촉 및 확산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132

3) 유해요인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경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135

2. 유해업소 개선을 위한 대책136

1)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개선대책139

2)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 개선대책149

X. 결 론163

<참고문헌>165

<부록 1> 심층면접에 사용된 설문지171

<부록 2> 설문지174

〈표 차례〉

〈표 2-1〉 청소년 문제행동의 유형	11
〈표 2-2〉 청소년 유해요인	19
〈표 3-1〉 청소년 유해업소의 정의	23
〈표 3-2〉 청소년 유해업소의 유형	24
〈표 4-1〉 설문 대상 학교	38
〈표 5-1〉 업소에서 발생하는 문제행동	43
〈표 5-2〉 문제행동과 관련된 업소	44
〈표 5-3〉 문제행동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유해요인	45
〈표 5-4〉 직·간접적 유해요인	47
〈표 5-5〉 잠재적 유해성과 실제적 유해성	48
〈표 5-6〉 유해요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유형분류	49
〈표 5-7〉 유해성에 따른 유해업소 유형	51
〈표 6-1〉 술, 담배를 판매하는 슈퍼/마트/편의점 출입빈도	56
〈표 6-2〉 남녀별 술, 담배를 판매하는 슈퍼/마트/편의점 출입(주별)	56
〈표 6-3〉 중/고등학생별 술, 담배를 판매하는 슈퍼/마트/편의점 출입통계(주별)	57
〈표 6-4〉 오락실 출입빈도(주별)	58
〈표 6-5〉 남녀별 오락실 출입통계(주별)	58
〈표 6-6〉 중/고등학생별 오락실 출입통계(주별)	59
〈표 6-7〉 PC방 출입통계(주별)	59
〈표 6-8〉 남녀학생별 PC방 출입통계(주별)	60
〈표 6-9〉 중/고등학생별 PC방 출입통계(주별)	60

<표 6-10> 카페/식당 출입통계(월별)	61
<표 6-11> 남녀학생별 카페/식당 출입통계(월별)	61
<표 6-12> 중/고등학생별 카페/식당출입통계(월별)	62
<표 6-13> 도서대여점/비디오 및 DVD대여점 출입통계(월별)	63
<표 6-14> 남녀학생별 도서대여점/비디오 및 DVD대여점 출입통계(월별) ..	63
<표 6-15> 중/고등학생별 도서대여점/비디오 및 DVD대여점 출입통계(월별)	64
<표 6-16> 당구장 출입통계(월별)	64
<표 6-17> 남녀학생별 당구장 출입통계	65
<표 6-18> 중/고등학생별 당구장 출입통계(월별)	65
<표 6-19> 노래방 출입통계(월별)	66
<표 6-20> 남녀학생별 노래방 출입통계(월별)	67
<표 6-21> 중/고등학생별 노래방 출입통계(월별)	67
<표 6-22> 술집/유흥주점(나이트클럽) 출입통계(학기별)	68
<표 6-23> 남녀학생별 술집/유흥주점(나이트클럽) 출입통계(학기별)	69
<표 6-24> 중/고등학생별 술집/유흥주점(나이트클럽) 출입통계(학기별) ..	69
<표 6-25> 성인PC방/비디오/DVD방 출입통계(학기별)	70
<표 6-26> 남녀학생별 성인PC방/비디오/DVD방 출입통계(학기별) ..	71
<표 6-27> 중/고등학생별 성인PC방/비디오/DVD방 출입통계(학기별) ..	71
<표 6-28> 찜질방 출입통계(학기별)	72
<표 6-29> 남녀학생별 찜질방 출입통계(학기별)	73
<표 6-30> 중/고등학생별 찜질방 출입통계(학기별)	73
<표 6-31> 여관 출입통계(학기별)	74
<표 6-32> 남녀학생별 여관 출입통계(학기별)	74
<표 6-33> 중/고등학생별 여관 출입통계(학기별)	75
<표 6-34> 유해업소출입과 유해업소접촉의 관계	76
<표 6-35>슈퍼/마트/편의점에서유해요인접촉경험(학기별)	77

〈표 6-36〉 슈퍼/마트/편의점 출입경험과 유해물질 접촉 경험 간의 상관관계	78
〈표 6-37〉 오락실에서 유해요인별 접촉횟수(학기별, 단위 %)	79
〈표 6-38〉 오락실에서 유해요인접촉경험(학기별, 단위 %)	80
〈표 6-39〉 오락실 출입경험과 유해물질 접촉 경험 간의 상관관계	80
〈표 6-40〉 PC방에서 유해요인별 접촉횟수(학기별, 단위 %)	81
〈표 6-41〉 PC방에서 유해요인 접촉경험	82
〈표 6-42〉 PC방 출입경험과 유해요인 접촉경험 간의 상관관계	82
〈표 6-43〉 카페/식당에서 유해요인별 접촉횟수(학기별, 단위 %)	84
〈표 6-44〉 카페/식당에서 유해요인 접촉경험	84
〈표 6-45〉 카페/식당 출입경험과 유해물질 접촉 경험 간의 상관관계	85
〈표 6-46〉 도서대여점/비디오 및 DVD대여점에서 유해요인 접촉경험	86
〈표 6-47〉 도서대여점/비디오 및 DVD대여점 출입경험과 유해요인 접촉 경험간의 상관관계	87
〈표 6-48〉 당구장에서 유해요인별 접촉횟수(학기별, 단위 %)	88
〈표 6-49〉 당구장 출입경험과 유해요인 접촉경험 간의 상관관계	88
〈표 6-50〉 당구장에서 유해요인접촉경험	89
〈표 6-51〉 노래방에서 유해요인 접촉횟수(학기별, 단위 %)	90
〈표 6-52〉 노래방에서 유해요인 접촉경험(학기별)	91
〈표 6-53〉 노래방 출입경험과 유해요인 접촉 경험 간의 상관관계	91
〈표 6-54〉 술집/유흥주점(나이트클럽)에서 유해요인별 접촉횟수 (학기별, 단위 %)	92
〈표 6-55〉 술집/유흥주점(나이트클럽)에서 유해요인접촉경험	93
〈표 6-56〉 술집/유흥주점(나이트클럽) 출입경험과 유해요인 접촉경험 간의 상관관계	93

<표 6-57> 성인PC방/비디오/DVD방에서 유해요인별 접촉횟수 (학기별, 단위%)	94
<표 6-58> 성인PC방/비디오/DVD방에서 유해요인접촉경험	95
<표 6-59> 성인PC방/비디오/DVD방 출입경험과 유해요인 접촉경험 간의 상관관계	95
<표 6-60> 찜질방에서 유해요인별 접촉횟수(학기별, 단위 %)	97
<표 6-61> 찜질방에서 유해요인 접촉경험	97
<표 6-62> 찜질방 출입경험과 유해물질 접촉경험 간의 상관관계	98
<표 6-63> 여관에서 유해요인별 접촉횟수(학기별, 단위 %)	99
<표 6-64> 여관에서 유해요인 접촉경험	99
<표 6-65> 여관 출입경험과 유해요인 접촉경험 간의 상관관계	100
<표 7-1> 전체 유해요인에 대한 접촉경로	104
<표 7-2> 유해물질 접촉경로	105
<표 7-3> 유해매체 접촉경로	106
<표 7-4> 밀실이용 접촉경로	106
<표 7-5> 심야시간의 업소이용 접촉경로	107
<표 7-6> 전체 유해요인 접촉경로로서 ‘업주 측의 관리 소홀’ 에 대한 인식	108
<표 7-7> 전체 유해요인 접촉경로로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노력’ 에 대한 인식	109
<표 7-8> 개별 유해요인 접촉경로로서 ‘업주 측의 관리 소홀’	110
<표 7-9> 개별 유해요인 접촉경로로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노력’	111
<표 7-10> 유해요인 정보 확산경로	113
<표 7-11> 정보 확산경로 집단에 따른 전체 유해요인 접촉정도	113
<표 7-12> 정보 확산경로 집단에 따른 유해요인별 접촉정도	114

<표 7-13> 유해업소 인적 확산경로	115
<표 7-14> 유해업소 인적 확산경로	116
<표 7-15> 인적 확산경로 집단에 따른 유해요인별 접촉정도	116
<표 8-1> 유해행동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	120
<표 8-2> 유해물질 접촉과 유해매체 접촉이 ‘밀실이용’ 에 주는 영향력	123
<표 9-1> 유해업소 출입경험별 유해요인 접촉경험 분석	129
<표 9-2> 유해업소 출입경험과 유해요인 접촉경험 간의 상관관계 ..	130
<표 9-3> 유해요인이 확산되는 과정에 친구와 부모의 역할	134
<표 9-4> 유해업소 유형	137
<표 9-5> 업소의 청소년 출입여부	137
<표 9-6> 유해업소별 출입여부 및 대책	138
<표 9-7> 유해업소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영역	139
<표 9-8> 출입금지 된 업소 출입경험 청소년 비율	140
<표 9-9>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의 활동	150
<표 9-10> 출입가능 유해업소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는 요인들	152

〈그림 차례〉

〈그림 2-1〉 청소년의 주위환경	17
〈그림 3-1〉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실태 및 비행과의 관계	29
〈그림 3-2〉 전자오락실의 매개적 역할	29
〈그림 3-3〉 술집의 매개적 역할	30
〈그림 5-1〉 유해업소의 변화	52
〈그림 6-2〉 유해요인접촉에 유해업소출입이 주는 영향	76
〈그림 8-1〉 유해요인과 문제행동의 관계	120
〈그림 8-2〉 3가지 유해요인과 청소년의 문제행동 간의 인과관계 ..	121
〈그림 8-3〉 3가지 유해요인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경로	123
〈그림 9-1〉 유해업소에서 유해요인 접촉경로의 책임	133
〈그림 9-2〉 유해요인 확산에 대한 부모와 친구의 역할	135
〈그림 9-3〉 유해업소내의 유해요인들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과정	136
〈그림 9-4〉 출입금지업소 청소년의 출입원인	141
〈그림 9-5〉 잠재적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1	141
〈그림 9-6〉 잠재적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2	142
〈그림 9-7〉 실제적 유해업소에 대한 관리대책	144
〈그림 9-8〉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	145
〈그림 9-9〉 잠재적 유해업소에서 유해요인 접촉경로의 책임	151
〈그림 9-10〉 청소년 출입가능 잠재적 유해업소에 대한 관리	151
〈그림 9-11〉 잠재적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	153
〈그림 9-12〉 실제적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	155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
3. 연구의 제한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되고 발전된다. 인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은 크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범주화될 수 있다. 이 중에서 유전적 요인은 인간형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상수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유전적 요인을 상수라 할 때 인간형성에서 있어서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주로 집중되는 것은 환경적 요인이다. 환경적 요인은 인간형성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유전적 요인도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발현되거나 묻혀버리기 때문이다. 일란성 쌍둥이도 환경적 요인이 다른 곳에서 성장하면 전혀 다른 인간의 모습이 되는 것에서 보듯이 환경적 요인은 인간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같은 환경적 요인은 평생을 거쳐 인간의 인성, 정체성, 생활자세 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의 정도는 성장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환경적 감수성이 예민하고 인성과 정체성 등이 고착화되지 않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환경적 요인의 영향 정도는 제일 강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약해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아동기의 안정적이고 단혀진 생활모습에서 벗어나 삶의 주체로서 정체성을 역동적으로 모색하고 확립해 가는 불안정적이고 개방적인 시기이다. 아동기의 자기중심적인 편협한 시각을 벗어나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과의 소통 속에서 자신을 확립해 나가며, 이와 같은 환경적 요소 즉, 주변 환경(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에 의해서 인성과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변 환경이 유익하지 않거나 주변 환경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청소년은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을 겪거나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더 나아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문제행동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청소년의 주변 환경이 유익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유해할 경우 이것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심각하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가 및 사회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유해업소의 출입, 유해매체접촉 등을 특별히 금하고 있으며, 청소년교육기관인 학교주변의 환경을 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가의 이러한 노력은 다음과 같은 청소년보호법 규정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누구든지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촉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폭력·학대 등을 당하고 있음을 안 때는 이를 제지 및 선도하여야 하며, 청소년 유해매체물·약물 등의 유통,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안 때, 또는 청소년폭력·학대 등으로부터 피해입고 있음을 안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고·고발 등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국가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의 수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 유해업소의 숫자는 2002년 현재 746,217개소로서 청소년인구 1,000명당 약 65개소에 이르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윤추구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사회의 기본구조, 상업주의 문화의 팽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보호의식의 이완 등에 의해서 이러한 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의 접촉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증가에 의해 청소년 주변 환경이 악화되어 가는 것과 더불어 청소년의 문제행동도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것은 질적인 측면에서 청소년문제행동이 점점 폭력화

집단화·잔인화 되어가고 있으며, 과거 일부 청소년에게 국한되었던 현상이 현재는 전체 청소년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은 유해업소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한다. 실제로 유해업소가 청소년문제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기존의 많은 연구들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청소년문제행동에 대한 유해업소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단지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내에서 청소년 문제행동의 발생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높다” 혹은 “유해업소 출입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다” 등과 같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주장을 통해 유해업소가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밝히고 있을 뿐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구체적으로 유해업소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해요인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유해업소에 내재된 유해요인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 문제행동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밝혀내지 못하였다. 즉, 기존 연구에서는 유해업소 내부의 어떤 요인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청소년에 대한 유해업소의 영향력은 일종의 'Black Box'로 취급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에 바탕 한 대책들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출입 통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유해업소가 유해한 영향을 주는 것은 확인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해요인들이 문제인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해업소에 대한 출입이나 고용 자체를 관리하는 대책을 세웠던 것이다. 그 결과 청소년 유해업소에 내재되어 있는 유해요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유해업소는 일률적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어왔다.

유해업소에 대한 규제를 통해 몇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유해업소의 유해성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 없이 이루어진 기존의 대책

들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예방이나 개선에 있어 적절성이나 타당성을 가지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유해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유해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유해업소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유해업소에 내재되어 있는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유해요인들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청소년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청소년 유해업소는 어떠한 유해요인들을 가지고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및 유해요인 접촉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유해요인 접촉 및 확산 경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청소년 유해업소의 유해요인들은 어떤 경로를 거쳐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는가?

<연구문제 5> 청소년 유해업소의 유해한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3. 연구의 제한점

청소년 유해업소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전반적인 내용을 본 연구에서 모두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보다 효율적인 연구의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을 인정하고 이를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고용'을 통해 유해업소로부터 유해한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셋째, 본 연구는 청소년 유해업소들이 지역(유홍상업지역, 위락지구)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과 문제행동
2. 유해환경과 청소년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과 문제행동

1) 청소년기의 특징

우리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청소년은 아동과 어른의 사이에 낀 연령세대로 청소년이란 말을 사용하여 왔으며, 청소년기를 아동과 구분하여 별도로 설정하게 된 시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청소년이나 청소년기는 아동과 어른의 ‘가운데에 낀’ 그리고 그 중간에서 ‘연결시켜 주는’ ‘사이 및 전환기 세대’ 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발달심리학에서는 이를 전환기 (transition period)라고 부르기도 한다(Dusek, 1987).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가는 과도기로서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나며 청소년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다. 실제로 청소년기에는 신체구조, 외양, 목소리가 바뀌는 제2차 성장을 거치게 되며, 정신적으로는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며 정체성을 추구하기 위해 사색을 하거나 주위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기도 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설계하기도 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이 시기에 잘 적응하지만 한편 일부 청소년들은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부적응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춘기가 시작되는 12, 13세경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17세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Allen, Moore, & Kupermine, 1997).

2) 청소년 문제행동의 개념과 유형

(1) 청소년 문제행동의 개념

과도기로서 청소년기의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부적응의 문제는 청소년들의 행동으로 표출된다. 이와 같이 부적응의 문제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행동은 ‘비행’ ‘일탈행동’ ‘범죄’ 등의 용어들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용어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다른 용어들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실제로 청소년 비행이나 일탈행동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넓은 의미로 청소년 문제행동을 규정할 때에는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그 외 사회규범, 규칙을 어긴 행위 전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범죄행위를 제외한 일탈행위를 지칭하기도 하는 등 아직까지 그 개념정의를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 ‘일탈행동’ ‘범죄’ 등과 같은 용어대신 지난 2001년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실시한 ‘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연구’에서 제시된 ‘청소년 문제행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청소년 문제행동’은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사회적으로 부적절한(혹은 부적절한 것으로 인식되는) 행동들’을 의미한다.

(2) 청소년 문제행동의 유형

지난 2001년 ‘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문제행동은 <표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크게 규범적 문제행동, 법률적 문제행동, 사이버 문제행동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하위영역에서 세부 문제행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

<표 2-1> 청소년 문제행동의 유형

문제행동	세부사항
규범적 문제행동	표출형 문제행동
	유흥/풍속형 문제행동
	권위반항형 문제행동
법률적 문제행동	폭력/절도형 문제행동
	성 비행
	도피형 비행
사이버 문제행동	사이버 비가해형 문제행동
	사이버 가해형 문제행동

3)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

일반적으로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에 대한 논의는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다. 인간에 대한 생물학적 접근, 심리학적 접근, 사회학적 접근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생물학적 접근은 문제행동의 원인을 문제행동을 하는 청소년의 생리적 구조에서 찾으려고 하는 입장이다. 생물학적 입장에서는 문제행동을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상적인 사람과는 다른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며, 문제행동을 하는 청소년은 신체적 특성이나 생김새 등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심리학적 접근은 개인적 동기나 성격적, 정서적 특성에서 문제행동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입장이다. 심리학적 입장에서는 문제행동이 정상인과는 다른 성격이나 정서적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전제하며, 문제행동을 하는 청소년은 성격검사나 정서적 측면에 대한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셋째, 사회학적 접근은 비행의 문제행동의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보려는 접근방법이다. 사회학적 입장에서는 가정환경, 가족 또는 가족 외의 구성원과의 관계, 사회·경제·문화적 환경 등에 의해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나타난다고 전제하며,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사회구조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4) 청소년 문제행동의 이론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에 대한 3가지 입장 중 생물학적 접근은 너무나 결정론적이기 때문에 최근 연구들에서는 채택되지 않고 있다. 이 입장에 따르면 한번 문제행동을 일으킨 청소년은 평범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재사회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생물학적 특징이 변화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의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심리학적 접근과 사회학적 접근을 병행하여 사용한다.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과 사회의 구조적 특징이 상호작용하면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해업소’에 초점을 둔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적 접근보다는 사회학적 접근이 보다 타당하다. 업소 자체가 사회구조로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유해업소라는 사회적 구조(환경)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사회학적 이론을 검토하고자 한다.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사회학적 이론들은 유해업소가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본 연구에서 이론적 토대로 삼고 있는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은 사회구조 지향이론과 사회과정 지향이론으로 구분가능하다.

(1) 사회구조 지향이론

청소년 비행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행동에 대한 다양한 개입 전략들이 개발되고 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이유는 청소년기 문제행동과 비행이 개인적 변인이나 가정 또는 학교라는 미시체계 변인들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를 포함한 여러 변인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Farrington, 1999; Lipsey & Derzon, 1999).

특히 청소년문제행동에 대한 사회구조 지향이론에서는 개인 행동의 일탈을 환경 및 사회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이 관점에서는 문제행동 행위자들의 행동을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의 박탈에 대한 반응으로 특징짓는다. 이 이론에서는 사회의 성공적인 목표에 대한 성취 기회의 결핍을 중요시 한다. 여기에 따르면 청소년 문제행동은 하류계층의 사회나 대도시의 빈민층에서 많이 나타난다.

사회구조 지향이론은 다시 긴장이론과 문화전달이론으로 나누어진다(권이중, 1996).

첫째, 긴장이론에서는 개인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회적·경제적인 성공이나 목표달성을 하지 못할 때 생기는 긴장감이나 좌절감이 비행을 유발시킨다고 본다. 사람들이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분히 사회계층에 의해 좌우된다고 본다. 상류계층과 다르게 하류계층의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성공은 훨씬 힘들어진다. 여기에서 생기는 긴장과 좌절감으로 인해 하류계층의 청소년들은 쉽게 문제행동에 빠져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긴장이론은 뒤르케임(Durkheim)의 아노미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머튼(Merton)은 아노미 개념을 문제현상에 적용하여 긴장이론을 주창하였다. 그러나 긴장이론은 사회 속에서의 문제행동과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문제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효과적이나, 개인 내부에서의 문제

화 과정을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긴장이론의 문제는 중상류층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청소년문제행동을 설명하지 못한다. 현대사회에서 청소년 문제행동의 발생은 중상류층에서 그 발생률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이 이론으로는 이러한 청소년문제행동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기 어렵다.

둘째, 문화전달이론에서는 문제행동의 원인으로 사회적 제도나 지역사회의 통제력 결핍을 꼽는다. 이 관점에서는 도시지역의 하층민들이 중류 문화와 갈등을 이루는 하류 문화에 집착하여 자신들의 문제행동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문제행동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다.

(2) 사회과정 지향이론

사회구조 지향이론은 특정의 지역에 존재하는 문제행동의 사회적 원인을 잘 지적하고 있으나, 사회적 해체를 강조한 나머지 문화적, 인종적 요소의 영향을 과소평가한 점, 소위 ‘문제행동 지역’에 존재하는 ‘문제행동을 저지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설명력의 부족, 빈민가가 아닌 지역에서의 높은 비행 발생률에 대한 설명 부족, 그리고 사회 심리적 요소 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지 못한 점 등이 한계이다.

사회과정 지향이론에서는 사회구조 지향이론과 문제행동의 개인적, 환경적 이론과의 연계를 설명한다. 대표적인 사회과정 지향이론으로는 차별적 접촉이론과 통제이론이 있다.

첫째, 차별적 접촉이론은 쉐들랜드(Sutherland)가 제안한 것으로, 이 이론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유동적인 것으로 보며, 모든 행동을 학습된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문제행동도 학습된 것으로 보며, 문제행동의 학습은 초기에는 사소한 비형식적인 집단에서 이루어지다가 나중에는 집단적 경험의 형태로 발전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차별적 접촉 이론에서는 문제행동의 학습과정에 대한 지나친 단순화 문제, 문제행동 발달과정에 있어서의 개인 성격변인에 대한 설명 부재, 실증적 측정에서

의 애로점 등이 한계로 나타난다.

둘째, 통제이론은 허쉬(Hirschi)에 의해 체계화 된 이론으로, 문제행동을 저지르는 이유가 사회의 통제력이 약하거나 없기 때문으로 보는 관점이다. 청소년통제 특히 문제행동을 통제해 주는 요인으로는 가정과 학교의 요인을 중요시한다. 통제 체제는 개인적 통제와 사회적 통제로 구분된다. 개인적 통제에는 심리적 요소 즉, 자아개념이나 자아존중의 개념이 포함되며, 사회적 통제요소로는 사회적 유대나 애착 즉, 종교, 가정적 요소, 학교경험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유해환경과 청소년

1) 청소년과 환경

인간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인간의 행위를 결정함에 있어 인간 스스로의 자유의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이 인간의 행위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중립적 요인은 아니다. 환경의 영향은 인간의 자유의지 만큼이나 인간행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환경은 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큰 영향을 준다.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있어 긍정적인 물리적·사회적 환경은 이들이 성숙된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환경이 인간의 성장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는 학문영역이 인간발달생태학(human developmental ecology)이다. 인간발달생태학은 환경적 상호연결성과 그 상호연결성이 심리학적 성장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힘에 관한 하나의 이론적 관점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경이 행동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론은 대인간 과정들(interpersonal process), 예컨대, 강화, 모델링, 동일시 및 사회학습 등에 대한 이론들이다. 이러한 생태학적 이론에서는 유전적 요소, 가정의 역사, 사회경제적 수준, 가정생활의 질, 문화적인 배경과 같은 요인들이 청소년의 발달과 관련된다고 본다. (이명숙, 1996)

대표적인 생태학적 이론가인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는 인간의 발달에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 등의 여러 환경적 체계가 서로 상호작용 하여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미시체계는 발달하는 개인의 독특한 물리적·물질적인 특성을 가진 환경 내에서 경험하는 활동, 역할 및 대인관계의 유형이다. 여기서 환경이란 가정, 학교, 청소년 단체 및 각종 업소 등과 같이 사람들이 쉽게 얼굴을 마주 대하는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는 장소이다. 활동, 역할, 그리고 대인관계의 요인들은 미시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또는 미시체계를 구성하는 건축 자재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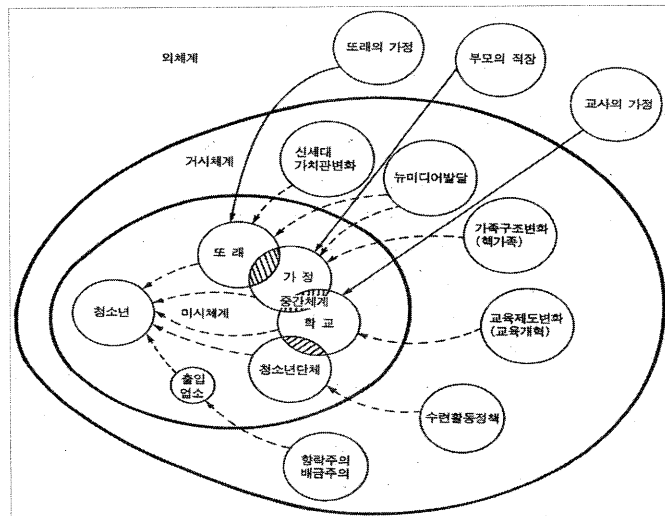
중간체계는 발달하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둘 이상의 환경들간의 상호관계(interaction)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경우는 가정과 학교, 가정과 또래집단, 학교와 청소년 단체 사이의 관계가 이에 해당한다. 중간체계는 미시체계들로 구성된 하나의 체계이다. 중간체계는 발달하는 개인이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할 때마다 형성되거나 확대된다. 이러한 일차적인 연결 이외에도 상호연결성에는 많은 부가적인 형태의 상호연결고리(interconnections)들이 있다.

외체계란 하나 이상의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달해 가는 개인이 그 환경들 속에 적극적인 참여자로 포함되지는 않지만, 그 환경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게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환경이다. 외체계의 예를 들면,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의 직장, 순위형제가 다니는 학교 학급, 부모의 친구 조직망, 지방 교육청의 활동 등이 포함된다.

거시체계는 주어진 문화 또는 하위문화 내에서 그것을 구성하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의 형태와 내용이 나타내는 일관성을 의미하며, 그런 일관성에 기초가 되는 신념체제 또는 이념을 포함한다.

이처럼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은 <그림 2-1>과 같이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생태학적 관점에서 유해업소는 그 특성상 미시체계에 포함될 수 있다.



<출처: 이명숙, 1996>

<그림 2-1> 청소년의 주위환경

2) 유해환경의 개념과 특징

환경은 인간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생태학이론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 그러나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환경은 인간의 성장발달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 즉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이상섭, 1991).

일반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은 ‘청소년의 정상적인 심신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들, 그리고 청소년과 그러한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유해한 영향의 결과’에 따라 규정될 수 있다.

청소년 유해환경의 특성은 첫째, 환경의 유해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즉, 어떤 환경의 유해성에 대한 판단은 판단의 주체나 판단기준, 청소년의 연령, 사회풍토, 사회문화적 맥락, 특정 환경의 운용행태 등 여러 가지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상대성은 유해환경의 규제가 청소년의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도종수 외, 1990). 둘째, 청소년 유해환경은 청소년의 정상적인 성장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미시적 환경 요소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문제행동이나 비행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거시적 환경요소들을 포괄한다.

3) 유해환경과 유해요인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환경의 관련성은 청소년의 비행이나 범죄가 관련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요인(risk factor)과 청소년의 비행이나 범죄를 예방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쾌적요인(resiliency factor) 또는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파악되는 유해요인은 <표 2-2>와 같다.

<표 2-2> 청소년 유해요인

환 경	유 해 요 인
개 인/ 또래집단	반항심
	문제행동을 하는 친구
	문제행동에 대한 호의적 태도
	문제행동을 어릴 때 시작함
	개인의 체질적 요인(심리적 생물학적)
가 정	문제행동에 대한 가족내력
	가정관리문제
	가족갈등
	문제행동에 호의적이고 휩쓸리게 하는 부모의 태도
학 교	어려서 계속되는 반사회적 행동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학구적 실패
	학교에 대한 열의 부족
지역사회	약물의 가용성
	무기의 가용성
	약물사용, 무기, 범죄 등에 대한 우호적인 지역사회 법규와 규범
	대중매체의 폭력에 대한 묘사
	전이와 이동성
	낮은 지역사회 친밀도와 지역사회 조직화
	극도의 경제적 궁핍

<출처: Howell and Bilchik, 1995>

Ⅲ. 선행 연구 개관

1. 청소년 유해업소의 개념과 유형
2. 청소년 유해업소와 청소년문제행동
3. 선행연구의 문제점

III. 선행 연구 개관

1. 청소년 유해업소의 개념과 유형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청소년 유해업소의 개념과 유형은 접근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해업소 관련 법규정을 중심으로 한 ‘법적접근’과 업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 ‘기능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법적 접근

청소년 유해업소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법적 접근은 기본적으로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표 3-1>과 같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청소년이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은 유해한 업소를 청소년 유해업소로 정의하고 있다.

<표 3-1> 청소년 유해업소의 정의

청소년보호법 제2조 5항

5.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1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1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법적 접근에서는 유해업소의 유형을 <표 3-2>에서 본 바와 같이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및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구분하고 있다.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동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 다양한 종류의 업소가 포함된다. 청소년고용금지업소도 <표 3-2>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업소가 포함된다.

<표 3-2> 청소년 유해업소의 유형

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동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 (5)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 (6)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공공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 대여업과 동법에 의한 비디오물 소극장업,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 (4) 삭제 <2004·1·29>
-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판매업 및 취급업
-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 (7)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2) 기능적 접근

기능적 접근에서는 업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해성에 근거하여 유해업소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문조·김선업(1992)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 관련 유해업소는 다방, 카페, 룸싸롱, 술집, 당구장, 여관, 카바레, 사창가 등 그 성격이 객관적으로 유해하다고 인정되고 법적으로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업소 및 자체적으로는 유해업소로 되고 있지 않았더라도 그곳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유해성을 지니고 있는 업소를 모두 포괄한다(김문조·김선업, 1992)

이러한 기능적 접근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유형 또한 업소측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준호·박정선(1995)은 유해업소를 크게 오락성업소와 성인용업소로 나누고, 각각을 5개의 하위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 오락성업소로 분류된 업소는 오락실(성인오락실, 전자오락실), 만화·비디오가게(만화가게, 만화방, 비디오가게, 비디오방), 롤러스케이트, 당구장, 노래방 등의 다섯 유형이다. 성인용업소에 포함되는 업소들은 술집(스탠드바, 룸싸롱, 생맥주집, 호프집, 단란주점, 소주방 등), 포장마차, 디스코장(디스코 나이트클럽, 락카페, 카바레, 성인디스코), 숙박업소(여관, 여인숙, 호텔), 매춘업소(사창가, 퇴폐이발소) 등의 다섯 유형이다.

2. 청소년 유해업소와 청소년 문제행동

1) 유해업소 밀집지역과 청소년 문제행동

많은 연구들은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왔다. 주로 사회해체론에 바탕하여 진행된 연구들이다 Roncek & Maier(1991)의 연구에서는 술집(Bar)이 많은 지역에서 폭력, 강도, 강간 등의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현희(1994)는 유흥업소의 숫자에 따른 지역특성이 범죄발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서울시의 폭력범죄발생이나 절도범죄발생에 있어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한 기회제공변수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성우(2004)의 연구에 따르면 유해업소(풍속대상업소)의 수가 많을수록 5대 범죄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인섭과 진수명(1999)의 연구에 따르면 유흥업소 수와 저소득자의 비율이 폭력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유흥업소의 수가 많고, 저소득주민의 구성비가 많은 지역에서 폭력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거주환경과 청소년비행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정문성(1992)에 따르면 유흥업소지역 청소년들이 ‘폭력 및 성적 비행’이나 ‘가출비행’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따르면 주거지역에 따라 청소년들의 비행 경험의 차이가 있었으며 나아가 비행유형에도 차이를 보였다.

2) 유해업소 출입경험과 청소년 문제행동

지역사회에서 유해업소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지역중심적인(거시적인) 입장과는 달리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이라는 구체적인 미시적인 행위에 관심을 둔 연구들 또한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유해업소 출입과 청소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아래에서는 이들 연구들이 사용한 분석방법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의 성과들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1) 상관관계분석

선행연구에서는 업소출입경험과 문제행동경험과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유해업소 출입이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유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도종수, 이광호, 임상숙, 김영아(1990)에 따르면, 유해시설 이용경험과 각종 비행 경험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흥가, 사창가, 카페, 심야만화가게, 디스코장 등의 이용경험은 비행경험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김문조, 윤옥경, 이춘화(2000)에 따르면, 유해업소 출입과 비행경험 사이에는 $r = .32$ 의 상당히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유해업소 접촉이 비행의 매개 또는 비행의 한 단면이라고 보는 사회적인 시각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호진과 이명선(2001)의 연구에 따르면, 음주경험, 흡연경험, 성경험, 음주경험이 있는 집단의 유해환경(유해업소)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회귀분석

업소출입경험과 문제행동경험과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분석에 비해 회귀분석을 활용한 연구들은 업소출입경험을 독립변인으로 문제행동경험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이들간의 인과성을 보여주고 있다.

Paetsch & Bertrand(1997)는 유흥업소이용이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상업/유흥업소 이용경험이 비행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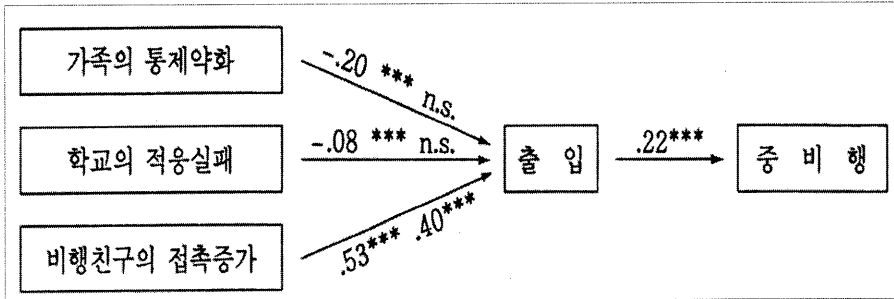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도 김문조, 윤옥경, 이춘화(2000)이 실시한 비행경험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비행경험에 대한 유해업소출입 변수의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에서 (유해) 업소출입은 비행경험을 설명하는 변수로 드러났으며, 여타 변수들이 통제된 후에도 그 영향력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 경로분석

기존의 연구에서 진행된 회귀분석의 결과 업소출입경험이 문제행동경험에 주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업소출입경험 이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 변인들과 업소출입경험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업소출입경험을 포함한 여러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로분석이 사용되어 왔다.(<그림 3-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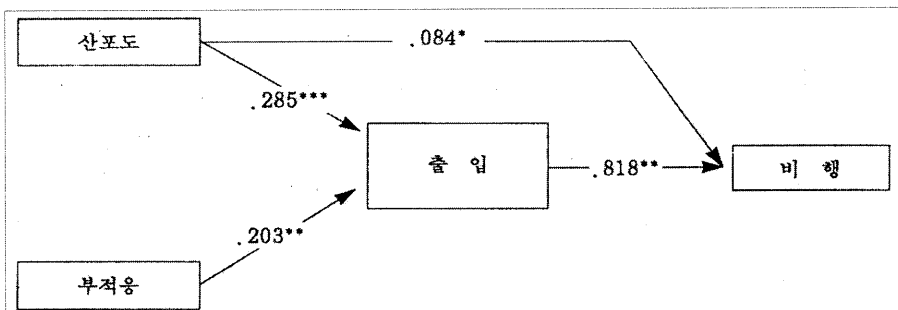
이러한 경로분석에는 문제행동(비행)이 종속변인으로 유해업소출입경험, 가정의 통제, 학교생활의 적응도, 비행친구와의 접촉 등의 요인들이 독립변인으로 포함되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유해업소출입은 가정의 통제 부족이나 학교에서의 부적응으로 일어나는 문제행동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준호와 박정선(1996)는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실태 및 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유해환경출입이 비행으로 가는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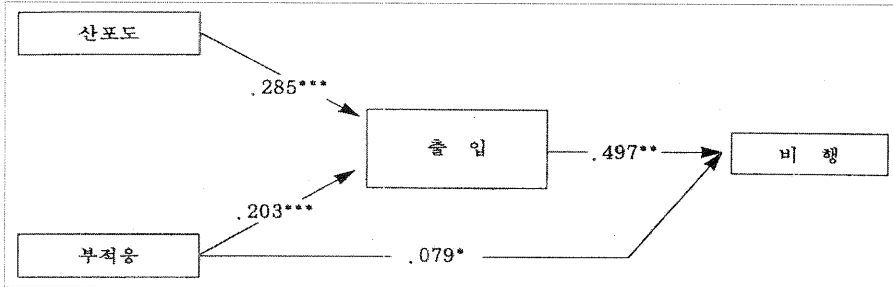


<그림 3-1>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실태 및 비행과의 관계

김문조와 이성식(1994)은 경로분석을 통해 유해환경출입이 청소년 비행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즉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실패한 아이들이 바로 비행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오락실이나 술집 등과 같은 유해환경에 출입함으로써 술이나 담배 등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보다 심한 비행행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그림 3-2>, <그림 3-3> 참고)



<그림 3-2> 전자오락실의 매개적 역할



〈그림 3-3〉 술집의 매개적 역할

3. 선행연구의 문제점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지역사회에 유해업소가 존재하는 것이 유해업소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해업소 출입이 청소년들의 문제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음 또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유해업소의 존재’ 혹은 ‘유해업소 출입’ 등이 가지는 유해성을 중심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유해업소 자체의 특징이나 유해업소 내부에서 청소년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유해업소가 가지는 유해성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고 “유해업소가 무엇인지?”, “유해업소가 왜 유해한지?” 등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진행하지 못하였다.

유해업소의 유해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유해업소의 개념이나 유해업소의 유형구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었다. 어떤 업소가 유해업소인지에 대해 법적 접근과 기능적 접근이

차이가 나고 심지어는 연구자에 따라 유해업소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 또한 유해업소를 격리하거나 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등의 피상적인 대책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유해업소가 가진 유해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유해업소가 어떠한 유해요인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러한 유해요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아가 유해요인 도출을 통해 유해업소가 가지는 유해성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유해업소의 범주를 구분할 수 있으며 나아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도 가능할 것이다.

IV.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절차

IV.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및 심층면접, 설문조사 그리고 전문가 자문 및 자문회의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1) 문헌연구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문헌을 수집·분석하였다. 관련 문헌에 대한 검토를 통해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기존의 사회학적 이론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 기존 연구에 대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유해업소가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문헌연구를 토대로 청소년 유해업소와 청소년 문제행동의 개념, 청소년 유해업소의 유형과 유해성, 유해업소 출입과 문제행동의 관계 등에 대해 살펴 볼 수 있었다.

2) 심층면접

유해업소들의 유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Kahn & Cannell(1957)은 면접이란 ‘목적을 가진 대화’라고 기술하였다. 질적 심층면접은 미리 설정된 반응영역을 사용하기보다는 비형식적인 대화 형태를 취한다. 연구자들은 참여자의 견해를 알기 위해 몇 가지 일반적 주제를 탐색하지만, 참여자의 반응을 기초로 해석의 틀을 세우고 구조화하는 방식을 존중한다(Marshall &

Rossman, 1999). 사실 이것이 바로 질적 연구의 근본적인 가정이다. 이야기는 참여자가 자신이 보는 세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이다. 깊은 이해는 긴 대화나 심층면접을 통해서 면접자와 참여자가 의미를 상호-구성하면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유해업소에 출입하면서 유해요인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이들 청소년들을 주로 지도하는 ‘생활교육부’ (학생부)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해 유해업소의 개념과 종류를 구체화할 수 있었고 유해업소에 내재하는 유해요인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도 가능하였다. 나아가 설문 응답에 대한 통계분석의 결과의 해석 및 대책 수립과정에서도 교사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활용하였다.

3) 설문조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교육청), 학교급별(중·인문고·실업고), 성별로 학생 청소년 1,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 및 유해요인 접촉 실태에 대해 확인하였고 유해요인의 접촉 확산 경로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나아가 경로분석을 통해 유해요인들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에 대해 검토하였다.

4) 전문가 자문 및 자문회의

유해업소의 정의 및 범위를 규정하고 설문문항의 타당도 검토를 위해 현장 교사들의 자문을 받았으며,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수립과 관련하여 학계, 연구기관, 학교현장에 계신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2. 연구의 절차

1) 1단계: 문헌연구

2005년 6월말까지 관련 문헌들을 수집하고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연구를 위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2) 2단계: 전문가 자문 및 자문회의

2005년 7월 중순까지 학회 및 여타 전문가 집단과의 개별접촉 및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구계획을 수정하였다.

3) 3단계: 청소년과 교사에 대한 심층면접

2005년 7월말부터 8월 초에 걸쳐 청소년과 교사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연구문제 1을 검토하였다.

면접대상 청소년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로서 고등학생 9명(남자고등학생 4명, 여자고등학생 5명), 중학생 4명(남자중학생 2명, 여자중학생 2명)이었다. 면접대상 교사는 총 5명으로서 중학교 교사 2명, 고등학교 교사 3명이었다.

학생과 교사들에 대한 심층면접과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해업소가 가지고 있는 유해요인을 도출하였고 이에 바탕 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의 개념을 재구성하였다.

4) 4단계: 설문지 작성 및 설문조사 실시

2005년 8월말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고등학교 1개 학급

을 대상으로 pilot-study를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수정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설문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 실려 있다)

- 유해업소 출입실태에 대한 질문
- 유해요인 접촉경험에 대한 질문
- 유해요인 접촉경로에 대한 질문
- 유해요인 확산경로에 대한 질문
- 문제행동 측정을 위한 질문
- 배경 변인에 대한 질문

2005년 9월초 완성된 설문지를 인쇄하여 표집된 학교들에 배부하였다. 표집된 학교들은 서울시에 위치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20개교였다. 표집방법은 다단계 층화 표집(교육청/학교급)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표 4-1>과 같이 중학교 총 366개교 중에서 9개교, 인문계고등학교 총 295개교 중에서 6개교, 실업계고등학교 총 80개교 중에서 4개교, 특지 인문계고등학교 1개교가 대상학교로 선정되었다.

<표 4-1> 설문 대상 학교

관할교육청	중 학 교	고 등 학 교
강서교육청	양천중학교	강서공업고등학교
남부교육청	영원중학교	경인고등학교
동작교육청	남서울중학교	인현고등학교
강남교육청	서초중학교	구정고등학교
강동교육청	송파중학교	명일여자고등학교
성동교육청	행당중학교	덕수정보산업고등학교
동부교육청	동원중학교	면목고등학교
북부교육청	수송중학교	도봉정보산업고등학교
성북교육청		수락고등학교
중부교육청	-	경기상업고등학교
서부교육청	연희중학교	-
특 지		한광고등학교

5) 5단계: 설문분석

2005년 9월초 20개 학교에 각각 70부씩 총 1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306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수거율은 93.28%로서 매우 높은 편이었다. 이처럼 설문지의 수거율이 높은 것은 직·간접적인 접촉, 유선 등을 통해서 설문조사의 협조를 부탁하였고 계속적으로 독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유해업소 개선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학교 교사 및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지에 대한 코딩작업을 마친 후 다음과 같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에 대한 검토

- 청소년의 유해요인 접촉 실태에 대한 분석
- 유해요인 접촉 및 확산경로에 대한 분석

-연구문제 3, 4에 대한 검토

- 유해요인들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 유해요인들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분석'

설문조사분석을 통해 얻어진 통계 자료에 대한 타당한 해석을 위해 유해업소와 유해요인 선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던 교사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다시 실시하였다. 이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도출할 수 있었다.

6) 6단계: 대책마련 및 보고서 작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석결과를 토대로 청소년과 교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립하였다. 특히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을 직접 단속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도경험이 있는 생활교육부 교사들을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해업소 개선 대책을 수립하였다.

V. 연구결과 1: 유해업소와 유해요인

1. 청소년 문제행도와 유해요인
2. 청소년 유해업소의 개념과 유형

V. 연구결과 1: 유해업소와 유해요인

1. 청소년 문제행동과 유해요인

1) 업소와 청소년 문제행동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중 업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2000년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에서 제시된 문제행동을 토대로 청소년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소에서 발생하는 문제행동’으로 유해물질 접촉과 관련된 문제행동, 유해매체 접촉과 관련된 문제행동, 폭행/금품갈취 등과 관련된 문제행동, 이성친구와의 성적접촉 등과 관련된 문제행동, 무단외박/가출 등과 관련된 문제행동을 선정할 수 있었고 각 행동에 따른 상세 내역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선정된 문제행동에 대해서 현장교사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토대로 그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표 5-1> 업소에서 발생하는 문제행동

문제행동	문제행동의 상세 내역
유해 물질 접촉과 관련된 문제행동	업소에서 청소년 유해물질(술/담배)을 구입하는 행위 업소에서 청소년 유해물질(술/담배)을 소비하는 행위
유해 매체 접촉과 관련된 문제행동	업소에서 청소년 유해매체(음란물/폭력물)를 대여하는 행위 업소에서 청소년 유해매체(음란물/폭력물)를 관람하는 행위
폭행/금품갈취 등과 관련된 문제행동	업소에서 폭행 등을 하는 행위 업소에서 금품갈취 등을 하는 행위 업소에서 절도 등을 하는 행위
이성친구와의 성적접촉 등과 관련된 문제행동	업소에서 이성친구와 성적 접촉을 하는 행위 업소에서 이성친구와 성관계를 맺는 행위
무단외박/가출 등과 관련된 문제행동	부모의 허락 없이 업소에서 늦은 밤까지 지내는 행위 부모의 허락 없이 업소에서 밤을 보내는 행위

2) 청소년 문제행동 발생 업소

청소년에 대한 심층면접의 과정에서 업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문제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소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추가로 질문하였다. 이러한 심층면접의 결과 <표 5-2>와 같은 업소들이 선정되었다.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해물질 접촉과 관련된 문제행동에 연관된 업소로는 구입 측면에서는 슈퍼/마트/편의점, 기타 담배판매점, 소비측면에서는 술집(호프/소주방/민속주점/포장마차), 노래방, 카페, PC방, 비디오방/DVD방, 당구장, 오락실, 식당을, 유해매체 접촉과 관련된 문제행동에 연관된 업소로는 대여측면에서는 도서대여점, 비디오/DVD 대여점, 관람측면에서는 (성인)PC방, 비디오방/DVD방, 노래방을 청소년들은 선정하였다. 폭행/금품갈취 등과 관련된 문제행동에 연관된 업소로는 폭행 측면과 금품갈취/절도 측면에서 오락실, 노래방을,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 등과 관련된 문제행동에 연관된 업소로는 성적접촉 측면에서 노래방, 비디오방, 성관계 측면에서 여관을 청소년들은 선정하였다. 이외에 무단외박/가출 등과 관련된 문제행동에 연관된 업소로 심야귀가 측면에서 PC방, 술집, 무단외박/가출 측면에서 찜질방, PC방, 비디오방, 술집, 여관을 선정하였다.

<표 5-2> 문제행동과 관련된 업소

문 제 행 동	유 해 업 소
유해 물질 접촉과 관련된 문제행동	① 구입: 슈퍼/마트/편의점, 기타 담배판매점 ② 소비(음주/흡연): 술집(호프/소주방/민속주점/포장마차), 노래방, 카페, PC방, 비디오방/DVD방, 당구장, 오락실, 식당
유해 매체 접촉과 관련된 문제행동	① 대여: 도서대여점, 비디오/DVD 대여점 ② 관람: (성인)PC방, 비디오방/DVD방, 노래방
폭행/금품갈취 등과 관련된 문제행동	① 폭행: 오락실, 노래방 ② 금품갈취/절도: 오락실, 노래방
이성친구와의 성적접촉 등과 관련된 문제행동	① 성적접촉: 노래방, 비디오방 ② 성관계: 여관
무단외박/가출 등과 관련된 문제행동	① 심야귀가: PC방, 술집, ② 무단외박/가출: 찜질방, PC방, 비디오방, 술집, 여관

3) 유해요인의 도출

동일한 문제행동이 발생하는 업소들의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행동이 발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업소들의 유해요인을 <표 5-3>과 같이 도출하였다.

<표 5-3> 문제행동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유해요인

유 해 업 소	유 해 요 인
① 구입: 슈퍼/마트/편의점, 기타 담배판매점 ② 소비(음주/흡연): 술집(호프/소주방/민속주점/포장마차), 노래방, 카페, PC방, 비디오방/DVD방, 당구장, 오락실, 식당	유해물질
① 대여: 도서대여점, 비디오/DVD 대여점 ② 관람: (성인)PC방, 비디오방/DVD방, 노래방	유해매체
① 폭행: 오락실, 노래방 ② 금품갈취/절도: 오락실, 노래방	문제친구들과의 만남
① 성적접촉: 노래방, 비디오방 ② 성관계: 여관	폐쇄적 공간(밀실) 이용
① 심야취가: PC방, 술집, ② 무단외박/가출: 찜질방, PC방, 비디오방, 술집, 여관	심야영업이용

이러한 유해요인에 대해서는 현장교사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다시 그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표 5-3>에 나타난 유해행동에 결정적인 유해업소의 유해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해요인은 술/담배 등과 같은 유해물질이다. 음주나 흡연과 관계된 술집이나 슈퍼/마트 등과 같이 유해물질의 구입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대

부분의 업소들은 술과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업소들이다.

두 번째 유해요인은 각종 음란물/폭력물 등과 같은 유해매체이다. 청소년들이 유해매체와 접촉하는 비디오방/비디오대여점 등은 업소 내에서 각종 음란물/폭력물을 보유하고 있는 업소들이다.

세 번째 유해요인은 문제친구와의 만남이다. 청소년들은 폭행/금품갈취 등의 문제행동을 혼자서 행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문제행동은 문제친구들과 함께 행하게 되는데 오락실, 노래방, 당구장 등은 이러한 문제친구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업소이다.

네 번째 유해요인은 폐쇄적인 공간(밀실) 이용이다. 청소년들이 이성간의 성적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규범이나 어른들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폐쇄적인 공간을 필요로 한다. 노래방, 비디오방 등은 이러한 공간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업소이다.

다섯 번째 유해요인은 심야영업이다. 청소년들이 업소에서 늦은 밤(오후 10시 이후) 청소년들을 오랜 시간 머무르게 하는 것은 무단외박/가출 등의 문제행동을 유발한다. 실제로 PC방, 술집, 찜질방, 비디오방 등은 늦은 시간까지 심야영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업소이다.

4) 유해요인의 유형 분류

분석을 통해 도출된 유해요인을 업소의 영업내용에 따라 <표 5-4>와 같이 직접적 유해요인 및 간접적 유해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직접적 유해요인이란 업소의 영업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유해요인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술집은 술을 파는 것이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영업의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술’이라는 ‘유해물질’은 직접적 유해요인이 된다.

반면 업소 측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함께 주 영업내용은 아니지만 부수적으로(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유해요인이 되는 경우를 간접적인 유해요인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비디오방에서 비디오관람을 위해 제공하는 폐쇄적인 공간(밀실)은 청소년들에게 간접적인 유해요인이 된다.

<표 5-4> 직·간접적 유해요인

유해요인	상세 내용
직접적 유해요인	① 유해물질접촉 ② 유해매체접촉
간접적 유해요인	① 문제친구와의 만남 ② 폐쇄적인 공간(밀실) 이용 ③ 심야영업이용

2. 청소년 유해업소의 개념과 유형

1) 청소년 유해업소의 개념

도출된 유해요인을 바탕으로 기존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유해업소 개념을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다시 정의할 수 있다.

“유해업소란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유해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업소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해업소의 ‘업소’란 업주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운영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유해’라는 단어는 유해요인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존의 유해성이라는 추상적인 용어가 ‘유해요인의 보유’라는 구체적인 용어로 보완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업소의 유해요인의 보유는 실제적인 접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잠재적인 유해성일 뿐 실제적인 유해성은 아니다. 업소가 보유한 유해요인이 청소년들에게 실제로 유해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유해요인에 접촉해야 한다.

따라서 유해업소의 개념을 논의할 때 요구되는 유해성은 유해업소의 유해요인의 보유에 따른 잠재적 유해성과 청소년들이 유해요인을 접촉함으로써 발생하는 실제적 유해성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즉, 잠재적 유해성은 업소가 유해요인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직 청소년이 접촉하지 않은 경우이고, 실제적 유해성은 청소년이 유해요인을 접촉하여 발현된 경우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잠재성, 실제성의 여부에 따라서 업소에 적합한 처방을 제시하는 데 유용하다. 잠재적 유해성과 실제적 유해성을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5-5>와 같다.

<표 5-5> 잠재적 유해성과 실제적 유해성

분 류	내 용
잠재적 유해성	업소가 유해요인을 보유만 하고 청소년이 접촉하지 않은 경우
실제적 유해성	업소가 보유한 유해요인에 청소년들이 접촉한 경우

2) 청소년 유해업소의 유형

(1) 유해요인에 따른 분류

유해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유해요인의 유형, 즉 직접적 유해요인과 간접적 유해요인에 따라 유해업소를 분류하면 <표 5-6>에서와 같이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중에서 유해업소와 관련되는 것은 유형 1, 2, 3이며 나머지 하나(직접적 유해요인×, 간접적 유해요인×)는 유해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해업소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유해요인에 따른 유해업소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표 5-6> 유해요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유형분류

	직접적 유해요인○	직접적 유해요인×
간접적 유해요인○	유해업소 유형 1	유해업소 유형 3
간접적 유해요인×	유해업소 유형 2	유해업소×

① 유해업소 1

직접적 유해요인과 간접적 유해요인을 함께 갖추고 있는 업소를 의미한다. 유해물질/유해매체 등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영업내용인 업소로서 기본적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영업한다.

청소년들이 주로 출입하는 업소 중 술집, 유흥주점(나이트클럽), 성인PC방, 비디오/DVD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업소에서는 청소년들은 술이나 음란물과 같은 직접적인 유해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폐쇄적인 공간(밀실), 심야영업 등의 간접적인 유해요인도 보유하고 있다.

이전부터 유해성이 널리 인정되어 청소년들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어 왔던 업소들이며 청소년 보호법에서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등으로 구

분되어 있다.

② 유해업소 2

직접적 유해요인을 갖추고 있지만 간접적 유해요인은 없는 업소이다. 주로 유해물질/유해매체 등을 제공하지만 업소 내에 폐쇄적인 공간(밀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이 와서 머무를 수는 없는 장소이다.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구입하는 슈퍼, 마트, 편의점, 카페, 식당 등과 함께 음란물을 빌려 보는 도서/비디오/DVD대여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업소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은 유해물질 및 유해매체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간접적인 유해요인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업소에서 청소년들은 유해물질이나 유해매체를 구입 및 대여는 하지만 다른 문제행동들은 하지 않는다.

이러한 유형의 유해업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연구에서는 특별하게 유해업소로 취급되지 않았다. 이들 업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하지 않은 재화나 서비스도 제공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다.

③ 유해업소 3

업소의 영업내용자체가 유해물질이나 유해매체를 제공하지 않는 업소들이다. 그러나 업소 내에 폐쇄적인 공간(밀실)을 갖추고 있거나 심야영업 등과 같은 간접적인 유해요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해업소로 분류된다.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노래방, 오락실, PC방, 당구장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업소들은 청소년 보호법상으로는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의 출입이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유해업소 연구에서 유해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었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은 아니지만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출입시간이나 시설에 대해 제한을 받고 있는 업소들이다.

(2) 유해성에 따른 분류

유해업소는 유해성의 종류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유해요인을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지(잠재적 유해성) 아니면 실제로 청소년들이 유해요인에 접촉하는지(실제적 유해성)에 따라 <표 5-7>과 같은 유형구분이 가능하다.

<표 5-7> 유해성에 따른 유해업소 유형

	유해요인 접촉○	유해요인 접촉×
유해요인 보유○	실제적 유해업소	잠재적 유해업소
유해요인 보유×	유해업소×	유해업소×

① 잠재적(potential) 유해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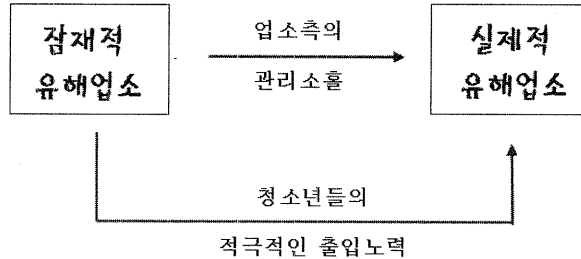
잠재적 유해업소란 유해요인을 보유한 업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 업소의 유해성은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유해한 결과를 낳기 이전의 ‘잠재적 유해성’이다.

이들 업소들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요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각종 규제와 간섭의 대상이 되어왔다.

② 실제적 유해업소

실제적 유해업소란 잠재적 유해업소 중 업주 측의 관리소홀이나 청소년들이 의도적인(불법적인) 노력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이 발생한 업소를 의미한다.

잠재적 유해업소는 <그림 5-1>에서와 같이 업소 측의 관리소홀이나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출입노력 등에 의하여 실제적 유해업소로 변화되어간다.



<그림 5-1> 유해업소의 변화

기존의 유해업소 논의에서는 주로 잠재적 유해업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유해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유해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업소 측이 유해요인을 잘 관리할 경우 청소년들이 유해요인에 접촉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VI. 연구결과 2: 유해업소 출입과 유해요인 접촉 실태

1.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실태
2. 청소년의 유해요인 접촉실태

VI. 연구결과 2: 유해업소 출입과 유해요인 접촉 실태

1.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실태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을 통해 각각의 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들의 출입빈도를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이 남녀에 따라, 학교급에 따라 유해업소 출입빈도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기 위해 t-검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응답자의 유해업소 출입횟수를 범주에 따라 재구성한 자료로서 출입횟수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분석 결과 청소년들의 (잠재적) 유해업소 출입은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잠재적 유해업소에 출입한 것 자체가 유해요인 접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술집이나 여관, 비디오방 등과 같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출입자체가 금지된 업소에서도 청소년의 출입이 확인되었다.

1) (술, 담배를 판매하는) 슈퍼/마트/편의점

술과 담배 등의 유해물질을 판매하는 슈퍼/마트/편의점 등은 청소년들의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업소들이다. <표 6-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어떠한 제한도 없이 이들 업소를 자유로이 이용하고 있으며 실제 45.9%의 청소년들이 1주일에 1회 이상 이들 업소에 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주일에 5회 이상 출입하는 비율이 22.7%에 달해 다른 업소에 비해 출입빈도가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6-1> 술, 담배를 판매하는 슈퍼/마트/편의점 출입빈도

출입횟수(1주)	빈 도	퍼센트
0회	706	54.1
1-2회	149	11.4
3-4회	154	11.8
5회 이상	297	22.7
합 계	1,306	100.0

슈퍼/마트/편의점에 대한 출입의 빈도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있어 남녀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6-2>와 같다. <표 6-2>에서 보는 것처럼, 남자 평균 1.01, 표준편차 1.27, 여자 평균 1.06, 표준편차 1.23로 평균과 표준편차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표 6-2> 남녀별 술, 담배를 판매하는 슈퍼/마트/편의점 출입(주별)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남학생	708	1.01	1.27
여학생	577	1.06	1.23
전 체	1,285	1.03	1.25

조사대상 청소년을 학교급별로 나누어 슈퍼/마트/편의점 출입에 있어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는 <표 6-3>과 같다. 중학생 평균 1.24, 표준편차 1.30, 일반계 고등학생 평균 .82, 표준편차 1.17, 실업계 고등학생 평균 .90, 표준편차 1.20로 나타나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에 비해 유해업소에 자주 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p=.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6-3> 중/고등학생별 술, 담배를 판매하는 슈퍼/마트/편의점 출입통계(주별)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값	p
중학생	591	1.24	1.30	16.156	.000
고등학생(일반)	380	.82	1.17		
고등학생(실업계)	314	.90	1.20		
전 체	1285	1.03	1.25		

2) 오락실

오락실은 관련 연구들을 통해 유해성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출입이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는 업소이다. 물론 밤 10시 이후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되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자유롭게 오락실에 출입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청소년들의 오락실 출입비율은 <표 6-4>에서와 같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PC방이나 온라인 게임의 등장으로 인해 오락실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1주일에 3회 이상 출입하는 비율이 5.6%에 불과하여 방과 후 청소년들이 매일같이 출입하는 모임 장소로 사용되던 오락실의 성격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4> 오락실 출입빈도(주별)

출입횟수(1주)	빈 도	퍼센트
0회	1081	82.8
1-2회	153	11.7
3-4회	36	2.8
5회 이상	36	2.8
합 계	1,306	100.0

오락실 출입에 있어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간의 출입경험을 분석하면 <표 6-5>와 같다. 남자 청소년의 평균 .31, 표준편차 .73, 여자 청소년의 평균 .18, 표준편차 .50으로 평균적으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자주 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6-5> 남녀별 오락실 출입통계(주별)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F값	p
남학생	708	.31	.73	5.387	13.293
여학생	577	.18	.50		
전 체	1,285	.25	.64		

오락실 출입에 있어서 학교급별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6-6>과 같다. <표 6-6>에서 보는 것처럼 오락실 출입의 순위는 실업계 고등학생, 중학생, 인문계 고등학생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6-6> 중/고등학생별 오락실 출입통계(주별)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F값	p
중학생	591	.27	.65	5.082	.006
고등학생(일반)	380	.17	.52		
고등학생(실업계)	314	.32	.74		
전 체	1,285	.25	.64		

3) PC방

PC방은 오락실과 마찬가지로 밤 10시 이후에는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된 시설이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청소년들의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는 유해업소이며 특히 방과 후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모임장소가 되고 있다.

과거에 청소년들의 모임장소로 애용되었던 오락실 출입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크게 낮아진 반면 PC방에 1주일에 3회 이상 출입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은 <표 6-7>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22.3%에 달해 많은 청소년들이 습관적으로 PC방을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7> PC방 출입통계(주별)

출입횟수(1주)	빈도	퍼센트
0회	608	46.6
1-2회	407	31.2
3-4회	145	11.1
5회이상	146	11.2
합계	1,306	100.0

<표 6-8>에서 보듯이 1주에 남학생들은 평균 1.20, 여학생들은 평균 .47로 나타나, 오락실과 마찬가지로 PC방 출입도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온라인 게임을 많이 즐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6-8> 남녀학생별 PC방 출입통계(주별)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F값	p
남학생	708	1.20	1.05	185.062	.000
여학생	577	.47	.79		
Total	1285	.87	1.01		

학교급에 따른 PC방 이용 결과는 <표 6-9>에 나타나 있다. <표 6-9>에서 보듯이 학교급별 PC방 출입 순위는 실업계 고등학생(평균 .97), 중학생(평균 .96), 인문계 고등학생(평균 .6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이었다($p=.000$).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중학생이나 실업계 고등학생들보다 PC방 출입빈도가 낮은 것은 대학입시로 인해 학업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입시준비를 위해 학교와 학원 등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보니 상대적으로 유해업소에 대한 출입빈도가 낮은 것이다.

<표6-9> 중/고등학생별 PC방 출입통계(주별)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값	p
중학생	591	.96	1.00	13.527	.000
고등학생(일반)	380	.65	.95		
고등학생(실업계)	314	.97	1.04		
Total	1285	.87	1.01		

4) (술, 담배를 판매하는) 카페/식당

청소년들의 카페/식당의 출입 통계가 <표 6-10>에 나타나 있다. 카페나 식당도 청소년들이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된 공간이다. 그러나 카페나 식당은 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슈퍼나 마트보다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출입의 빈도가 슈퍼나 마트보다는 낮다. <표 6-10>에서 살펴보면 실제로 1주일에 1회 이상(1개월에 4회 이상) 출입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8.1%에 불과하여 앞에서 살펴 본 슈퍼나 마트의 45.9%와는 큰 격차를 보였다.

<표 6-10> 카페/식당 출입통계(월별)

출입횟수(1개월)	빈 도	퍼센트
0회	972	74.4
1-3회	229	17.5
4-6회	61	4.7
7회이상	44	3.4
합 계	1306	100.0

남녀별 출입통계는 <표 6-11>에 제시되어 있다. <표 6-11>에서 보듯이 카페/식당의 출입에 있어서는 남학생(평균 .30)보다 여학생(평균 .46)들의 출입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여학생들이 주로 카페를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표 6-11> 남녀학생별 카페/식당 출입통계(월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값	p
남학생	708	.30	.68	16.036	.000
여학생	577	.46	.78		
전 체	1,285	.37	.73		

학교급별에 따른 청소년의 카페/식당의 출입통계는 <표 6-12>에 나타나 있다. 학교급에 따른 출입빈도의 차이를 <표 6-12>에서 살펴보면, 실업계 고등학생의 출입 빈도(평균 .51)가 중학생(평균 .32)이나 인문계 고등학생(평균 .33)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었다.

<표 6-12> 중/고등학생별 카페/식당출입통계(월별)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값	p
중학생	591	.32	.64	7.437	.001
고등학생(일반)	380	.33	.76		
고등학생(실업계)	314	.51	.83		
전 체	1285	.37	.73		

5) 도서대여점/비디오 및 DVD대여점

청소년들의 도서대여점/비디오 및 DVD대여점에 대한 출입통계는 <표 6-13>에 제시되어 있다. 도서대여점/비디오 및 DVD대여점도 청소년들이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된 공간이다. 주로 동네 상가에 위치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접근성도 높은 편이다. <표 6-13>에 의하면, 전체 청소년의 54.9%가 1개월에 1회 이상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1개월에 7회 이상 이용한 청소년의 비율도 14.8%나 되었다.

<표 6-13> 도서대여점/비디오 및 DVD대여점 출입통계(월별)

출입횟수(1개월)	빈 도	퍼센트
0회	589	45.1
1-3회	395	30.2
4-6회	129	9.9
7회 이상	193	14.8
합계	1,306	100.0

남녀 청소년별 도서대여점/비디오 및 DVD대여점 출입통계는 <표 6-14>에 제시되어 있다. <표 6-14>에서 보듯이 도서대여점/비디오 및 DVD대여점 출입에 있어서 남녀간에는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도서대여점/비디오 및 DVD대여점이 남자 청소년이 좋아하는 것과 여자 청소년이 좋아하는 것 모두를 비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6-14> 남녀학생별 도서대여점/비디오 및 DVD대여점 출입통계(월별)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값	p
남학생	708	.93	1.10	.539	.463
여학생	577	.97	1.03		
전 체	1285	.95	1.07		

학교급별에 따른 청소년의 도서대여점/비디오 및 DVD대여점 출입통계는 <표 6-15>에 제시되어 있다. <표 6-15>에서 보듯이 학교급간 차이는 중학생들의 출입빈도(평균 1.13)가 고등학생(인문계 .82, 실업계 .76)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중학생들이 도서대여점에서 만화책 등을 많이 빌려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6-15> 중/고등학생별 도서대여점/비디오 및 DVD대여점 출입통계(월별)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F값	p
중학생	591	1.13	1.08	16.601	.000
고등학생(일반)	380	.82	1.04		
고등학생(실업계)	314	.76	1.02		
전 체	1285	.95	1.07		

6) 당구장

청소년의 당구장 출입통계는 <표 6-16>에 제시되어 있다. 당구장은 청소년들의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체육시설이다. 청소년보호법상의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이며, 당구장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규제대상이 아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이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출입비율은 11.1%(1개월에 1회 이상)로 다른 업소에 비해 이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이처럼 낮은 출입빈도는 아직도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당구장을 유해업소라고 생각하여 출입을 꺼리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며, 당구 자체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표 6-16> 당구장 출입통계(월별)

출입횟수(1개월)	빈 도	퍼센트
0회	1161	88.9
1-3회	101	7.7
4-6회	20	1.5
7회이상	24	1.8
합 계	1,306	100.0

<표 6-17>을 통해서 남녀 청소년의 당구장 출입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표 6-17>에서 당구장 출입에 있어 남녀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해보면 남학생(평균 .22)이 여학생(평균 .10)에 비해 출입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당구장 출입이 주로 남자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당구가 아직은 남성 중심의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표 6-17> 남녀학생별 당구장 출입통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값	p
남학생	708	.22	.62	16.156	.000
여학생	577	.10	.38		
Total	1285	.16	.53		

학교급별에 따른 청소년의 당구장 출입빈도는 <표 6-18>에 나타나 있다. <표 6-18>에서 보듯이 청소년들의 당구장 출입빈도는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중학생(평균 .10)보다 고등학생(인문계 .17, 실업계 .27)이, 그리고 고등학생 중에서도 실업계 고등학생의 당구장출입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표 6-18> 중/고등학생별 당구장 출입통계(월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값	p
중학생	591	.10	.41	11.333	.000
고등학생(일반)	380	.17	.55		
고등학생(실업계)	314	.27	.67		
전체	1285	.16	.53		

7) 노래방

노래방은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시설제한과 시간제한을 함께 받고 있는 규제업소에 해당한다. 즉, 청소년들은 연소자실이 있는 노래방에만 밤 10시 이전에 출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업소이다. 특히 노래방은 밀실이 있어 청소년들이 성인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 없이 자유로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이용시간(방과 후 4시-6시경)이 성인들의 출입시간과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성인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여러 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즐겨 찾게 된다.

청소년들의 노래방 출입실태는 <표 6-19>에 제시되어 있다. <표 6-19>에서 보듯이 61.3%나 되는 청소년들이 1개월에 1회 이상 노래방 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개월에 7회 이상 출입하는 비율도 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9> 노래방 출입통계(월별)

출입횟수(1개월)	빈 도	퍼센트
0회	506	38.7
1-3회	583	44.6
4-6회	99	7.6
7회 이상	118	9.0
합 계	1,306	100.0

남녀 청소년별 노래방 출입실태는 <표 6-20>에 나타나 있다. <표 6-20>을 통해서 노래방 출입빈도에 있어 남녀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평균 1.04)들의 노래방 출입이 남학생들(평균 .73)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000$). 남녀간에 노래방 출입에 있어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주로 PC방으로 중심으로 형성되는 남자 청소년들의 놀이문화와는 달리 여자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가 노래방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6-20> 남녀학생별 노래방 출입통계(월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값	p
남학생	708	.73	.89	38.374	.000
여학생	577	1.04	.88		
전 체	1,285	.87	.90		

<표 6-21>을 통해서 학교급별 청소년들의 노래방 출입실태를 알 수 있다. <표 6-21>을 통해서 학교급에 따른 노래방 출입빈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인문계 고등학생들(평균 .77)의 노래방 출입빈도가 제일 낮았고, 실업계 고등학생들(평균 .99)의 노래방 출입빈도가 가장 높았다. 이런 집단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의미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5$).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출입빈도가 낮은 것은 내신 준비, 대학 입시 준비 등과 같이 학업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학원이나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6-21> 중/고등학생별 노래방 출입통계(월별)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값	p
중학생	591	.88	.88	5.402	.005
고등학생(일반)	380	.77	.85		
고등학생(실업계)	314	.99	.99		
전 체	1,285	.87	.90		

8) 술집/유흥주점(나이트클럽)

청소년들의 술집/유흥주점 출입 실태는 <표 6-22>에 나타나 있다. 술집이나 유흥주점은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들의 출입 자체가 엄격하게 금지된 업소들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술집/유흥주점(나이트클럽) 출입은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하지만, <표 6-22>에서 보듯이 전체 응답자의 10.5%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1학기에 1회 이상 출입경험이 있어 실제 업주측의 청소년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표 6-22> 술집/유흥주점(나이트클럽) 출입통계(학기별)

출입횟수(1학기)	빈 도	퍼센트
0회	1169	89.5
1-4회	72	5.5
5-10회	17	1.3
11회 이상	48	3.7
전 체	1,306	100.0

<표 6-23>을 통해서 남녀별 술집/유흥주점 출입실태를 알 수 있다. <표 6-23>을 보면 학기별 남학생의 평균 출입횟수는 .18, 여학생의 평균 출입횟수는 .22로 여학생이 약간 많지만 통계적으로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다. 약간의 차이 이긴 하지만 여학생의 평균이 높은 것은 사회적인 통념을 깨는 것으로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여학생에게도 음주가 상당히 확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6-23> 남녀학생별 술집/유흥주점(나이트클럽) 출입통계(학기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값	p
남학생	708	.18	.61	1.345	.246
여학생	577	.22	.67		
전 체	1285	.19	.64		

학교급별 술집/유흥주점 출입실태는 <표 6-24>에 나타나 있다. <표 6-24>에서 보듯이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중학생(평균 .02)의 출입경험이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실업계 고등학생(평균 .51)들의 출입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 집단의 차이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음주를 하게 되는 비율이 연령이 높을수록 늘어나는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아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중학생들은 외모에 있어 성인들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술집/유흥주점(나이트클럽)에 출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지만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신체적 성장이 성인과 다름없으며 학교측의 두발규정 등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유해업소출입이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표 6-24> 중/고등학생별 술집/유흥주점(나이트클럽) 출입통계(학기별)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F값	p
중학생	591	.02	.12	68.182	.000
고등학생(일반)	380	.21	.68		
고등학생(실업계)	314	.51	.96		
전 체	1285	.19	.64		

9) 성인PC방/비디오/DVD방

성인PC방/비디오/DVD방에의 청소년 출입실태는 <표 6-25>에 제시되어 있다. 성인PC방/비디오/DVD방 또한 청소년 보호업상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출입제한 업소이다. <표 6-25>에서 보듯이 성인PC방/비디오/DVD방에 대한 청소년들의 출입빈도는 1학기에 1회 이상 이용한 비율이 4.4%에 불과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동일한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인 술집이나 유흥주점에 비해서도 낮은 것이다. 이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집에서 자신이 원하는 영화나 동영상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6-25> 성인PC방/비디오/DVD방 출입통계(학기별)

출입횟수(1학기)	빈 도	퍼센트
0회	1,249	95.6
1-4회	38	2.9
5-10회	13	1.0
11회 이상	6	.5
전 체	1,306	100.0

성인PC방/비디오/DVD방에 대한 남녀별 출입실태는 <표 6-26>에 나타나 있다. <표 6-26>에 나타난 것처럼 남학생(평균 .07)과 여학생(평균 .06)의 출입횟수는 매우 근소하게 남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 이는 성인PC방/비디오/DVD방 이용에 있어 이성친구와 함께 출입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6-26> 남녀학생별 성인PC방/비디오/DVD방 출입통계(학기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값	p
남학생	708	.07	.36	.096	.756
여학생	577	.06	.29		
전 체	1,285	.06	.33		

학교급별에 따른 출입실태는 <표 6-27>에 나타나 있다. <표 6-27>에서 보듯이 남녀별과는 달리 학교급에 따른 출입횟수의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중학생(평균 .02)이나 인문계 고등학생(평균 .07)보다 실업계 고등학생(평균 .14)의 출입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술집/유흥주점과 마찬가지로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성인과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기에서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에 실업계 청소년들의 출입 비율이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는 것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표 6-27> 중/고등학생별 성인PC방/비디오/DVD방 출입통계(학기별)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F값	p
중학생	591	.02	.21	12.394	.000
고등학생(일반)	380	.07	.35		
고등학생(실업계)	314	.14	.46		
전 체	1,285	.06	.33		

10) 찜질방

청소년의 찜질방에 대한 출입실태가 <표 6-28>에 나타나 있다. 찜질방 또한 청소년들의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어 있는 공간이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출입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최근 들어 밤 10시 이후 청소년들이 출입하고자 할 경우 보호자의 동반입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법개정이 있었지만 아직도 찜질방은 비교적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이다. 찜질방은 일반적으로 가족 단위로 목욕 및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입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표 6-28>에서 보듯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0.8%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1학기에 1회 이상 찜질방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8> 찜질방 출입통계(학기별)

출입횟수(1학기)	빈 도	퍼센트
0회	643	49.2
1-4회	500	38.3
5-10회	86	6.6
11회 이상	77	5.9
전 체	1,306	100.0

한편 남녀별 찜질방 이용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6-29>에 제시되어 있다. <표 6-29>를 통해서 남녀간의 찜질방 이용빈도의 차이를 확인해 보면, 남학생(평균 .61)보다는 여학생(평균 .80)이 찜질방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의 출입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이다.

<표 6-29> 남녀학생별 찜질방 출입통계(학기별)

구 분	N	평 균	표준편차	F값	p
남학생	708	.61	.78	16.117	.000
여학생	577	.80	.89		
전 체	1,285	.69	.83		

학교급별에 따른 찜질방 출입실태는 <표 6-30>에 나타나 있다. <표 6-30>을 보면 학교급에 따른 출입횟수는 실업계 고등학생(평균 .74), 중학생(평균 .72), 인문계 고등학생(평균 .60) 순으로 나타났다. 인문계 고등학생의 출입빈도가 가장 낮은 것은 입시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다.

<표 6-30> 중/고등학생별 찜질방 출입통계(학기별)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값	p
중학생	591	.72	.81	3.196	.041
고등학생(일반)	380	.60	.80		
고등학생(실업계)	314	.74	.91		
전 체	1,285	.69	.83		

11) 여관

청소년이 여관 출입횟수가 <표 6-31>에 나타나 있다. 청소년에게 여관 출입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사

회적 분위기와 제도에 따라 <표 6-31>를 보면 응답자의 96%에 달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여관에 대한 출입경험이 없다. 그러나 출입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4%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은 청소년들의 경우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을 위해, 혹은 동성 친구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먹기 위해 여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6-31> 여관 출입통계(학기별)

출입횟수(1학기)	빈도	퍼센트
0회	1,254	96.0
1-4회	38	2.9
5-10회	5	.4
11회이상	9	.7
전 체	1,306	100.0

<표 6-32>를 통해서 남녀별 여관출입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표 6-32>에서 보듯이 여관출입에 있어 남학생(평균 .07)과 여학생(평균 .05) 간에는 매우 근소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들의 경험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표 6-32> 남녀학생별 여관 출입통계(학기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값	p
남학생	708	.07	.37	1.769	.184
여학생	577	.05	.25		
전 체	1285	.06	.32		

학교급별 여관출입실태는 <표 6-33>에 나타나 있다. <표 6-33>을 보면 여관 출입횟수의 순서가 실업계 고등학생(평균 .11), 인문계 고등학생(평균 .06), 중학생(평균 .0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여관 출입 경험은 중학생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들은 외모 상으로도 청소년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성인 전용이용시설에 입장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 결과 중학생의 출입경험은 매우 낮게 나타나는 반면 외모에 있어 성인과 구분하기 어려운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출입경험은 중학생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6-33> 중/고등학생별 여관 출입통계(학기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값	p
중학생	591	.03	.22	.736	7.090
고등학생(일반)	380	.06	.38		
고등학생(실업계)	314	.11	.40		
전 체	1,285	.06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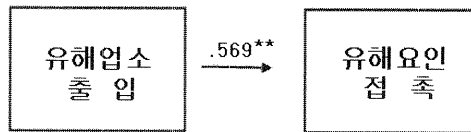
2. 청소년의 유해요인 접촉실태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순간 유해요인과 즉각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몇몇 업소들은 출입 자체가 유해요인 접촉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업소들은 출입 자체보다는 출입 이후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접촉하게 된다. 즉, 유해업소출입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유해요인에 접촉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는 하지만 이 과정이 출입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유해업소 출입 자체가 유해요인 접촉을 의미하고 문제행

동을 발생하게 한다고 가정하였던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유해업소 출입과정과 유해요인 접촉과정을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그리고 유해업소 출입이 유해요인 접촉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해업소 출입경험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유해요인 접촉경험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순회귀분석 결과 <표 6-34>, <그림 6-2>와 같이 유해업소 출입이 유해요인 접촉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2> 유해요인접촉에 유해업소출입이 주는 영향

<표 6-34> 유해업소출입과 유해업소접촉의 관계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회귀계수	t-값	p
유해업소출입	2.391	.096	.569	24.975	.000
상수	-7.038				
R2(Adjusted R2)	.324(.324)				
F값(p)	623.763(.000)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해업소 출입은 유해요인 접촉을 가져오는 주요한 변인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유해업소 출입만으로 유해요인 접촉이 일어나는 상황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유해업소 출입 이후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해요인 접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해업소 출입이 유해요인 접촉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유해업소별로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실태 및 출입경험과 유해요인 접촉경험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1) (술, 담배를 판매하는) 슈퍼/마트/편의점

슈퍼/마트/편의점이 보유하고 있는 유해요인은 술, 담배 등과 같은 유해물질이다. 이들 업소에서는 유해물질에 대한 판매가 주로 이루어지며 청소년들은 이들 업소에서 유해물질을 구입하여 (골목길, 학교 등의 다른 장소에서 혹은) PC방 오락실 노래방 등의 다른 유해업소에서 음주와 흡연을 한다.

슈퍼/마트/편의점에서 유해요인 접촉실태가 <표 6-35>에 나타나 있다. <표 6-35>를 보면 청소년들은 비교적 손쉽게 이들 업소에서 유해물질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 대상 청소년 중 28.2%가 지난 1학기 동안 슈퍼/마트/편의점에서 술/담배 등과 같은 유해물질 구입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물론 청소년들이 슈퍼/마트/편의점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유해물질을 구입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슈퍼/마트/편의점에서는 술/담배 등과 같은 유해물질이외에도 갖가지 식료품과 생활용품들을 판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슈퍼/마트/편의점 출입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71.8%의 청소년들은 유해물질에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5>슈퍼/마트/편의점에서유해요인접촉경험(학기별)

유해요인 접촉경험		빈도	퍼센트
구분	없음	430	71.8
	있음	169	28.2
	합계	599	100.0

슈퍼/마트/편의점에의 출입빈도와 유해요인 접촉빈도 간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양자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6-36>에 나타나 있다. 이 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이 슈퍼/마트/편의점에 대한 출입경험이 많을수록 이들 업소에서 술이나 담배와 같은 유해물질을 구입(접촉)하게 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36> 슈퍼/마트/편의점 출입경험과 유해물질 접촉 경험 간의 상관관계

		출입빈도	유해요인 접촉빈도
출입빈도	Pearson Correlation	1	.247***
	p (2-tailed)	.	.000
	N	1,305	1,305
*** $p<.001$			

2) 오락실

오락실에서 청소년들은 성인들의 간섭 없이 여러 유해요인에 접촉할 수 있다. 이들 업소에서는 직접적으로 유해물질을 판매하지는 않지만 흡연 등과 같은 유해물질에 접촉이 용인되며 문제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상으로는 불법이지만 오락실의 경우 상당수가 밤 10시 이후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오락실은 ‘밀실’을 제외한 나머지 유해물질, 유해매체, 문제친구, 심야영업 4가지의 유해요인을 모두 갖추고 있는 유해업소이다.

오락실 출입경험이 있는 청소년 225명에 대한 분석결과가 <표 6-37>에

나타나 있다. <표 6-37>를 통해서 오락실에 출입하고 있는 청소년들 중 대부분은 유해물질, 유해매체, 문제친구, 심야영업과 같은 유해요인을 접촉하고 있지 않지만, 출입청소년 중 10% 안팎이 오락실에서 유해물질, 유해매체, 문제친구, 심야영업 등과 같은 유해요인을 실제로 접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해요인 접촉은 심야영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유해물질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상당수의 오락실들이 밤 10시 이후에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심야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6-37> 오락실에서 유해요인별 접촉횟수(학기별, 단위 %)

접촉횟수(1학기)		유해물질	유해매체	문제친구	심야영업
구 분	0회	88.9	91.6	91.6	79.1
	1-3회	2.7	3.6	3.6	11.1
	4-6회	2.7	1.8	1.3	3.1
	7-9회	.0	.0	.0	.0
	10-12회	.4	1.3	.9	2.7
	13회 이상	5.3	1.8	2.7	4.0
	합계	100.0	100.0	100.0	100.0

오락실에 출입한 청소년들에게 유해요인 접촉경험 여부를 물어 보았다. 그 결과가 <표 6-38>에 제시되어 있다. <표 6-38>을 보면 실제 오락실 출입경험이 있는 청소년 225명 중 4가지 유해요인에 하나라도 접촉한 경험 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전체의 25.3%에 그쳤다. 전체 오락실 이용학생의 3/4정도는 비교적 건전한 놀이공간으로 오락실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청소년들이 오락실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유해요인에 접촉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표 6-38> 오락실에서 유해요인접촉경험(학기별, 단위 %)

유해요인 접촉경험		빈도	퍼센트
구 분	없음	168	74.7
	있음	57	25.3
	합계	225	100.0

오락실 출입경험과 유해요인 접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6-39>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를 보면 청소년들의 오락실 출입과 유해요인에 접촉하게 되는 것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는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39> 오락실 출입경험과 유해물질 접촉 경험 간의 상관관계

		출입빈도	유해요인 접촉빈도
출입빈도	Pearson Correlation	1	.303***
	p (2-tailed)	.	.000
	N	1,306	1,306
*** $p<.001$			

3) PC방

PC방도 오락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성인들의 간섭 없이 여러 유해요인에 비교적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이다. PC방에서는 법적인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흡연이 가능한 장소이며, 24시간 영업을 하기 때문에 밤 10시 이후에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PC방

에서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성인사이트 등의 유해매체에 대한 접촉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PC방은 청소년들의 출입이 빈번하여 일종의 모임 장소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문제친구들과의 접촉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유해업소이다.

1주일에 1회 이상 PC방에 출입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698명에 대한 분석결과가 <표 6-40>에 제시되어 있다. PC방에서 청소년들이 접촉하는 유해요인으로는 유해물질, 유해매체, 문제친구, 심야영업으로 확인되었고, 이와 같은 유해요인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촉이 실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접촉비율은 유해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PC방출입경험이 있는 총 698명의 청소년 중 유해매체나 문제친구 등에 대한 접촉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7%내외로 낮게 나타났지만 주로 흡연으로 추정되는 유해물질 접촉 경험을 가진 청소년의 비율은 13.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밤 10시 이후의 심야영업경험 비율은 24.8%에 달해 PC방에 대한 청소년 이용시간 제한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0> PC방에서 유해요인별 접촉횟수(학기별, 단위 %)

접촉횟수(1학기)		유해물질	유해매체	문제친구	심야영업
구분	0회	86.9	93.7	94.7	75.2
	1-3회	3.3	4.0	2.4	14.8
	4-6회	2.2	.6	1.0	3.0
	7-9회	.7	.1	.7	.7
	10-12회	1.4	.6	1.1	2.2
	13회 이상	5.5	1.0	100.0	4.2
	합계	100.0	100.0	100.0	100.0

물론 청소년들이 PC방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유해요인에 접촉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 PC방 출입경험이 있는 청소년 698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 접촉경험을 물어 본 결과를 나타낸 <표 6-41>에 따르면 유해요인에 접촉하지 않고 건전하게 이용한 경우가 66.0%에 달하고 있다.

<표 6-41> PC방에서 유해요인 접촉경험

유해요인 접촉경험		빈도	퍼센트
구분	없음	460	66.0
	있음	237	34.0
	합계	697	100.0

청소년들의 PC방 출입경험과 유해요인 접촉경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표 6-42>에 제시되어 있다. PC방 출입경험과 유해요인 접촉경험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어, 청소년들이 이들 업소에 출입을 많이 할수록 이들 업소에서 유해요인에 접촉하게 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42> PC방 출입경험과 유해요인 접촉경험 간의 상관관계

		출입빈도	유해요인 접촉빈도
출입빈도	Pearson Correlation	1	.293***
	p (2-tailed)	.	.000
	N	1306	1305
*** $p < .001$			

4) (술, 담배를 판매하는) 카페/식당

카페/식당도 청소년들이 성인들의 간섭 없이 여러 유해요인에 비교적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이다. 법적으로 카페나 식당에는 청소년들의 출입이 별다른 제한 없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페/식당은 술을 판매하고 있으며 업소 내에서의 음주와 흡연이 용인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카페/식당 등을 혼자서 찾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친구나 선후배 등과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친구 등에 대한 접촉의 가능성이 높다. 또한 몇몇 카페들은 룸이나 칸막이 등을 통해 주위의 시선으로부터 분리된 밀실형태의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카페/식당 들은 밤 10시 이후까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심야영업이라는 유해요인도 보유하고 있다.

카페/식당에서의 유해요인 접촉에 대한 빈도분석결과 이들 업소에서 유해물질, 유해매체, 문제친구, 밀실, 심야영업 등과 같은 유해요인에 대한 접촉이 실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접촉비율은 유해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술을 판매하는 카페나 식당에 1개월에 1회 이상 출입경험이 있는 학생 333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별 접촉횟수를 조사한 결과가 <표 6-43>에 제시되어 있다. <표 6-43>을 보면 청소년들의 유해매체와 문제친구에 대한 접촉 비율은 9%대로, 밀실 이용경험은 12.6%로 나타났다. 반면 음주나 흡연으로 추정되는 유해물질 접촉 경험을 가진 청소년의 비율은 26.3%, 심야영업경험 비율은 27.5%에 달했다. 즉, 카페/식당에서는 유해물질이나 심야영업등과 같은 유해요인에 대한 접촉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6-43> 카페/식당에서 유해요인별 접촉횟수(학기별, 단위 %)

접촉횟수(1학기)		유해물질	유해매체	문제친구	밀실이용	심야영업
구분	0회	73.7	91.9	91.3	87.4	72.5
	1-3회	8.7	3.6	3.0	5.7	10.2
	4-6회	3.9	.6	2.1	1.8	6.3
	7-9회	1.8	.6	.6	.6	.3
	10-12회	5.1	1.8	1.8	1.5	5.4
	13회 이상	6.9	1.5	1.2	3.0	5.4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물론 청소년들이 카페/식당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유해요인에 접촉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카페/식당에서 유해요인 접촉경험을 분석한 <표 6-44>에 따르면 실제 카페/식당 출입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유해요인에 접촉하지 않고 건전하게 이용한 경우가 62.3%에 달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카페/식당에 식사나 음료를 즐기기 위해 출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6-44> 카페/식당에서 유해요인 접촉경험

유해요인 접촉경험		빈도	퍼센트
구분	없음	208	62.5
	있음	125	37.5
	합계	333	100.0

한편 카페/식당 출입경험과 유해요인 접촉경험 간의 상관관계는 <표 6-45>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를 보면 양자의 상관계수는 .371로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들은 이들 업소에 출입을 많이 할수록 이들 업소에서 유해요인에 접촉하게 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45> 카페/식당 출입경험과 유해물질 접촉 경험 간의 상관관계

		출입빈도	유해요인 접촉빈도
출입빈도	Pearson Correlation	1	.371***
	p (2-tailed)	.	.000
	N	1,306	1,305
*** $p < .001$			

5) 도서대여점/비디오 및 DVD대여점

도서대여점/비디오 및 DVD대여점이 가지고 있는 유해요인은 음란물이나 폭력물과 같은 유해매체이다. 물론 도서대여점/비디오 및 DVD대여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해매체는 성인물로 등록된 것으로서 불법적인 음란/폭력물에 비해 그 강도가 약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인물은 청소년들에 대한 대여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도서대여점/비디오 및 DVD대여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의 유해매체 접촉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이들 업소에서 실제로 청소년들의 유해매체 접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업소에 대한 출입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매체 접촉경험을 물어 본 결과를 <표 6-46>은 나타내고 있다. 이 표를 보면 도서대여점/비디오 및 DVD대여점

을 출입한 청소년 중에서 유해매체 접촉 경험을 가진 청소년의 비율은 조사 대상 청소년의 11.7%로 나타난다.

이는 청소년들이 도서대여점/비디오 및 DVD대여점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유해요인에 접촉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 도서대여점/비디오 및 DVD대여점 출입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유해요인에 접촉하지 않고 건전하게 이용한 경우가 <표 6-46>에서 88.3%에 달하고 있다. 즉, 도서대여점/비디오 및 DVD대여점에서의 유해요인 접촉비율은 여타 유해업소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는 도서대여점/비디오 및 DVD대여점에서 대여하는 유해매체에 비해 청소년들이 인터넷 등으로 접할 수 있는 유해매체의 강도가 훨씬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6-46> 도서대여점/비디오 및 DVD대여점에서 유해요인 접촉경험

유해요인 접촉경험		빈도	퍼센트
구분	없음	633	88.3
	있음	84	11.7
	합계	717	100.0

도서대여점/비디오 및 DVD대여점에서의 출입경험과 유해요인 접촉경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결과는 <표 6-47>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를 통해서 양자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알 수 있고 청소년들이 이들 업소에 출입을 많이 할수록 이들 업소에서 유해요인에 접촉하게 되는 비율이 높아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p<.001$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47> 도서대여점/비디오 및 DVD대여점 출입경험과
유해요인 접촉경험 간의 상관관계

		출입빈도	유해요인 접촉빈도
출입빈도	Pearson Correlation	1	.143***
	p (2-tailed)	.	.000
	N	1,306	1,306
*** p<.001			

6) 당구장

당구장은 청소년들이 어떠한 제한도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이다.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당구장은 법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영업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유해물질, 유해매체, 문제친구, 심야영업들의 유해요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빈도분석결과 당구장에서는 청소년들의 출입이 자유로이 허용되는 다른 업소들보다 유해요인에 대한 접촉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구장에서 유해요인별 접촉횟수를 나타낸 <표 6-48>을 보면 유해매체에 대한 접촉 비율은 전체 당구장 출입경험 청소년 145명의 9% 정도에 불과하고 문제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는 비율은 16.6%로 나타난다. 나아가 주로 흡연으로 추정되는 유해물질 접촉이나 심야시간이용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25%를 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따라서 당구장이 유해물질이나 심야영업등과 같은 유해요인에 대한 접촉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48> 당구장에서 유해요인별 접촉횟수(학기별, 단위 %)

접촉횟수(1학기)		유해물질	유해매체	문제친구	심야영업
구분	0회	73.1	91.0	83.4	73.8
	1-3회	11.0	4.1	6.2	11.7
	4-6회	4.1	.7	2.8	5.5
	7-9회	.7	.7	.7	.7
	10-12회	1.4	1.4	2.8	2.8
	13회 이상	9.7	2.1	4.1	5.5
	합계	100.0	100.0	100.0	100.0

청소년들의 당구장 출입경험과 유해요인 접촉경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표 6-49>에 나타냈다. 이 표를 보면 당구장 출입경험과 유해요인 접촉빈도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이 당구장에 자주 출입할수록 이들 업소에서 유해요인에 접촉하게 되는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49> 당구장 출입경험과 유해요인 접촉경험 간의 상관관계

		출입빈도	유해요인 접촉빈도
출입빈도	Pearson Correlation	1	.392***
	p (2-tailed)	.	.000
	N	1,306	1,306
*** $p < .001$			

당구장에 출입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유해요인 접촉경험을 분석한 결과가 <표 6-50>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를 보면 당구장을 출입하는 모든 청

소년이 유해요인에 접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구장에서 유해요인에 접촉한 청소년의 비율은 43.4%나 되어 오락실, PC방 등의 다른 업소들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당구장 자체가 스포츠 시설로 분류되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업에 있어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당구장 업주 또한 청소년 출입에 대해 별다른 주의를 하지 않게 되고 이러한 관리 소홀이 청소년의 유해요인 접촉에 대한 방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6-50> 당구장에서 유해요인접촉경험

유해요인 접촉경험		빈도	퍼센트
구분	없음	82	56.6
	있음	63	43.4
	합계	145	100.0

7) 노래방

청소년들이 노래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오후 10시 이전에 일정한 시설 기준(청소년실)을 갖춘 곳만을 이용해야 한다. 노래방에서는 청소년 및 성인들에 대한 주류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몇몇 노래방에서는 불법적으로 술을 판매하기도 하며 청소년들이 다른 업소에서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여 노래방에서 음주나 흡연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노래방 내부에 설치된 TV 화면을 통해 음란물이나 폭력물에 청소년들이 노출되기도 한다. 나아가 청소년들이 밀실에서 늦은 밤까지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노래방에서는 청소년들이 5가지의 유해요인 모두에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노래방출입경험이 있는 청소년 799명을 대상으로 노래방에서 유해요인 접촉횟수를 물어본 결과가 <표 6-51>에 제시되어 있다. <표 6-51>에서 보는 것처럼 분석결과 노래방에서는 유해물질, 유해매체, 문제친구, 밀실, 심야영업 등과 같은 유해요인에 대한 접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요인 중 유해매체나 문제친구에 대한 접촉 경험 비율은 5-6%대로 다른 유해요인 접촉 비율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음주나 흡연으로 추정되는 유해물질 접촉 경험을 가진 청소년의 비율은 21.1%, 심야영업 경험 비율은 24.9%에 달했다. 또한 이성친구와 밀실에서 함께 지낸 경우도 12.2%나 되었다.

<표 6-51> 노래방에서 유해요인 접촉횟수(학기별, 단위 %)

접촉횟수(1학기)		유해물질	유해매체	문제친구	밀실이용	심야영업
구분	0회	78.9	94.9	93.6	87.8	75.1
	1-3회	9.9	3.3	2.4	7.4	16.1
	4-6회	2.5	.5	1.8	1.8	4.3
	7-9회	.5	.1	.4	.3	.5
	10-12회	2.4	.6	.5	1.4	2.3
	13회 이상	5.9	.6	1.4	1.5	1.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물론 청소년들이 노래방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유해요인에 접촉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노래방에서 유해요인을 접촉한 경험을 나타낸 <표 6-52>를 보면, 노래방 출입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유해요인에 접촉하지 않고 건전하게 이용한 경우가 58.1%로서 다른 유해업소들에 비해 그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표 6-52> 노래방에서 유해요인 접촉경험(학기별)

유해요인 접촉경험		빈도	퍼센트
구분	없음	464	58.1
	있음	335	17.5
	합계	799	100.0

노래방 출입경험과 유해요인 접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표 6-53>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를 보면 청소년들이 이들 업소에 출입을 많이 할수록 이들 업소에서 유해요인에 접촉하게 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즉 노래방 출입경험과 유해요인 접촉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이러한 관계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53> 노래방 출입경험과 유해요인 접촉 경험 간의 상관관계

		출입빈도	유해요인 접촉빈도
출입빈도	Pearson Correlation	1	.380***
	p(2-tailed)	.	.000
	N	1306	1305
*** $p<.001$			

8) 술집/유흥주점(나이트클럽)

술집/유흥주점(나이트클럽)은 청소년 보호법 등에 의해 청소년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공간이다. 이들 업소들은 기본적으로 술이라는 유해물질의 판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성인들만을 위한 유흥시설이다. 이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만약 청소년들이 출입을 하게 된다면 앞서 제시된 5가지의 유해요인과의 접촉이 매우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업소들이다.

술집/유흥주점(나이트클럽)에서의 유해요인 접촉경험을 분석한 결과가 <표 6-54>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를 통해서 술집/유흥주점(나이트클럽)에서는 유해물질, 유해매체, 문제친구, 밀실, 심야영업 등과 같은 유해요인에 대한 접촉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술/담배 등과 같은 유해물질에 대한 접촉비율이 72.3%로 나타났다. 이렇게 높은 접촉 비율은 술집에 가는 목적 자체가 음주를 위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10시 이후의 심야영업에 대한 접촉비율은 62.8%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술집/유흥주점 이용시간이 주로 심야시간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술집/유흥주점에 출입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유해매체에 접촉한 비율이 32.4%, 이성친구와의 밀실 이용경험도 27%, 문제친구와 어울린 경험도 21.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술집/유흥주점이 청소년들에게 매우 해로운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54> 술집/유흥주점(나이트클럽)에서 유해요인별 접촉횟수
(학기별, 단위 %)

접촉횟수(1학기)		유해물질	유해매체	문제친구	밀실이용	심야영업
구분	0회	27.7	68.6	78.8	73.0	37.2
	1-3회	27.7	16.1	6.6	8.8	22.6
	4-6회	7.3	2.9	2.2	3.6	8.0
	7-9회	.0	.7	2.2	2.2	2.2
	10-12회	14.6	5.1	5.1	3.6	8.0
	13회 이상	22.6	6.6	5.1	8.8	21.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물론 청소년들이 술집/유흥주점(나이트클럽)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유해요인에 접촉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술집/유흥주점(나이트클럽)

럽)의 특성상 일단 들어가는 경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유해요인에 접하게 된다. 이는 술집/유흥주점(나이트클럽)에 출입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요인 접촉경험을 물어본 결과를 나타낸 <표 6-55>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실제 카페/식당 출입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유해요인에 접촉하지 않은 경우는 21.2%에 불과하다.

<표 6-55> 술집/유흥주점(나이트클럽)에서 유해요인접촉경험

유해요인 접촉경험		빈도	퍼센트
구분	없음	29	21.2
	있음	108	78.8
	합계	137	100.0

술집/유흥주점(나이트클럽) 출입경험과 유해요인 접촉경험 간의 상관관계가 <표 6-56>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이들 업소에 출입을 많이 할수록 이들 업소에서 유해요인에 접촉하게 되는 비율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양자의 관계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상관계수는 .544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는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56> 술집/유흥주점(나이트클럽) 출입경험과
유해요인 접촉경험 간의 상관관계

		출입빈도	유해요인 접촉빈도
출입빈도	Pearson Correlation	1	.544***
	p(2-tailed)	.	.000
	N	1,306	1,306
*** $p < .001$			

9) 성인PC방/비디오/DVD방

성인PC방/비디오/DVD방 은 청소년보호법 등에 의해 청소년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업소들이다. 이들 업소들은 기본적으로 비디오나 DVD 등과 같은 유해매체를 관람하려는 성인들만을 위한 유흥시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앞서 제시된 5가지의 청소년 유해요인들과의 접촉이 매우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업소들이다.

성인PC방/비디오/DVD방 출입을 통해서 유해요인을 접촉한 경험을 분석하였다. 이 결과는 <표 6-57>에 제시되어 있다. <표 6-57>에서 보듯이 성인PC방/비디오/DVD방에서는 유해물질, 유해매체, 문제친구, 밀실, 심야영업 등과 같은 유해요인에 대한 접촉이 발생하고 있었고 대략 50%내외의 접촉비율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매우 높은 접촉비율로서 성인PC방/비디오/DVD방에 출입하는 경우 청소년들이 유해요인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57> 성인PC방/비디오/DVD방에서 유해요인별 접촉횟수(학기별, 단위 %)

접촉횟수(1학기)		유해물질	유해매체	문제친구	밀실이용	심야영업
구분	0회	59.6	54.4	49.1	50.9	49.1
	1-3회	5.3	19.3	22.8	15.8	22.8
	4-6회	7.0	8.8	3.5	10.5	3.5
	7-9회	.0	1.8	.0	5.3	.0
	10-12회	8.8	7.0	8.8	8.8	8.8
	13회 이상	19.3	8.8	15.8	8.8	15.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성인PC방/비디오/DVD방에 출입한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경험을 분석한 결과가 <표 6-58>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를 보면 청소년들이 성인PC방/비디오/DVD방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유해요인에 접촉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출입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 68.4% 정도가 유해요인과 접촉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건전하게 이용한 경우는 31.6%에 불과하다.

<표 6-58> 성인PC방/비디오/DVD방에서 유해요인접촉경험

유해요인 접촉경험		빈도	퍼센트
구분	없음	18	31.6
	있음	39	68.4
	합계	57	100.0

성인PC방/비디오/DVD방 출입경험과 유해요인 접촉경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표 6-59>에 제시하였다. 이 표를 통해 양자의 상관관계는 정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고 청소년들이 이들 업소에 출입을 많이 할수록 이들 업소에서 유해요인에 접촉하게 되는 비율도 많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59> 성인PC방/비디오/DVD방 출입경험과
유해요인 접촉경험 간의 상관관계

		출입빈도	유해요인 접촉빈도
출입빈도	Pearson Correlation	1	.304***
	p(2-tailed)	.	.000
	N	1,306	1,306
*** $p<.001$			

10) 찜질방

찜질방도 청소년들이 성인들의 간섭 없이 여러 유해요인에 비교적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이다. 찜질방에서는 청소년들의 출입이 별다른 제한 없이 허용되며 출입이후 청소년들은 별다른 간섭 없이 밤늦게까지 찜질방의 여러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찜질방 내에서는 술과 담배 등의 유해물질 판매가 금지 되어 있지만 이는 판매 금지일 뿐 찜질방 내의 흡연실에서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가져온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다. 또 업소 측에서도 술 등의 유해물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카페/식당 등을 혼자서 찾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친구나 선후배 등과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 친구 등에 대한 접촉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4시간 영업을 하는 찜질방의 특성상 청소년들이 심야시간에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잠자리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찜질방 출입경험이 있는 청소년 662명에 대한 분석결과가 <표 6-60>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를 통해서 찜질방에서는 유해물질, 유해매체, 문제친구, 밀실, 심야영업 등과 같은 유해요인에 대한 접촉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있었다.

출입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 유해매체나 문제친구에 대한 접촉 경험 비율은 4%내외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반면 음주나 흡연으로 추정되는 유해물질 접촉 경험을 가진 청소년의 비율은 12.8%였고 심야영업경험 비율은 무려 45.49%에 달했다. 즉, 찜질방에서는 유해물질이나 심야영업등과 같은 유해요인에 대한 접촉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6-60> 찜질방에서 유해요인별 접촉횟수(학기별, 단위 %)

접촉횟수(1학기)		유해물질	유해매체	문제친구	심야영업
구분	0회	87.2	96.8	95.6	54.6
	1-3회	6.3	.9	1.7	29.3
	4-6회	2.0	1.1	.8	8.4
	7-9회	.8	.2	.3	1.2
	10-12회	1.4	.5	.6	3.9
	13회 이상	2.4	.6	1.1	2.6
	합계	100.0	100.0	100.0	100.0

찜질방에서 유해요인 접촉경험 여부를 분석한 결과가 <표 6-61>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를 통해서 찜질방에서 유해요인을 접촉하지 않고 건전하게 이용한 경우가 49.4%, 유해요인에 접촉한 경우가 51.6%임을 알 수 있었다. 찜질방을 이용한 상당수의 청소년이 유해요인에 접촉하고 있었다. 이는 찜질방이 기존의 유해업소와는 달리 법적 제도적으로 관리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표 6-61> 찜질방에서 유해요인 접촉경험

유해요인 접촉경험		빈도	퍼센트
구분	없음	327	49.4
	있음	335	50.6
	합계	662	100.0

찜질방 출입경험과 유해요인 접촉경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표 6-62>에 나타나 있다. 이 표를 보면 양자의 관계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상관계수는 .378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이들 업소에 출입을 많이 할수록 이들 업소에서 유해요인에 접촉하게 되는 비율이 많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62> 찜질방 출입경험과 유해물질 접촉경험 간의 상관관계

		출입빈도	유해요인 접촉빈도
출입빈도	Pearson Correlation	1	.378***
	p (2-tailed)	.	.000
	N	1,306	1,305
*** $p < .001$			

11) 여관

여관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다. 엄격하게 출입이 제한되며 이용요금도 청소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편이다. 그러나 만약 출입을 하게 된다면 방안에서는 외부의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은 채 밤새 청소년들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관 출입경험이 있는 청소년 51명에 대한 분석결과가 <표 6-63>에 나타나 있다. 이 표를 보면 여관에서는 유해물질, 유해매체, 문제친구, 밀실, 심야영업 등과 같은 모든 유해요인에 대한 접촉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출입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 유해매체나 문제친구에 대한 접촉 경험 비율은 30%내외였고 유해물질, 밀실이용, 심야영업 등의 유해요인 접촉 비율은 50%내외로 나타나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다.

<표 6-63> 여관에서 유해요인별 접촉횟수(학기별, 단위 %)

접촉횟수(1학기)		유해물질	유해매체	문제친구	밀실이용	심야영업
구분	0회	46.2	73.1	68.6	51.9	46.2
	1-3회	30.8	11.5	17.6	21.2	32.7
	4-6회	7.7	5.8	2.0	9.6	7.7
	7-9회	1.9	3.8	5.9	1.9	1.9
	10-12회	5.8	5.8	5.9	9.6	3.8
	13회 이상	7.7	.2	100.0	5.8	7.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이에 따라 청소년이 여관에 출입할 경우 대부분 유해요인에 접촉하게 된다. 유해요인에 접촉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여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밤새워 술을 마시거나 이성친구와 밤을 지내기 위해 여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6-64>에서 보듯이 실제 여관 출입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75%가 여관에서 유해요인을 접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64> 여관에서 유해요인 접촉경험

유해요인 접촉경험		빈도	퍼센트
구분	없음	13	25.5
	있음	38	74.5
	합계	51	100.0

여관 출입경험과 유해요인 접촉경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표

6-65>에 나타나 있다. 이 표에서 청소년들이 이들 업소에 출입을 많이 할 수록 이들 업소에서 유해요인에 접촉하게 되는 비율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여관 출입경험과 유해요인 접촉경험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상관계수는 .402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계는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65> 여관 출입경험과 유해요인 접촉경험 간의 상관관계

		출입빈도	유해요인 접촉빈도
출입빈도	Pearson Correlation	1	.402***
	p (2-tailed)	.	.000
	N	1,304	1,304
*** $p < .001$			

VII. 연구결과 3: 유해요인 접촉과 확산경로

1. 유해요인 접촉경로
2. 유해요인의 확산경로

VII. 연구결과 3: 유해요인 접촉과 확산경로

1. 유해요인 접촉경로

VI장의 분석을 통해 유해요인을 보유한 잠재적 유해업소들에서 실제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유해요인 접촉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발생하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유해요인 접촉경로를 유해업소라는 미시적인 차원의 공간에서 업주/종업원과 청소년 간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유해요인을 보유한 잠재적 유해업소에서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유해요인 접촉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유해업소라는 미시적 공간에서 업주/종업원과 청소년들이라는 행위자의 상호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유해업소에 대한 출입을 삼가거나 유해요인에 대한 접촉을 꺼려한다. 그러나 몇몇 청소년들은 유해요인 접촉을 위해 거짓말, 신분증 변조, 화장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또한 대부분의 유해업소 업주들은 엄격한 신분증 검사, 출입 이후에 유해요인 접촉 여부에 대한 관리 등을 통해 업소 내에서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몇몇 업주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청소년들의 출입 및 유해요인 접촉을 묵인하거나 방조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인식하고 있는 유해요인 접촉경로를 파악하는 것은 유해업소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 경로로서 ‘업주의 관리소홀’과 ‘청소년의 적극적

인 노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질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T-검증을 통해 청소년들이 앞서의 두 가지 접촉 경로 중 어떤 것을 더욱 심각한 접촉경로로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분산분석을 통해서도 유해요인 접촉 정도에 따라 접촉경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1) 유해요인 접촉경로에 대한 인식의 차이

(1) 전체 유해요인 접촉경로에 대한 인식

문제친구를 제외한 4가지 유해요인 전체에 대한 접촉경로를 묻는 질문에 대한 분석(paired t-test: Paired Samples Test)결과가 <표 7-1>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를 보면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이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업주 측의 관리소홀’ 때문에 더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상대적인 것으로서 청소년들의 책임이라고 응답한 수치의 합계점수도 13.3으로 낮은 수치는 아니었다. 즉 청소년의 유해요인 접촉에 있어 두 가지 경로 중 ‘업소 측의 관리소홀’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지 청소년들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표 7-1> 전체 유해요인에 대한 접촉경로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값	자유도	p
업소 측의 관리소홀	1281	13.82	3.70	4.323	1280	.000
청소년의 적극적인 노력	1281	13.31	3.66			

(2) 개별 유해요인 접촉경로에 대한 인식

청소년들이 각각의 유해요인에 대한 접촉경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각 유해요인에 대해 T-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① 유해물질 접촉경로

청소년들의 유해물질 접촉경로에 대한 분석결과가 <표 7-2>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의 검증을 위해서 T-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표 7-2>를 보면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노력’이라는 접촉경로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균은 1.12로 ‘업소 측의 관리소홀’에 대한 응답자 평균 1.05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유해물질 접촉과정에서 ‘청소년의 적극적인 노력’ 보다는 ‘업주 측의 관리소홀’을 더 큰 영향을 주는 경로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2> 유해물질 접촉경로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값	자유도	p
업소측의 관리소홀	1295	3.54	1.12	4.066	1294	.000
청소년의 적극적인 노력	1295	3.38	1.06			

② 유해매체 접촉경로

청소년들의 유해매체 접촉경로에 대한 분석결과가 <표 7-3>에 나타나 있다. 분석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T-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노력’이라는 접촉경로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균은 1.10으로 ‘업소 측의 관리소홀’에 대한 응답자 평균 1.0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 유해매체 접촉경로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값	자유도	p
업소 측의 관리소홀	1297	3.51	1.10	5.862	1296	.000
청소년의 적극적인 노력	1297	3.29	1.04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유해매체 접촉과정에서 ‘청소년의 적극적인 노력’ 보다는 ‘업주 측의 관리소홀’을 더 큰 영향을 주는 경로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③ 밀실이용 접촉경로

청소년들이 노래방, 비디오방, 여관 등에서 이성친구와 함께 밀실을 이용하는 경로에 대한 분석결과가 <표 7-4>에 제시되어 있다. 그 결과 업주 측의 관리소홀보다 청소년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한 평균이 매우 근소하게 높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7-4> 밀실이용 접촉경로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값	자유도	p
업소 측의 관리소홀	1296	3.33	1.16	.270	1295	.787
청소년의 적극적인 노력	1296	3.32	1.11			

④ 심야시간의 업소이용 접촉경로

청소년들이 심야시간에 유해업소를 이용하는 경로에 대한 분석결과가 <표 7-5>에 나타나 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노력’이라는 접촉경로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균은 3.44로 ‘업소 측의 관리소홀’에 대한 응답자 평균 3.3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심야영업 이용에서 ‘청소년의 적극적인 노력’ 보다는 ‘업주 측의 관리소홀’을 더 큰 영향을 주는 경로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7-5> 심야시간의 업소이용 접촉경로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값	자유도	p
업소 측의 관리소홀	1289	3.44	1.17	3.239	1288	.001
청소년의 적극적인 노력	1289	3.32	1.10			

2) 접촉경험 유무에 따른 유해요인 접촉경로에 대한 인식의 차이

청소년들이 유해요인 접촉경로에 대해 가지는 인식은 청소년 자신의 접촉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들이 유해요인 접촉경험의 유무에 따라 어떠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대상 청소년들을 유해요인 접촉경험에 따라 3집단(접촉경험 무, 접촉경험 1-5회, 접촉경험 6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유해요인 전체에 대한 접촉경로 인식의 차이

유해업소를 통해 유해요인에 접촉해 본 경험에 따라 유해요인 전체에 대한 접촉경로로서 ‘업주 측의 관리 소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분

석한 결과가 <표 7-6>에 제시되어 있다. 세 집단의 인식차이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도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업주 측의 관리소홀’이라는 접촉경로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은 유해요인 접촉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유해요인 접촉 경험이 없는 청소년 집단의 평균은 14.2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유해요인 접촉 경험이 많은 청소년(1학기에 6회 이상) 집단의 평균은 12.78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요인 접촉경험이 많은 청소년들의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 결과에 따르면 겉으로 보기에 업소 측의 유해요인 관리가 소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청소년들이 유해요인에 접촉하려고 할 경우 업소 측에서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업소 측의 관리 노력을 유해물질 접촉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은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7-6> 전체 유해요인 접촉경로로서 ‘업주 측의 관리 소홀’에 대한 인식

유해요인 접촉경험(1학기)		N	평균	표준편차	F 값	p
구분	0회	599	14.20	3.77	13.522	.000
	1-5회	433	13.93	3.48		
	6회 이상	254	12.78	3.77		
	Total	1286	13.83	3.71		

접촉경로로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이 <표 7-7>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유해요인 접촉경험의 차이에 따른 집단별 인식의 차이는 매우 근소하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었다.

<표 7-7> 전체 유해요인 접촉경로로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한 인식

유해요인 접촉경험(1학기)		N	평균	표준편차	F 값	p
구분	0회	595	13.40	3.63	.310	.733
	1-5회	431	13.22	3.57		
	6회 이상	252	13.28	3.90		
	Total	1278	13.31	3.66		

(2) 개별 유해요인 접촉경로에 대한 인식의 차이

유해물질, 유해매체, 밀실이용, 심야영업 각각에 대한 접촉경로로서 ‘업주 측의 관리 소홀’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가 <표 7-8>에 제시되어 있다. <표 7-8>에 나타난 것처럼 ‘업주 측의 관리 소홀’을 유해물질에 대한 접촉경로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는 ‘전체 유해요인 접촉경험 1-5회 집단’이 가장 높았고, ‘전체 유해요인 접촉경험 6회 이상 집단’이 가장 낮았다. ‘업주 측의 관리 소홀’을 유해매체에 대한 접촉경로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는 ‘전체 유해요인 접촉경험 1-5회 집단’이 가장 높았고 ‘전체 유해요인 접촉경험 6회 이상 집단’이 가장 낮았다. ‘업주 측의 관리 소홀’을 밀실이용에 대한 접촉경로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는 ‘전체 유해요인 접촉경험 없는 집단’이 가장 높았고 ‘전체 유해요인 접촉경험 6회 이상 집단’이 가장 낮았다. ‘업주 측의 관리 소홀’을 심야영업에 대한 접촉경로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는 ‘전체 유해요인 접촉경험 없는 집단’이 가장 높았고 ‘전체 유해요인 접촉경험 6회 이상 집단’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7-8> 개별 유해요인 접촉경로로서 ‘업주 측의 관리 소홀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값	p
유해물질 접촉경험	0회	603	3.62	1.11	12.656	.000
	1-5회	436	3.63	1.10		
	6회 이상	257	3.24	1.12		
	Total	1,296	3.55	1.12		
유해매체 접촉경험	0회	603	3.57	1.10	10.074	.000
	1-5회	436	3.58	1.06		
	6회 이상	258	3.23	1.17		
	Total	1,297	3.51	1.11		
밀실 이용경험	0회	602	3.45	1.11	7.805	.000
	1-5회	436	3.29	1.17		
	6회 이상	258	3.11	1.22		
	Total	1,296	3.33	1.16		
심야영업 이용경험	0회	600	3.55	1.15	8.435	.000
	1-5회	436	3.42	1.10		
	6회 이상	256	3.20	1.27		
	Total	1,292	3.44	1.17		

유해물질, 유해매체, 밀실이용, 심야영업 각각에 대한 접촉경로로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가 <표 7-9>에 제시되어 있다. <표 7-9>에 나타난 것처럼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해물질에 대한 접촉경로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는 ‘전체 유해요인 접촉경험 6회 이상 집단’이 가장 높았고, ‘전체 유해요인 접촉경험 없는 집단’이 가장 낮았다. ‘업주 측의 관리 소홀’을 유해매체에 대한 접촉경로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는 ‘전체 유해요인 접촉경험 없는 집단’이 가장 높았고, ‘전체 유해요인 접촉경험 6회 이상 집단’이 가장 낮았다. ‘업주 측의 관리 소홀’을 밀실이용에 대한 접촉경로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는 ‘전체 유해요인 접촉경험 없는 집단’이 가장 높았고 ‘전체 유

해요인 접촉경험 1-5회 집단' 이 가장 낮았다. '업주 측의 관리 소홀' 을 심야영업에 대한 접촉경로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는 '전체 유해요인 접촉경험 6회 이상 집단' 이 가장 높았고, '전체 유해요인 접촉경험 없는 집단' 이 가장 낮았다. 단 이러한 차이의 크기가 크지 않아 실제로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밀실이용 접촉경로에 대한 것만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표 7-9> 개별 유해요인 접촉경로로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노력'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값	p
유해물질 접촉경험	0회	601	3.36	1.01	.550	.577
	1-5회	433	3.39	1.07		
	6회 이상	257	3.44	1.13		
	Total	1291	3.39	1.06		
유해매체 접촉경험	0회	601	3.33	1.01	.701	.496
	1-5회	436	3.28	1.02		
	6회 이상	257	3.24	1.13		
	Total	1294	3.29	1.04		
밀실 이용경험	0회	600	3.40	1.04	3.305	.037
	1-5회	434	3.23	1.14		
	6회 이상	258	3.26	1.21		
	Total	1292	3.32	1.11		
심야영업 이용경험	0회	597	3.29	1.09	.290	.748
	1-5회	434	3.34	1.06		
	6회 이상	255	3.35	1.21		
	Total	1286	3.32	1.10		

2. 유해요인 확산경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해요인이 확산되어가는 과정을 청소년과 관련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유해요인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인 청소년들이 다른 행위자들에게 자극을 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다른 행위자들에게 유해요인에 대한 자극을 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들은 다른 행위자들에게 유해요인 접촉을 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해요인을 확산시킬 수 있다. 둘째, 청소년들은 다른 행위자들과 유해업소에 동행함으로써 유해요인을 확산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확산경로를 알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유해요인 접촉에 대한 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했는지, 그리고 유해업소에 누구와 동행하였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1) 정보 확산경로

청소년들이 유해요인 접촉에 대한 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7-10>에 제시되어 있다. 빈도분석결과 유해요인 접촉과 관련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 대부분은 친구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1>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 응답자 중 78.4%의 청소년이 친구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것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정보를 부모님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그 비율이 12.8%나 되었다.

<표 7-10> 유해요인 정보 확산경로

정보 확산경로		빈도	퍼센트
구분	친구	575	78.4
	선후배	16	2.2
	부모	94	12.8
	형제자매	8	1.1
	사촌형제	4	.5
	인터넷	10	1.4
	기타	26	3.4
	Total	733	100.0

유해요인 정보를 친구와 부모에게 확산시키는 두 청소년집단을 대상으로 전체 유해요인 접촉정도를 분석하였다. 이 결과는 <표 7-11>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 표에서 보듯이 ‘부모님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청소년들(이하 부모 전달 집단이라 함)’의 전체 유해요인 접촉정도는 평균 2.84로서 ‘친구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청소년들(이하 친구 전달 집단)’의 평균 10.09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친구에게 유해요인 접촉 정보를 확산시키는 청소년 집단의 전체 유해요인 접촉정도가 높은 것은 청소년 문제행동 차원에서 심각한 일이다. 유해요인에 대해서 많이 접촉한 청소년들이 친구들을 유해요인으로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표 7-11> 정보 확산경로 집단에 따른 전체 유해요인 접촉정도

정보 확산경로	N	평균	표준편차	F 값	p
구분	친구	572	10.09	9.159	.003
	부모	93	2.84		
	Total	665	9.08		

전체 유해요인을 구체화하여 두 집단의 유해요인별 접촉정도를 분석하여 <표 7-12>에 제시하였다. 이 표에서 보듯이 유해물질, 유해매체, 문제친구, 밀실, 심야영업의 각 유해요인별 접촉정도에 있어서 모두 친구 전달 집단이 부모 전달 집단보다 상당히 높았다. 다만 이러한 차이는 유해물질 접촉정도에서 $p<.001$, 심야영업 접촉정도에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또래집단을 통해 유해업소 출입과 유해요인 접촉이 확산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7-12> 정보 확산경로 집단에 따른 유해요인별 접촉정도

유해요인	정보 확산경로		N	평균	표준편차	F 값	p
유해물질접촉	구분	친구	572	4.14	8.56	14.872	.000
		부모	94	.69	3.40		
		Total	666	3.66	8.13		
유해매체접촉	구분	친구	574	1.12	4.52	.911	.340
		부모	94	.66	3.17		
		Total	668	1.06	4.35		
문제친구접촉	구분	친구	574	1.02	4.52	2.594	.108
		부모	93	.25	2.18		
		Total	667	.91	4.28		
밀실이용	구분	친구	573	.81	2.94	1.670	.197
		부모	94	.40	1.97		
		Total	667	.75	2.82		
심야영업이용	구분	친구	573	3.07	5.94	6.790	.009
		부모	94	1.44	3.31		
		Total	667	2.84	5.67		

2) 인적 확산경로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어떤 사람을 데려가는지에 대한 분석결과가 <표 7-13>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청소년들의 친구들과 함께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것이 가장 높았고(79.5%), 그 다음이 부모(10.3%)로 나타났다. 이러한 순위는 유해요인에 대한 정보 확산경로와 같은 것이다. 친구가 가장 높은 인적 확산경로로 꼽히는 것은 청소년들의 또래 문화가 유해업소 출입에 대해 개방적이고 나아가 유해업소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또래 문화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7-13> 유해업소 인적 확산경로

인적 확산경로		빈도	비율
구분	친구	503	79.5
	선후배	30	4.7
	부모	65	10.3
	형제자매	4	.6
	사촌형제	12	1.9
	친척 어른	6	.9
	기타	13	2.1
	Total	633	100.0

인적 확산경로 중에서 가장 높은 친구 확산경로와 부모 확산경로 두 집단에 대해서 전체 유해요인 접촉정도를 분석하여 <표 7-14>에 제시하였다. 친구를 데리고 유해업소에 가는 청소년집단(이하 친구 확산 집단이라 함)의 접촉정도(평균 11.68)가 부모를 데리고 가는 청소년집단(이하 부모 확산 집단이라 함)의 접촉정도(평균 2.25)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표 7-14> 유해업소 인적 확산경로

인적 확산경로		N	평균	표준편차	F 값	p
구분	친구	500	11.68	24.67	9.363	.002
	부모	65	2.25	8.40		
	Total	565	10.60	23.57		

유해요인을 구체화 하여 유해요인별 접촉정도를 두 집단에 대해서 분석하여 <표 7-15>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각 유해요인 모두에서 친구 확산 집단의 접촉정도가 부모 확산 집단의 접촉정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았다. 다만 이러한 차이는 유해물질과 심야영업 접촉정도에서만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표 7-15> 인적 확산경로 집단에 따른 유해요인별 접촉정도

유해요인	인적확산경로	N	평균	표준편차	F 값	p
유해물질접촉	구분 친구	500	4.65	8.96	12.292	.000
	부모	65	.69	4.38		
	Total	565	4.20	8.65		
유해매체접촉	구분 친구	502	1.30	5.01	1.813	.179
	부모	65	.46	1.78		
	Total	567	1.21	4.75		
문제친구접촉	구분 친구	502	1.19	4.96	2.579	.109
	부모	65	.20	1.25		
	Total	567	1.08	4.70		
밀실이용	구분 친구	501	.99	3.31	2.734	.099
	부모	65	.38	1.36		
	Total	566	.92	3.15		
심야영업이용	구분 친구	501	3.62	6.50	14.057	.000
	부모	65	.58	1.40		
	Total	566	3.27	6.21		

VIII. 연구결과 4: 유해요인과 문제행동

1. 유해요인 접촉과
청소년문제행동
2. 유해요인들 간의 인과관계

VIII. 연구결과 4: 유해요인과 문제행동

1. 유해요인 접촉과 청소년 문제행동

유해요인이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8-1>에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1에서 심층면접을 통해 도출되었던 5가지의 유해요인들에 대한 접촉 경험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2001년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연구’에 바탕하여 재구성된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은 유해업소에서 유해요인에 접촉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로 한정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는 5가지의 유해요인 중 유해물질에 대한 접촉, 유해매체에 대한 접촉, 밀실 이용 등의 3가지 유해요인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3가지 요인 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유해물질접촉이었다. ‘유해물질 접촉’ 변인의 표준회귀계수는 .328이었다. 다음으로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은 ‘밀실이용’으로 표준회귀계수가 .149였으며 ‘유해매체 접촉’의 표준회귀계수는 .132였다. 이러한 회귀계수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유해물질접촉의 영향은 다른 요인들의 영향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게 나타난 점은 문제행동에 대한 대책이 유해물질접촉에 더 주안점을 두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반면 문제친구와의 접촉, 심야영업이용 등의 유해요인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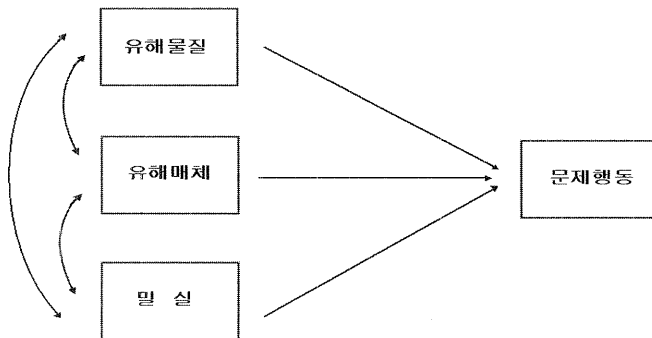
‘유해물질 접촉’, ‘밀실이용’, ‘유해매체 접촉’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청소년 문제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방정식은 $R^2 = .280$,

Adjusted $R^2=.275$ 로 상당히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 회귀방정식은 F값 62.963으로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 유해행동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회귀계수	t-값	Sig.
유해물질접촉	.237	.035	.328	6.791	.000
밀실이용	.289	.120	.149	2.413	.016
유해매체접촉	.172	.077	.132	2.227	.026
문제친구접촉	.74	.067	.89	1.355	.176
심야영업이용	.135	.081	.115	2.026	.053
상수	23.880				
R2(Adjusted R2)	.280(.275)				
F값(Sig.)	62.963(.000)				

이러한 회귀모형은 3가지 유해요인들이 독립변수로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지만 각각의 유해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설명해 주지 못한다. 단지 아래 그림과 같이 각각의 유해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문제행동과 관련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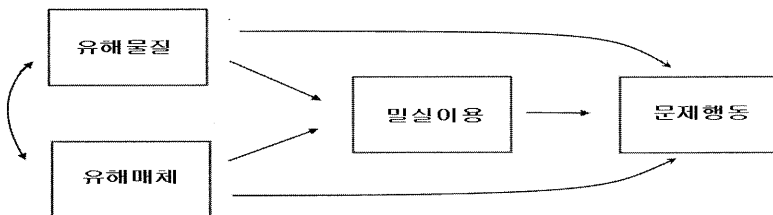


<그림 8-1> 유해요인과 문제행동의 관계

2. 유해요인들 간의 인과관계

3가지 유해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유해요인들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경로분석이 필요하다. 경로분석은 외부변인이 특정 내부변인에 미치는 영향력과 특정 내부변인이 다른 내부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통계 방법이다. 외부변인이란 독립변인처럼 원인으로 선정된 변인이고, 내부변인이란 종속변인처럼 결과로 여겨지는 변인이다. 경로분석을 통해 유해요인에 대한 접촉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인과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경로분석을 위해 3가지 유해요인과 청소년의 문제행동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경로모형의 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변인인 ‘유해물질 접촉’ 과 ‘유해매체 접촉’ 이 내부변인인 ‘밀실이용’ 에 영향을 주고, ‘유해물질 접촉’ 과 ‘유해매체 접촉’ 그리고 ‘밀실이용’ 이 또 다른 내부 변인인 ‘청소년 문제행동’ 에 영향을 준다는 경로모형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유해물질과 유해매체는 직접적으로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밀실이용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해서 더욱 증폭되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림 8-2> 3가지 유해요인과 청소년의 문제행동 간의 인과관계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이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를 통해 일반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이 ‘(유해업소 내에서의) 유해요인 접촉’이라는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 문제행동을 일으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3가지 유해요인들 간에도 인과관계를 가정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유해업소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술/담배 등과 같은 청소년 유해물질 및 음란물/폭력물 등과 같은 유해매체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나아가 유해매체와 유해물질에 대한 접촉은 그 자체로서 문제행동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유해업소의 ‘밀실’이라는 공간과 결합되면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부추기게 된다. 유해물질이나 유해매체에 대한 접촉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유해물질을 접촉하기 위한 밀실이용의 욕구를 높이게 된다.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유해물질이나 유해매체가 밀실과 결합되었을 때 그 효용이 극대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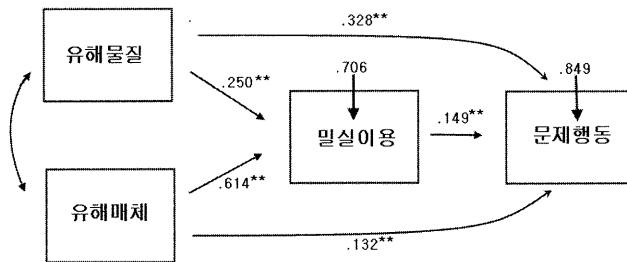
이러한 모형에서 구체적으로 각 변인의 인과적 영향을 확인해 보기 위하여 2번의 회귀분석이 필요하다. 먼저 첫 번째 경로모형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8-2>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유해물질 접촉과 유해매체 접촉이 ‘밀실이용’에 주는 영향력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표 8-2>에서 보는 것처럼 유해물질 접촉의 표준회귀계수는 .250, 유해매체 접촉의 표준회귀계수는 .614로 밀실이용에 미치는 유해매체 접촉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8-2> 유해물질 접촉과 유해매체 접촉이 ‘밀실이용’에 주는
영향력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회귀계수	t-값	Sig.
유해물질 접촉	9.294E-02	.012	.250	7.605	.000
유해매체 접촉	.411	.022	.614	18.658	.000
상수	-4.040E-02				
R2(Adjusted R2)	.602(.600)				
F값(Sig.)	388.017(.000)				

다음으로 두 번째 경로모형에 대한 분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앞서 실시하였던 <표 8-1>의 다중 회귀분석 결과를 사용하였다.

2차례의 회귀분석 결과 유해물질접촉, 유해매체접촉, 밀실이용 등의 유해요인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경로가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그림 8-3> 3가지 유해요인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경로

먼저 ‘유해매체 접촉’ (표준회귀계수=.614)과 ‘유해물질 접촉’ (표준회귀계수=.250)은 청소년의 ‘밀실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었다. 또한 ‘밀실이용’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표준회귀계수=.149)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여러 유해요인들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청소년들의 ‘유해물질접촉’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직접적 영향(표준회귀계수=.328)도 주고 있으며 ‘밀실이용’을 통해 간접적 효과도 주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유해매체접촉’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직접적 효과(표준회귀계수=.132)도 주고 있지만 ‘밀실이용’을 통해 간접적 효과도 주고 있다.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출입하여 유해물질이나 유해매체에 접촉하는 행동은 그 자체로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유해업소내의 ‘밀실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IX. 연구결과 5: 유해업소 개선대책

1. 유해업소 개선 대책마련을
위한 시사점
2. 유해업소 개선을 위한 대책

IX. 연구결과 5: 유해업소 개선대책

1. 유해업소 개선 대책마련을 위한 시사점

기본적으로 기존의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유해업소 출입 자체가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해 유해업소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대책만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유해업소에 내재되어 있는 유해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단순한 출입 제한이 아닌 유해요인 접촉 제한 나아가 유해요인에 대한 사회적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유해요인에 대한 사회적 관리의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해업소에서의 유해요인 접촉 실태에 대한 분석

유해요인 접촉 경로와 확산 경로에 대한 분석

유해요인과 문제행동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유해업소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1) 유해요인 접촉실태 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

유해업소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기존의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유해업소는 출입경험 자체가 청소년들에게 유해

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가정에서의 불만족이나 또래집단의 부정적 영향력 등이 유해업소 출입을 통해 발현된다는 점에서 청소년 문제행동의 핵심적인 매개변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유해업소의 영향력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유해업소에 대한 개선 대책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즉, 유해업소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각종 유해요인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필요한 조치인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유해업소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채, 단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인 유해성을 가정하고 이에 바탕 하여 각종 논의를 진행해왔다. 객관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유해업소에 대한 각종 규제정책들은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관련 이해당사자인 업주들의 이의제기에 부딪혀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청소년들이 실제 출입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유해업소 출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유해업소에서 청소년들이 어떠한 유해요인에 얼마나 접촉하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유해업소들이 가지는 유해성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는 새롭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기된 개선대책수립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해업소들의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 인식

본 연구를 통해 각각의 유해업소들이 가지고 있는 유해성을 어느 정도 객

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추상적인 개념으로 혹은 유해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주관적인 인식정도로 간주되던 유해성의 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으로 유해성을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의 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분석기법은 유해업소 출입경험자들 중 유해요인 접촉경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빈도분석이다. 이 분석결과는 <표 9-1>에 제시되어 있다. 업소 내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유해요인 접촉의 빈도가 높을수록 업소의 유해성은 높아지는 것이다.

<표 9-1> 유해업소 출입경험별 유해요인 접촉경험 분석

유해업소	유해요인 접촉비율(%)
도서대여점/비디오 및 DVD대여점	11.7
오락실	25.3
슈퍼/마트/편의점	28.2
PC방	34.0
카페/식당	37.5
노래방	41.9
당구장	43.4
찜질방	49.4
성인PC방/비디오/DVD방	68.4
여관	74.5
술집	78.8

유해요인 접촉경험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각각의 업소들이 가지는 유해성이 다음 <표 9-1>과 같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구분되어 있는 성인PC방/비디오/DVD방, 여관 등의 유해

성이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 분석기법은 유해업소 출입과 유해요인 접촉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이다. 상관관계 분석결과가 <표 9-2>에 제시되어 있다. 상관계수가 클수록 유해업소 출입이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모든 업소의 출입과 유해요인 접촉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 결과는 모두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유해업소에 출입이 유해요인 접촉과 연관되는 것이다.

<표 9-2> 유해업소 출입경험과 유해요인 접촉경험 간의 상관관계

유해업소명	출입경험과 유해요인접촉 경험 간의 상관관계
도서대여점	.143
슈퍼/마트/편의점	.247
PC방	.293
오락실	.303
성인PC방/비디오/DVD방	.304
카페/식당	.371
찜질방	.378
노래방	.380
당구장	.392
여관	.402
술집	.544

이러한 분석을 통해 유해업소 출입이 유해요인 접촉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유해성의 강도가 업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해업소가 가진 유해성에 따라 다른 차원의 대책을 구분하여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즉, 출입 자체가 유해요인 접촉으로 이어지는 유해성이 강한 업소에 대한 대책과 그렇지 않은 업소들에 대한 대책이 다르게 제시되어야 한다.

유해성이 강한 업소들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소들에 대해서는 유해요인 접촉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잠재적 유해업소와 실제적 유해업소의 구분

유해업소들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유해업소 출입이 즉각적으로 유해요인 접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출입하더라도 유해요인에는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유해요인을 보유한 ‘잠재적 유해업소’ 들 중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 업소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의 출입이 허용된 업소 대부분은 청소년 유해요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도 함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소들에 대해 체계적이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해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과 청소년들에게 유해요인 접촉을 발생하는 실제적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을 차별화할 것을 제안한다. 즉 모든 업소에 대해 동일한 대책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고 있는 업소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소를 구분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해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업소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3) 유해요인 접촉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접촉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구분

본 연구를 통해 모든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유해업소에 출입한 모든 청소년들이 유해요인에 접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출입이 허용된 유해업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유해요인에 접촉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해업소나 유해요인에 대한 접촉경험이 있는 청소년들과 그렇지 못한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차별화할 것을 제안한다. 즉 모든 청소년에 대해 동일한 대책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유해요인에 대한 접촉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과 그렇지 못한 청소년을 구분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유해요인 접촉 및 확산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경험만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유해요인에 접촉하는 과정과 유해요인들이 확산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분석을 시도하였다.

유해요인을 중심으로 접근하지 않은 기존의 유해업소 연구에서는 유해업소 내에서 청소년들의 유해요인이 접촉이 일어나는 과정이 일종의 블랙박스로서 인식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유해요인 접촉이 업소 측의 관리소홀과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유해요인 접촉노력에 의해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해요인 접촉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부모와 또래집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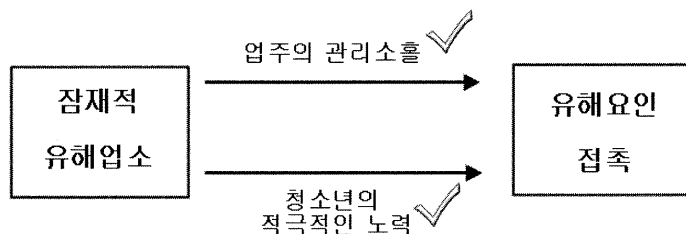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을 방

지하기 위해 그리고 유해요인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의 분석을 통해 제기된 대책의 방향(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해요인 접촉: 업소와 청소년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의 유해요인에 접촉하는 경로에 대한 책임이 <그림 9-1>에 제시되어 있다. 유해요인을 보유한 잠재적 유해업소에서 청소년들이 유해요인에 접촉하게 과정인 접촉경로에 대한 분석 결과 청소년들의 유해요인에 접촉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유해요인의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업소측에게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유해요인 접촉을 막기 위해서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함께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서 유해요인에 접촉하기 위해 거짓말, 신분증 변조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점도 확인되었다. 그 결과 업주측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청소년들이 적극적인 출입노력이 업주측의 관리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심층면접을 통해 몇몇 청소년들이 업주에게 자신들의 나이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알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거나, 형이나 언니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그림 9-1> 유해업소에서 유해요인 접촉경로의 책임

또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지만 유해요인 접촉경험이 많은

청소년들에게서는 부분적으로 유해요인 접촉에 있어 업주측의 책임보다 청소년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유해요인 접촉의지를 가지고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2) 유해요인 확산: 가정과 또래집단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

유해요인이 청소년에게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의 친구와 부모의 역할이 <표 9-3>에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들간에 유해요인이 확산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결과 친구와 부모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친구와 부모의 역할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나타났다. 친구는 유해업소에서의 유해요인 접촉을 확산시키는 특징이 있었으나 부모는 이를 축소(무력화)하는 특징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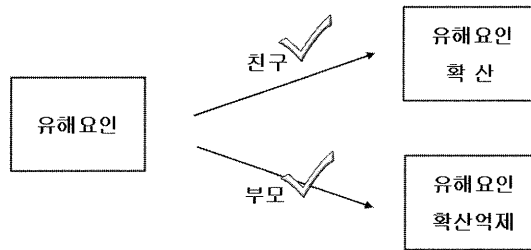
유해업소에 친구들과 함께 출입한 청소년들은 부모님과 함께 출입한 청소년들보다 유해요인에 접촉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유해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은 유해요인에 접촉하는 비율이 평균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즉, 친구는 유해요인 접촉의 확산을 가져오는 변인으로, 부모는 유해요인 접촉의 확산을 방지하는 변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9-3> 유해요인이 확산되는 과정에 친구와 부모의 역할

유해업소 출입시 동반자	친구→유해요인 접촉 확산○
	부모→유해요인 접촉 억제×

따라서 <그림 9-2>를 참고하여 유해업소의 유해요인이 가지는 영향력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또래집단과 가정의 역할을 함께 고려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또래집단과 가정에 대한 대책은 유해업소 개선대책

으로 보기 어렵고 보다 추상적인 청소년 문제행동 개선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논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그림 9-2> 유해요인 확산에 대한 부모와 친구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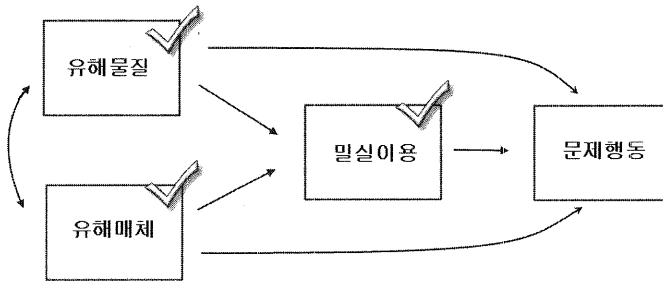
3) 유해요인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경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유해요인들이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 대해서도 분석을 시도하였다. 조사대상 청소년 중 유해업소 출입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유해요인 접촉과 문제행동 간의 경로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유해업소내의 유해요인들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과정이 밝혀졌다.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되었던 5가지의 유해요인 중 유해물질, 유해매체, 밀실 등의 유해요인이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유해요인을 중심으로 그 경로를 <그림 9-3>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유해업소 개선을 위해서는 유해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3가지의 유해요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모든 유해요인에 대해 적절한 관리조치를

하는 것이지만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모든 유해요인을 관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3가지의 유해요인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9-3> 유해업소내의 유해요인들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과정

2. 유해업소 개선을 위한 대책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해업소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유해업소 개선을 위한 대책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해업소 개선을 위한 대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유해요인에 대한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을 효과적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유형을 다시 제시하면 <표 9-4>와 같다. 본 연구의 관심대상이 되는 유해업소에는 직접

적 유해요인과 간접적 유해요인을 모두 갖춘 ‘유해업소 유형 1’ 뿐만 아니라 간접적 유해요인이나 직접적 유해요인 중 한 영역만을 갖춘 ‘유해업소 유형 2’와 ‘유해업소 유형 3’을 모두 포함한다.

<표 9-4> 유해업소 유형

	직접적 유해요인○	직접적 유해요인×
간접적 유해요인○	유해업소 유형 1	유해업소 유형 3
간접적 유해요인×	유해업소 유형 2	유해업소×

유해업소 유형을 청소년의 출입 여부와 관련하여 분류하면 다음 <표 9-5>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유해업소 유형 1’은 유해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이다. 반면 ‘유해업소 유형 2’와 ‘유해업소 유형 3’은 비록 유해요인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도 제공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출입이 허용되는 ‘청소년 이용 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와는 달리 ‘청소년 이용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의 법과 제도로는 청소년 출입금지 조치를 내리기 어렵다.

<표 9-5> 업소의 청소년 출입여부

	직접적 유해요인○	직접적 유해요인×
간접적 유해요인○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유해업소 유형 1)	청소년 이용 가능업소 (유해업소 유형 3)
간접적 유해요인×	청소년 이용 가능업소 (유해업소 유형 2)	청소년 이용 가능업소 (유해업소×)

따라서 유해업소 개선을 위한 대책은 이와 같은 청소년 유해업소 개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 대책의 방

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는 법적 제도적으로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청소년의 출입 여부에 대한 관리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청소년들이 이들 유해업소에서 유해요인에 접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들 업소에 대한 대책은 청소년의 출입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반면 ‘청소년 이용 가능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출입 제한은 별다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 업소에 대한 대책은 업소내부에서 청소년들이 유해요인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유해요인들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은 유해업소의 특징을 고려하고 설문분석으로부터 얻은 결과들을 종합하여 다음 <표 9-6>, <표 9-7>과 같이 유해업소 개선을 위한 대책의 기본방향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영역들을 확인하였다. 이들 영역들은 유해업소의 특징과 청소년들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표 9-6> 유해업소별 출입여부 및 대책

유해업소명	청소년 출입여부	대책의 기본방향
성인PC방/비디오/DVD방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청소년출입관리
여관		
술집		
도서대여점	청소년 이용가능 업소	유해요인관리
슈퍼/마트/편의점		
PC방		
오락실		
카페/식당		
찜질방		
노래방		
당구장		

<표 9-7> 유해업소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영역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대한 개선 대책	업소에 대한 개선 대책	잠재적 유해업소에 대한 개선 대책
		실제적 유해업소에 대한 개선 대책
	청소년에 대한 개선 대책	출입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대한 대책
		출입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대책
청소년 이용가능 업소에 대한 개선 대책	업소에 대한 개선 대책	잠재적 유해업소에 대한 개선 대책
		실제적 유해업소에 대한 개선 대책
	청소년에 대한 개선 대책	접촉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대한 대책
		접촉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대책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청소년 출입금지와 같은 포괄적인 대책을 제시하였던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개선대책이 필요한 영역에 따라 구체적이고 적절한 대책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1)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개선대책

술집/유흥주점, 여관, 성인PC방/비디오/DVD방 등은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그 유해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기존의 청소년 보호법에서도 출입금지된 업소들이다. 또한 이들 업소들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 출입금지 조치에 대한 별다른 논란도 없는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표 9-8>에 제시된 분석 결과를 보면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이들 업소에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중학생보다는 외모 상으로는 성인과 구분이 어려운 고등학생들

이, 고등학생 중에서는 입시공부에 매달리는 인문계 고등학생들보다는 시간 여유가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출입비율이 높았다. 특히 술집/유흥주점 출입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10%가 넘었다. 중·고등학생 10명 중 1명은 출입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표 9-8> 출입금지 된 업소 출입경험 청소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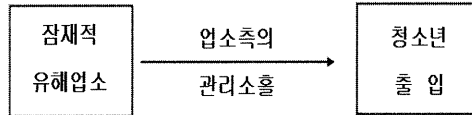
유해업소명	출입경험청소년 비율
성인PC방/비디오/DVD방	4.4%
여관	4%
술집	10.5%

따라서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 업소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들에 대한 개선대책의 기본방향은 이들 업소에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예방책과 사후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책들을 통해 잠재적 유해업소들이 실제적 유해업소로 되는 것을 예방하고 나아가 이들 업소들을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 선도 모범업소(가칭)’ 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1) 업소에 대한 대책

분석결과 유해업소 중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술집/유흥주점, 여관, 성인 PC방/비디오/DVD방 등에서 청소년들의 출입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의 출입은 <그림 9-4>에서 보듯이 일차적으로는 업소측의 관리 소홀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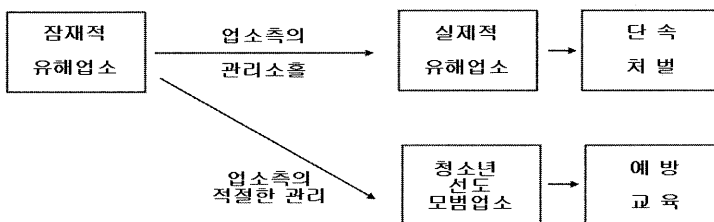
<그림 9-4> 출입금지업소 청소년의 출입원인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다른 한편으로는 업소측의 출입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청소년의 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술집/유흥주점, 여관, 성인PC방/비디오/DVD방 등과 같이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은 다음 그림 <9-5>에 제시된 것처럼 두 가지 차원에서 분리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첫째, 유해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이다. 이들 업소는 일단 유해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촉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의 업소들이다. 이들 업소들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출입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대책들이 주로 요구된다.

둘째, 잠재적 유해업소 중 출입관리가 소홀하여 청소년들의 업소출입이 발생하고 있는 실제적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이다. 이들 업소들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 등의 징벌적 차원의 대책들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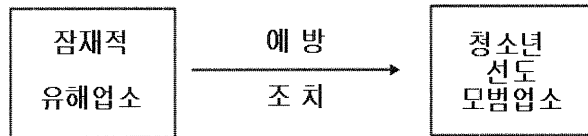


<그림 9-5> 잠재적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1

이들 업소들에 대한 관련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잠재적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

잠재적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의 핵심은 <그림 9-6>에서 보는 것처럼 업소 내에서 청소년들의 출입시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유해업소 자체가 청소년들의 출입을 걸러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예방적 차원의 조치들을 대책으로 제시할 수 있다. 잠재적 유해업소에 대한 예방 조치를 통해 이들 업소들을 ‘청소년 선도 모범업소’로서 ‘개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9-6> 잠재적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2

㉠ 청소년 출입 예방 교육 실시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의 업주와 종업원들에 대한 청소년 출입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이들 업소의 업주나 종업원들은 교육을 통해 자신들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업소에 내재해 있는 유해요인들의 유해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 자율적인 청소년 출입 예방활동 장려

지역단위로 같은 업종의 업주들끼리 자율협의체를 조직하고 지역단위의 자율적인 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역협의체를 통해 새

롭게 발생하는 청소년 문제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단위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협의체는 협의체 구성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정기간마다 청소년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들로 부터 지속적인 재교육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㉔ 성인 인증 지침의 개발 및 보급

선량한 관리자로서 업주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업소에 출입하는 경우 업소를 보호하기 위해 ‘성인인증지침’(가칭)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출입객에 대해 업소측에서 ‘성인인증지침’을 잘 준수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경우 업소측의 출입 금지 노력을 인정하고 청소년 출입으로 인한 행정상의 불이익을 경감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인인증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업소측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신분증 없이 성인이라고 주장하는 출입객

주민등록증이 훼손되어 있는 출입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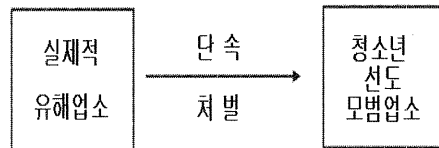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실물이 다른 출입객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에 바탕 하여 청소년 출입 근절을 위한 성인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첨단 IT 기술을 활용하여 출입객 자신이 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성인임을 인증 받는 IT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등이 가능할 것이다.

② 실제적 유해업소에 대한 관리대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들 중 일부 업소들에서는 청

소년을 출입시켜 청소년들로 하여금 유해요인에 접촉할 수 있도록 조장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제적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그림 9-7>에서 제시된 것처럼 보다 엄격한 단속과 처벌이 요구된다.



<그림 9-7> 실제적 유해업소에 대한 관리대책

㉠ 단속의 실효성 확보

설문분석을 통해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들의 출입이 확인되었다. 법적으로 이와 같은 청소년 출입은 처벌대상이지만 실제 현실에서 단속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청소년 출입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등을 도입하여 신고에 의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학교의 학부모회, APT 부녀회 등의 지역사회 차원의 학부모 단체들과 연계하여 ‘시민단속반’ (가칭)을 구성할 수도 있다.

㉡ 처벌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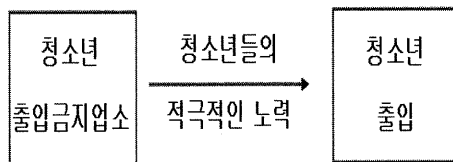
청소년을 출입시킬 경우 이들 업소들이 받게 되는 기존의 처벌은 영업정지, 과징금 등과 같이 행정적 처분이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은 행정적 처분은 많은 업주들로 하여금 청소년 출입금지를 위한 관리 노력을 하게 하는

효과적인 대책이다.

그러나 몇몇 업주들은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청소년들의 출입을 조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악의적인 영업을 하는 업주들에게는 행정 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즉, 업주와 종업원이 의도적으로 청소년의 출입을 묵인하고 청소년들의 상습적인 출입을 허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통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 청소년에 대한 대책

업소에 대한 대책만으로는 청소년들의 출입을 막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그림 9-8>에서 보는 것처럼 몇몇 청소년들이 이들 업소에 출입하기 위해 상당히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업소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출입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림 9-8>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출입경험 유무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한다. 유해업소 출입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에게는 예방교육이 효과를 가지겠지만 유해업소 출입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예방교육만으로는 유해업소 출입 및 유해요인 접촉을 방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① 유해업소 출입 경험이 없는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출입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예방적 조치로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교육이다. 유해업소 출입 예방을 위한 청소년 교육은 크게 학교교육 차원과 사회교육 차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학교교육차원의 출입예방 교육 실시

현재의 학교교육과정에서는 교과과정 뿐만 아니라 교과외 과정에서도 이러한 유해업소들의 유해성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청소년들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들의 유해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친구들의 권유로 출입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통해 유해업소 출입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들 업소에 대한 청소년들의 출입이 성인과 비슷한 외모를 가지게 되는 고등학교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중학교에서부터 예방 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유해업소 출입예방교육을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유해업소 출입의 유해성과 그에 따른 책임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국가수준에서 개발하여 전국의 학생들이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방교육 프로그램에는 실제 예방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유해업소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의 유형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출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신고 및 고발 요령

또한 유해업소 출입예방 교육은 교과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하여 체육, 사회, 도덕 등의 관련 교과교육을 통해서 시행될 수 있다. 만약 교과교육과정 개정이 어려울 경우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 중 일정 부분을 배당하여 예방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 사회교육차원의 출입예방 교육 실시

학교교육만으로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 예방을 위한 충분한 교육이 시행되기 어렵다. 학교교육에서 지도해야 할 내용이 너무나 다양하고 많기 때문이다. 교과 영역이외에도 유해업소 출입예방교육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다양한 주제들이 범교과 학습 영역이라는 명칭으로 다음과 같이 학교현장에서 다루어진다.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등 범교과 학습은 재량 활동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지도하되, 관련되는 교과와 특별 활동 등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쓴다.

이처럼 다양한 영역의 범교과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현장에서 유해업소 출입예방교육만을 특별하게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이 아닌 사회교육 차원에서 유해업소 출입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TV나 라디오와 같은 방송매체,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언론출판매체, 그리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유해업소 출입예방 캠페인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유해업소 출입경험이 있는 청소년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출입해 본적이 없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출입예방교육이 효과를 가질 수 있겠지만 이러한 업소에 출입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예방교육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미 출입금지업소에서 제공하는 성인용 서비스(유흥), 즉 만족에 익숙해져 있는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만으로 유해업소 출입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의 법과 제도에서는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출입한 청소년들은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있다.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대한 청소년들의 출입이 적발될 경우 대부분 청소년들은 선도 차원에서 훈방조치되고 업주들만 처벌받는다. 업주에게는 법적 제도적 불이익이 돌아가지만 청소년들은 단속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출입금지업소에 출입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만 15세 이상의 고등학생들이고 이들 업소가 출입금지업소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이다. 결국 자신들에게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고 업주만 처벌받는 것을 알고 있는 청소년들은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출입하는데 대해 별다른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출입하다 적발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접근 보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출입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청소년 자신이 직접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적 차원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보호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나아가 자율적인 주체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출입금지업소에 출입한 청소년들에게 가능한 교육적 처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될 수 있다.

㉠ 사회봉사 처분

청소년들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정기간동안 봉사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반성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 프로그램 이수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일정시간 동안 이수하도록 처분하는 것이다. 물론 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유해업소에서 제공하는 성인들의 문화 대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 상담 처분

부모님과 함께 하는 상담 처분이다. 가정이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억제 요인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상담을 받음으로써 청소년들은 유해업소 출입 충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2)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 개선대책

유해요인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청소년들의 출입이 허용되는 업소들의 경우에는 출입금지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 이들 업소들은 성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주요 영업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인뿐만 아니라 다음 <표 9-9>에서 보는 것처럼 청소년들에게 유익하거나 중립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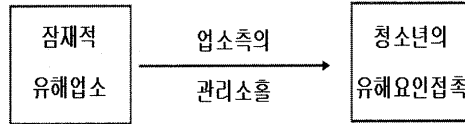
<표 9-9>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의 활동

청소년 출입가능업소	도서대여점	청소년용 도서 대여 12세/15세 관람가 영상물 대여
	슈퍼/마트/편의점	각종 생활 편의품 판매
	PC방	청소년용 게임, 채팅, 인터넷 서핑
	오락실	청소년용 게임
	카페/식당	식사, 음료 서비스
	찜질방	목욕, 찜질
	노래방	노래 부르기
	당구장	스포츠 활동

따라서 이들 업소들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청소년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이들 업소를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유해요인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즉,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출입제한 대책보다는 유해요인 관리대책이 적절한 조치이다. 특히 관리대상이 되어야 할 유해요인은 분석을 통해 문제행동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유해물질과 유해매체, 그리고 밀실이용이다.

(1) 업소에 대한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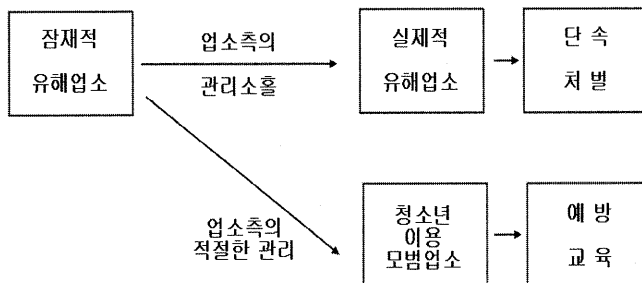
본 연구의 분석결과 유해업소 중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업소들에서 청소년들이 유해요인에 접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의 출입은 <그림 9-9>에서 보는 것처럼 일차적으로는 업소측의 관리 소홀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확인되었다.



<그림 9-9> 잠재적 유해업소에서 유해요인 접촉경로의 책임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와는 달리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는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출입가능 유해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유해요인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촉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들 업소를 ‘청소년 이용 모범업소’로 만드는 것이 대책의 기본 방향이 된다. 잠재적 유해업소의 유해요인을 관리하는 지침은 <그림 9-10>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그림 9-10>에서 보는 것처럼 잠재적 유해업소 중 유해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업소들을 중심으로 ‘청소년 이용 모범업소’ 인증을 실시한다. 청소년 이용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림 9-10> 청소년 출입가능 잠재적 유해업소에 대한 관리

① 잠재적 유해업소에 대한 관리 대책

청소년 출입가능 유해업소는 청소년들의 출입은 허용되지만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 유해업소들이다. 각각의 업소들이 보유한 유해요인의 실태는 다음 <표 9-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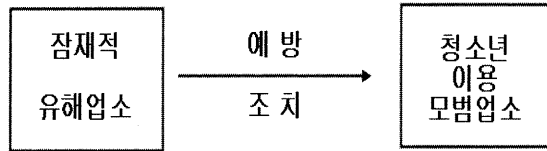
<표 9-10> 출입가능 유해업소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는 요인들

	유해물질	유해매체	문제친구	밀실	심야영업
도서대여점		○			
슈퍼/마트/편의점	○				
PC방	○	○	○		○
오락실	○	○	○		○
카페/식당	○	○	○	○	○
점질방	○	○	○		○
노래방	○	○	○	○	○
당구장	○	○	○		○

이처럼 유해물질, 유해매체, 밀실 등과 같은 청소년 유해요인을 보유한 잠재적 유해업소들에서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해요인들에 대한 업소측의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유해업소들에서 업소가 보유한 유해요인들에 대한 관리만 제대로 해준다면 이들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이들 업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잠재적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의 핵심은 업소 내에서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유해업소 자체가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을 통제할 수 있도록 다음 <그림

9-11>과 같은 예방적 차원의 조치들을 대책으로 제시할 수 있다. 잠재적 유해업소에 대한 예방 조치를 통해 이들 업소들을 ‘청소년 이용 모범업소’로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9-11> 잠재적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

㉠ ‘유해요인 관리 지침’ 보급

각종 청소년 이용모범업소의 사례를 발굴하고 이들 업소의 유해요인 관리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해요인 관리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유해업소에서 청소년 유해요인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해요인에 대한 관리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면 통해 업주와 종업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유해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 유해요인 관리 교육

유해요인의 관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업주 및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업주와 종업원들만이 유해요인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일종의 면허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상당수의 업주들이나 종업원들이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혹은 제공하고 있는 유해요인들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유해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유해요인 접촉 예방 의무 부여

업소측에 대해 업소 내에서 청소년들의 흡연이나 음주 등과 같은 문제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의무를 부여한다. 몇몇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들은 청소년들이 업소 내에서 흡연 및 기타 문제행동을 하더라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출입을 통해 이윤을 얻고자 하는 업소 측에게 지속적인 매장관리를 통해 자신의 업소 내에서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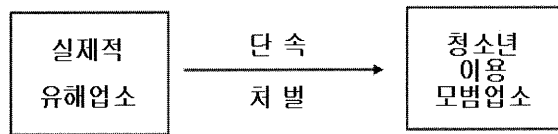
㉡ 유해요인 접촉 청소년에 대한 신고권 부여

업소측의 제지에도 유해요인에 접촉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신고권을 업소측에 부여한다. 업소측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업소 내에서 유해요인에 접촉하고자 한다면 업소측이 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찾기 어렵다. 예를 들어 담배를 소지한 청소년이 PC방, 노래방, 당구장 등에서 업소측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려고 할 때 업소측이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업소측에서 불이익을 우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이들 청소년으로부터 업소측을 보호하기 위해 업소에서 이들 청소년을 각 지역 청소년 위원회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② 실제적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

유해요인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잠재적 유해업소 내부에서 청소년들은 유해요인에 접촉하게 된다. 이 경우 잠재적 유해업소는 실제적 유해업소로 변화하게 된다. 유해요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실제적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이나 처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다음 <그림 9-12>에서 보는 것처럼 단속 및 처벌을 통해 실제적 유해업소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적절한 ‘청소년 이용 모범업소’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9-12> 실제적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

㉠ 단속강화

청소년들이 업소 내에서 유해요인에 접촉할 경우 업소측을 처벌할 수 있도록 단속 규정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한다. 특히 당구장, 찜질방 등과 같이 기존의 법과 제도에서 단속대상이 아니었던 업소들에 대해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단속활동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법상으로는 청소년들이 유해요인에 접촉할 경우 이에 대한 단속 규정이나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당구장이나 노래방에서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더라도 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업소내에서 유해요인에 접촉하였을 경우 업주에 대해 책임을 묻는 단속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단속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단속근거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된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유해요인 접촉을 예방하기 위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노래방, PC방과 같이 심야영업이 금지된 업소에 대해 단속이 있기는 하지만 제한적이며 그 효과 또한 미미하다. 따라서 이들 업소에서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단속활동이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 처벌강화

업소 내에서 청소년의 유해요인 접촉을 조장하거나 방관하는 업소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유해요인 접촉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향에서 가능하다. 하나는 청소년의 유해요인 접촉이 발생한 업소에 대해 관리책임을 물어 청소년들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리 책임을 물어 유해요인의 판매 및 제공을 금지시키는 방법이다.

첫째,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유해업소들 중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에 대한 관리 소홀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청소년 출입을 금지시킨다. 즉 단속에 적발된 PC방, 당구장, 노래방, 찜질방 등에 대해서는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책은 장기적으로는 유해요인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청소년 이용 모범업소’에만 청소년들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과 연결된다.

둘째,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한 유해업소에서 유해요인에 대한 접촉이 발생할 경우 이 업소에 대해서는 유해요인 자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슈퍼나 담배 소매상에서 술이나 담배를 청소년들에게 판매할 경우 주류 혹은 담배 판매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다. 혹은 도서대여점/비디오 DVD 대여점의 경우 19세 이상의 성인물을 취급할 수 없게 조치할 수 있다.

(2) 청소년에 대한 대책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여가활동 및 또래집단과의 만남을 위해 업소들을 이용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업소 대부분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요인을 보유하고 있다. 즉, 청소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업소측의 적절한

유해요인 관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유해요인에 접촉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서 유해요인에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① 유해요인 접촉 경험이 없는 청소년

유해요인 접촉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방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 유해요인 접촉 예방교육 실시

현재 청소년들은 유해요인의 유해성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즉, 유해요인의 유해성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친구들과 함께 유해요인에 접촉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상당수의 유해요인들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유해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중독이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해요인의 유해성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유해요인 접촉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 교육은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예방교육은 학교교육보다는 사회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청소년 단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금연 캠페인 등이 바로 그것이다. 반면 학교교육에서는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단위 학교 차원에서 금연교육계획을 세우고 가정통신문이나 시청각 교육 등을 통해 흡연의 유해성에 대해 제시하는 등의 제한적인 노력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유해요인 접촉 예방교육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유해요인의 유해성에 대해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해요인 접촉에 대한 예방교육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유해요

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술/담배에 노출된 청소년의 문제행동
음란물/폭력물에 노출된 청소년의 문제행동
밀실에서 일어나는 청소년의 문제행동

㉠ 유해업소 이용 지침 개발보급

청소년들이 유해요인을 보유한 업소들을 이용할 경우 지켜야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급한다.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PC방이나 오락실, 노래방 등이 밤 10시 이후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곳인 줄 모르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출입할 경우 ‘이용지침’에 대한 고지를 통해 업소 내에서 청소년들이 지켜야할 사항에 대해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용지침을 통해 유해업소 내에서 유해요인에 접촉하였을 경우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준다. 나아가 청소년들은 업소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이용지침을 확인하고 지침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책임 있는 이용객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유해요인 접촉 경험이 있는 청소년

유해요인에 접촉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단순히 예방적 차원의 조치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유해물질 및 유해매체 등과 같은 유해요인들은 어느 정도 중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유해요인에 접촉하는 학생들을 유해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단속과 함께 교육적 목적의 보호조치들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 단속 강화

청소년들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유해업소 내에서 흡연등과 같이 유해요인에 접촉하게 될 경우 현재의 법이나 제도로서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업주나 종업원의 제지나 계도 등이 가능한 방법이지만 이는 청소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조치들이다.

따라서 유해업소 내에서 유해요인에 접촉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을 업주가 직접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사회가 나서야 한다.

첫째, 청소년들이 업소 내에서 유해요인에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단속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청소년들을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들의 흡연을 금지하거나 음주를 금지하는 등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업소 내에서 청소년들이 흡연 등과 같이 유해요인에 접촉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청소년들이 각종 업소나 심지어는 길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법체제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유해요인에 접촉하는 것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단속의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단속활동의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속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단속노력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단속활동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차원의 협력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가정의 학부모, 학교의 교사, 지역 사회의 청소년 지도자 등이 연계하여 경찰이나 공무원 등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시민과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신고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신고에 의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 보호 조치 마련

유해요인에 접촉하는 청소년들을 단속하더라도 업소측과는 달리 처벌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성인인 업주와는 달리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로서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해요인 접촉으로 단속에 적발된 청소년들은 징벌적 처벌보다는 교육적 처벌이 필요하다.

유해요인 접촉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처벌은 유해요인으로부터 이들 청소년을 보호하는 보호조치의 성격을 가진다. 물론 이러한 보호조치는 기본적으로 친권자인 부모의 노력에 바탕해야 하지만 가정의 노력만으로는 유해요인 접촉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사회적 보호조치들이 함께 병행될 수 있다.

첫째, 가정에서의 보호조치이다. 유해업소 내에서 유해요인에 접촉하다 단속에 적발된 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가정에 인계되어 가정 내에서 보호조치를 받게 된다. 이때 청소년의 보호자로서 부모는 청소년들이 유해요인에 접촉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관리해야할 책임을 진다.

둘째, 사회적인 보호조치이다. 가정에서의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특히 상습적으로 유해요인에 접촉하여 중독증상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가정에서의 보호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이들 청소년에 대해서는 중독의 정도에 따라 각종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며, 교육을 받은 이후에도 재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이들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X. 결 론

X. 결 론

청소년 유해업소는 그 속성상 이윤획득을 위해서라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유혹에 끊임없이 흔들리게 된다. 청소년 유해업소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청소년 유해업소들은 실제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주요한 사회적 원인이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개선 대책은 우리사회의 끊임없는 과제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구체적으로 유해업소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해요인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유해업소에 내재된 유해요인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 문제행동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밝혀내지 못하였다. 즉, 기존 연구에서는 유해업소 내부의 어떤 요인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청소년에 대한 유해업소의 영향력은 일종의 'Black Box'로 취급하여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에 바탕한 대책들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출입통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유해업소가 유해한 영향을 주는 것은 확인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해요인들이 문제인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해업소에 대한 출입이나 고용 자체를 관리하는 대책을 세웠던 것이다. 그 결과 청소년 유해업소는 내재되어 있는 유해요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어왔다.

유해업소에 대한 규제를 통해 몇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유해업소의 유해성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 없이 이루어진 기존의 대책들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예방이나 개선에 있어 적절성이나 타당성을 가지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에 내재되어 있는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유해요인들의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청소년 문제

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유해요인 개념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문제를 다룰 것을 제안하였다. 유해요인을 중심으로 접근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로부터 유해한 영향을 받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적절한 억제모형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유해업소에 내재한 유해요인들을 확인하고 이들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 있는 사실들이 확인되었다.

첫째, 유해업소측의 관리 소홀과 청소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 청소년의 유해요인 접촉이 발생한다.

둘째, ‘유해물질접촉’, ‘유해매체접촉’, ‘밀실이용’ 등의 유해요인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일으키고 있다.

셋째, ‘유해물질접촉’와 ‘유해매체접촉’은 직접적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밀실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바탕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유해요인에 대한 사회적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업소측의 자율적인 관리나 청소년들의 자제를 바랄 것이 아니라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을 억제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해요인에 대한 사회적 관리’를 위해 기존의 출입 금지 대책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 물론 이러한 대책들은 개별 유해업소들에 대한 보다 미시적인 연구결과들에 의해 보완되고 현실의 행정전문가들에 의해 다듬어져야 하지만, ‘유해요인에 대한 사회적 관리’라는 본 연구의 제안은 이러한 과정에서도 기본 지침으로서 일관되게 지켜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성혜외(1997). 청소년문제행동의 이해와 지도.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권이중(1996). 청소년학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 권이중·남정걸·최충옥·최운실·최운진(1998). 청소년교육론. 서울: 양서원.
- 김대연(2000).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실태와 교육적 과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두식(2000). 비행청소년의 심리적 가정환경과 비행성향 및 자살충동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상식(2002). 학생범죄의 동향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한·이춘화·서정아(2003).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종합대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박선규(2002). 청소년보호법 위반 유형 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순희(1993). 학교 주변 유해업소의 실태와 대책을 위한 기초 연구 : 서울 시내의 중학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 김의철(2003).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1). pp. 81-114.
- 서도원(1998). 학생범죄의원인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재순(2001). 청소년의 생활문제에 대한 태도와 비행경험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자, 하은혜, 이해련, 홍강의(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이강효(2000). 청소년 유해환경과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호(1992). 청소년 유해환경의 이해와 규제. 한국청소년연구원 편, 청소년문화론, 한국청소년연구원.
- 이기숙, 김수연(1999).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 · 인지수준과 비행과의 관계. 청소년

- 년연구 pp. 6(1), 49-71.
- 이명선(2001). 건강신념모델을 적용한 청소년 비행과 유해환경과의 관련성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8(3), 37-58.
- 이명숙(1996). 청소년 유해환경 규제기능 강화.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민희 외 2인(2004).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종합대책 연구II.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은경, 지승희, 이지은, 최수미, 정찬석(2003). 청소년비행 위험요소·보호요소 척도의 개발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1(2), 57-70.
- 이종원의 4명(2001). 전국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재분, 현주, 박효정(2003).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과 대책.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춘재, 성현란, 송길연, 윤혜경, 김혜리, 박혜원, 광금주, 장유경, 박선미, 황상민, 이은희, 이도현, 조정호, 김선아 역 (1998). 발달정신병리학-영아기로부터 청소년기까지. Charles Wenar 저,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춘화, 윤옥경(2003). 여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임성택, 김혜진(2001).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심화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장관호(1998). 학교환경요인과 청소년비행 행동과의 관계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경숙 외 3인(1999).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 법규에 관한 연구-문제청소년 지도를 위한 법률적 이해.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정성모(1991). 학생범죄에 관한 고찰.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이홍(2003). 학교내외 학습환경저해 오염원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청소년대화의 광장(1998). 청소년문제론.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청소년보호위원회(2003).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유해환경 평가에 관한 연구.
----- (2003). 청소년보호백서.
----- (2002). 청소년고용 티켓다방 근절방안 토론회.
----- (2002). 청소년유해환경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 (2002). 청소년 유해환경 종합 실태조사.
- (2002). 청소년보호법해설.
- (2001). 청소년 유해 성인업소 위락지구 집중화방안 추진을 위한 사례조사연구.
- (2000).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정책포럼.
- (2000). 청소년유해환경 실태조사.
- (1999). 유해업소 고용청소년을 위한 사법·복지·교육대책.
- (1999).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실태조사 연구보고서.
- (1998). 청소년출입 제한구역 실태 특별조사 보고서.
- 한국청소년개발원(2004). 한국의 청소년정책 통계.
- (1999). 향락사업에 유입된 10대 청소년들의 사회복귀 방안.
- (1997). 청소년 문제행동의 이해와 지도.
- (1990). 청소년의 유해업소 접촉실태와 대책 연구.
- 한준상(1998). 동송동의 아이들: 청소년의 파격문화.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Allen, J. P., Moore, C. M., and Kupermine, G. P.(1997). Developmental approaches to understanding adolescent deviance. In S. S. Luthar, J. A. Burack, D., Cicchetti, and J. R. Weisz (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548-567.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fourth edition (DSM-IV)*. Washington DC: Author.
- Farrington, D. P.(1999). Implications of criminal career research for the prevention of offending. *Journal of Adolescence*, 13, 93-113.
- Lipsey, M. W., and Derzon, J. H.(1999). Predictors of violent or serious delinquency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In R. Loeber & D. P. Farrington (Eds.), *Serious and violent juvenile offenders* (pp. 86-105). Thousand Oaks, CA: Sage.
- Rutter, M.(1979). Protective factors in children's responses to stress and disadvantage. In M. W. Kent & J. E. Rolf (Eds.), *Primary prevention of psychopathology: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Hanover, NH: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 부 록

1. 심층면접에 사용된 설문지
2. 설문지

부 록

〈부록 1〉 심층면접에 사용된 설문지

〈부록표 1〉 청소년 문제행동과 유해업소

	유해업소와의 관련성여부	관련유해업소
귀걸이 착용		
머리 염색		
짙은 화장		
과도한 다이어트		
음주		
흡연		
성인용 술집 출입		
디스코텍/나이트클럽 출입		
성인용 노래방 출입		
비디오방 출입		
음란/포르노물 열람		
폭력/잔혹물 열람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부모님에 대한 반항		
교사에 대한 반항		
용돈 유용		
무단 결석		
무단 외박		
가출		
컨닝		
가족 돈/카드 유용		
심한 말다툼		

타인 금품 절도		
금품 갈취		
상점 절도		
공공기물 파손		
폭행		
패싸움 참여		
공공장소 소란행동		
친구따돌리기(왕따)		
성매매		
강제적인 성관계		
버스/지하철에서의 고의적 인 신체접촉		
사창가 배회		
자살 시도		
마약복용		
환각약물흡입		
폭력성 게임		
폭력성 사이트 열람		
음란성 게임		
음란/포르노 사이트 열람		
음란대화시도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반 사회적 사이트 열람		
인터넷 과잉 몰입		
온라인 욕설/폭언		
웹사이트 해킹		
q스팸메일/바이러스 유포		
허위정보 유포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온라인 스토킹		

2. 유해업소 이용실태

내 친구들은 어떻게 유해업소에 출입하는가?

3. 유해업소의 유해요인

내가 생각하는 유해업소의 해로운 점(나쁜 점)은?

〈부록 2〉 설문지

청소년유해업소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연구의 목적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사항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각각의 질문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본 연구를 위해 잠시만 시간을 내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연락처: 청소년시설환경학회(374-9241)

I. 유해업소 출입경험

* 2005학년도 1학기(2005년 3월부터 8월까지)에 다음과 같은 업소에 얼마나 자주 출입하였습니까?(출입한 적이 없으면 0으로 표시해 주세요)

- | | |
|----------------------------|-----------|
| 1. (술, 담배를 판매하는) 슈퍼/마트/편의점 | 1주일에 ___회 |
| 2. 오락실 | 1주일에 ___회 |
| 3. PC방 | 1주일에 ___회 |
| 4. (술, 담배를 판매하는) 카페/식당 | 1개월에 ___회 |
| 5. 도서대여점/비디오 및 DVD대여점 | 1개월에 ___회 |
| 6. 당구장 | 1개월에 ___회 |
| 7. 노래방 | 1개월에 ___회 |
| 8. 술집/유흥주점(나이트클럽) | 1학기에 ___회 |
| 9. 성인PC방/비디오/DVD방 | 1학기에 ___회 |
| 10. 찜질방 | 1학기에 ___회 |
| 11. 여관 | 1학기에 ___회 |

II. 유해요인 접촉 실태

* 2005학년도 1학기(2005년 3월부터 8월까지)에 업소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경험한 적이 없으면 0으로 표시해주세요)

1. 나는 술집/유흥주점(나이트클럽/클럽)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

- | | |
|---------------------------|-----------|
| 1) 음주/흡연을 한 적이 있다. | 1학기에 ___회 |
| 2) 음란물/폭력물을 관람한 적이 있다 | 1학기에 ___회 |
| 3) 문제친구/비행청소년들과 모인 적이 있다. | 1학기에 ___회 |

- 4) 밀실에서 이성친구와 함께 있는 적이 있다. 1학기에 ____회
 5) 밤 10시 이후에 이용한 적이 있다. 1학기에 ____회

2. 나는 성인PC방/비디오/DVD방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적이 있다.

- 1) 음주/흡연을 한적이 있다. 1학기에 ____회
 2) 음란물/폭력물을 관람한 적이 있다 1학기에 ____회
 3) 문제친구/비행청소년들과 모인 적이 있다. 1학기에 ____회
 4) 밀실에서 이성친구와 함께 있는 적이 있다. 1학기에 ____회
 5) 밤 10시 이후에 이용한 적이 있다. 1학기에 ____회

3. 나는 슈퍼/마트/편의점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적이 있다.

- 술/담배를 구입한적이 있다. 1학기에 ____회

4. 나는 카페/식당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적이 있다.

- 1) 음주/흡연을 한적이 있다. 1학기에 ____회
 2) 음란물/폭력물을 관람한 적이 있다 1학기에 ____회
 3) 문제친구/비행청소년들과 모인 적이 있다. 1학기에 ____회
 4) 밀실에서 이성친구와 함께 있는 적이 있다. 1학기에 ____회
 5) 밤 10시 이후에 이용한 적이 있다. 1학기에 ____회

5. 나는 도서대여점/비디오 및 DVD대여점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적이 있다.

음란물/폭력물을 빌린 적이 있다. 1학기에 ___회

6. 나는 오락실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

- 1) 음주/흡연을 한 적이 있다. 1학기에 ___회
- 2) 음란물/폭력물을 관람한 적이 있다 1학기에 ___회
- 3) 문제친구/비행청소년들과 모인 적이 있다. 1학기에 ___회
- 4) 밀실에서 이성친구와 함께 있는 적이 있다. 1학기에 ___회
- 5) 밤 10시 이후에 이용한 적이 있다. 1학기에 ___회

7. 나는 노래방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

- 1) 음주/흡연을 한 적이 있다. 1학기에 ___회
- 2) 음란물/폭력물을 관람한 적이 있다 1학기에 ___회
- 3) 문제친구/비행청소년들과 모인 적이 있다. 1학기에 ___회
- 4) 밀실에서 이성친구와 함께 있는 적이 있다. 1학기에 ___회
- 5) 밤 10시 이후에 이용한 적이 있다. 1학기에 ___회

8. 나는 PC방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

- 1) 음주/흡연을 한 적이 있다. 1학기에 ___회
- 2) 음란물/폭력물을 관람한 적이 있다 1학기에 ___회
- 3) 문제친구/비행청소년들과 모인 적이 있다. 1학기에 ___회
- 4) 밀실에서 이성친구와 함께 있는 적이 있다. 1학기에 ___회
- 5) 밤 10시 이후에 이용한 적이 있다. 1학기에 ___회

9. 나는 당구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

- 1) 음주/흡연을 한 적이 있다. 1학기에 ___회
- 2) 음란물/폭력물을 관람한 적이 있다 1학기에 ___회
- 3) 문제친구/비행청소년들과 모인 적이 있다. 1학기에 ___회
- 4) 밀실에서 이성친구와 함께 있는 적이 있다. 1학기에 ___회
- 5) 밤 10시 이후에 이용한 적이 있다. 1학기에 ___회

10. 나는 찜질방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

- 1) 음주/흡연을 한 적이 있다. 1학기에 ___회
- 2) 음란물/폭력물을 관람한 적이 있다 1학기에 ___회
- 3) 문제친구/비행청소년들과 모인 적이 있다. 1학기에 ___회
- 4) 밀실에서 이성친구와 함께 있는 적이 있다. 1학기에 ___회
- 5) 밤 10시 이후에 이용한 적이 있다. 1학기에 ___회

11. 나는 여관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

- 1) 음주/흡연을 한 적이 있다. 1학기에 ___회
- 2) 음란물/폭력물을 관람한 적이 있다 1학기에 ___회
- 3) 문제친구/비행청소년들과 모인 적이 있다. 1학기에 ___회
- 4) 밀실에서 이성친구와 함께 있는 적이 있다. 1학기에 ___회
- 5) 밤 10시 이후에 이용한 적이 있다. 1학기에 ___회

Ⅲ. 유해요인 접촉 경로

* 다음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세요.

1. 청소년들이 술집/슈퍼 등의 업소에서 술 담배와 같은 유해물질에 접촉(구입 혹은 음주 흡연)할 수 있는 것은

1) 업소측의 관리소홀 때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2) 청소년의 적극적인 노력때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2. 청소년들이 도서대여점/비디오대여점/비디오방 등의 업소에서 음란물/폭력물 등과 같은 유해매체에 접촉(관람 혹은 대여)할 수 있는 것은

1) 업소측의 관리소홀 때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2) 청소년의 적극적인 노력때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3. 청소년들이 노래방/비디오방/여관 등의 업소에서 이성친구들과 함께 폐쇄된 공간(밀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1) 업소측의 관리소홀 때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2) 청소년의 적극적인 노력때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4. 청소년들이 심야(밤 10시 이후)에 PC방, 노래방 등의 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1) 업소측의 관리소홀 때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2) 청소년의 적극적인 노력때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IV. 유해업소의 확산경로

* 다음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세요.

1. 유해요인 접촉을 위한 정보(예를 들어 “□□마트에서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다.”, “□□술집은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다” 등)를 알게 될 경우 주로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 ① 친구 ②선후배 ③부모 ④ 형제자매
 ⑤ 사촌형제 ⑥인터넷 ⑦광고 ⑧ 기타()
 ⑨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준 적이 없다

2. 유해업소에 출입할 경우 다음 중 어떤 사람들을 주로 데리고 갑니까?

- ① 친구 ②선후배 ③부모 ④ 형제자매
 ⑤ 사촌형제 ⑥ 친척 어른 ⑦기타()
 ⑧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간적이 없다.

V. 문제행동의 측정

*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해당되는 빈칸에 ✓표시 해주세요.

	자주있다	가끔있다	거의없다	전혀없다
음주				
흡연				
음란/포르노물 열람				
폭력/잔혹물 열람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부모님에 대한 반항				
교사에 대한 반항				
용돈 유용				
무단 외박				
가출				
타인 금품 절도				
금품 갈취				
폭행				
패싸움 참여				
공공장소 소란행동				

* 다음은 응답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의 해당되는 사항에 ✓ 표시를 하거나 기입하여 주십시오.

1. 당신의 성별은? 1) 남() 2) 여()

2. 당신의 나이는? 만()세

3. 당신의 학교는? 1) 중학교() 2) 인문고() 3) 실업고()

4. 당신의 한 달 용돈은? ()원

5.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 (2) ----- (3) ----- (4) ----- (5) -----

6.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 (2) ----- (3) ----- (4) ----- (5) -----

7.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 (2) ----- (3) ----- (4) ----- (5) -----

끝. 감사합니다!

